

建築士

■ 등록 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 (서) 라-26
 ■ 1985년 12월 31일 제 3종 우편물(나)급인가 ■ 우편번호/137-070
 ■ 1990년 8월 15일 발행 ■ 통권 256호 ■ 발행/대한건축사협회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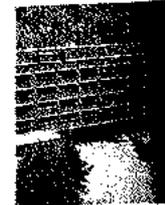
너

여년간 오
넘해왔습

오직 우리나
용용 한길만

말재, 세라믹화
나라 무가재료
추재, 산업재를

신소재 분야
있습니다.



크롬·시리카·스테인



트·마이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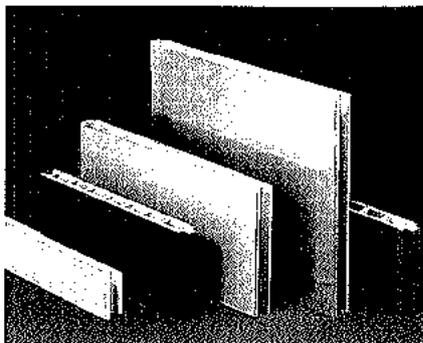
리



유리·색유리·자동차안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칸 사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성** / 타일, 분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음도 / 건축물의 외벽·커리커·계단·도포벽의 자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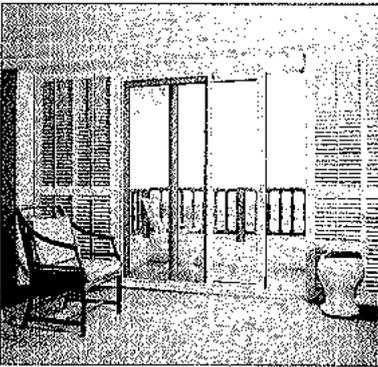
벽산 베이스

명품창문 이견창호와 세계수준의 제주신라호텔이 만났습니다

제주도 풍문에 본격 리조트호텔로 문을 연 제주신라
세계적 수준의 제주신라호텔 330개 객실 창문으로
이견창호 Royal Lift Sliding Series가 선택된 이유—

세계 10대 호텔로서 신라호텔의 명예가
제주신라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호텔측이 창문 하나의 선택에 보여준
세심함은 컸다.

평상시 강한 바람은 물론,
여름에 특히 태풍이 많은 제주해안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과연 어떤 창문이 적합할까?
'밀폐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창문'—
이견창호 특유의 장점이 호텔측이 요구하는
기능에 그대로 일치되어 뛰어난 기능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주는 창문으로서
맛진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설계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뛰어난 기능으로 건물의 품격을 더해주는 이견창호

디자인·소재에서/기존 창호와 전혀 다른 개념의 소재 결합과 칼라의 조합으로
건물의 다양한 요구에 알맞게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방음·단열에서/컴퓨터로 정밀 설계되고 밀폐성높은 가스켓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방음, 단열 효과가 특히 뛰어납니다.
환기·개폐에서/특수 가어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부드러우며 환기만을 위한
특수 개폐가 가능, 환기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므로 쾌적한 실내가 유지됩니다.
안전·수명에서/특수 유리와 고강도 소재 사용, 특수 배수 시스템에 의해
수밀성과 내부식성, 내풍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태풍, 폭우등의 악천후에서도
변형되지 않으며 독특한 잠금장치로 인해 도난, 침입의 우려가 없습니다.
시공에서/공장 완제품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현장 작업이 간단하며 건식공법에 의한
깨끗한 마감 처리로 정기적인 보수 필요없이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견 시스템 윈도우

■ 상설전시장 안내 위치 :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 540-2071~9 FAX : 540-2080
*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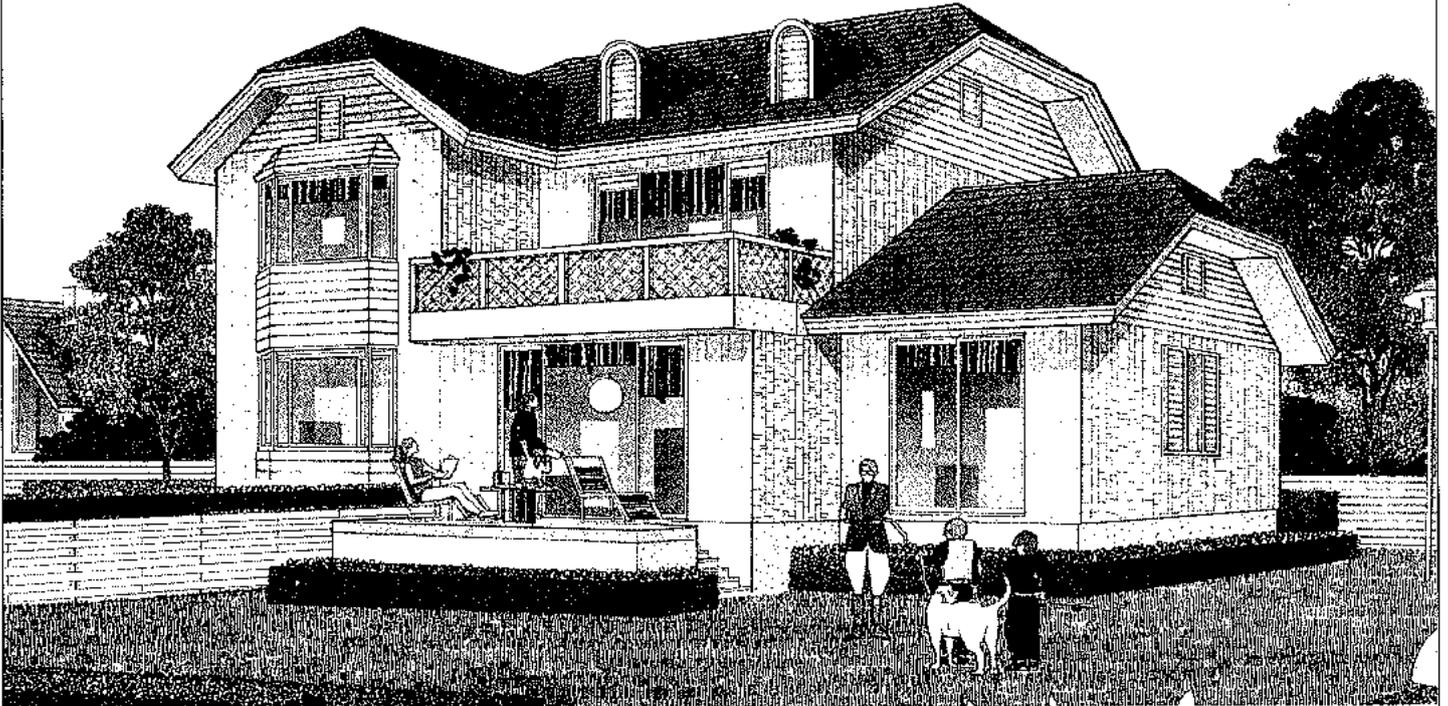
이견창호

●이견산업주식회사 ●이견자원개발주식회사 ●EAGON FOREST PRODUCT INC.

한국에 온 정통 칼라아스팔트 싱글 - 맨빌



미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정통 칼라아스팔트 싱글 - 맨빌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Manville 계열 수입판매자 (Exclusive Agent) 인 동림산업이 개성있는 주택을 꿈꾸오신 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하는 130년 전통의 칼라아스팔트 싱글 - 맨빌. 다양한 패턴, 아름다운 색상으로 한국에 지붕재의 칼라아스팔트 싱글 시대를 선언합니다.



삼익 세라믹 판넬 외벽재와 맨빌 칼라아스팔트 싱글 지붕재를 사용한 양재동 빌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 - 동림산업

가드레일, 가드케이블등의 철구조물 및 산업기계 등을 제작·판매해오던 東林이 신규 분야에까지 사업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산업기계 토목, 무역, 주문주택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 - 동림산업을 주목 하십시오.

칼라아스팔트 싱글이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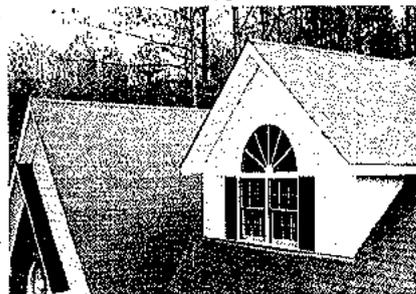
아름다운 외관과 간편한 사용으로 독특한 주택의 미를 살려 주는 칼라아스팔트 싱글은 경제성은 물론 내구성도 뛰어난 유럽풍의 고급 지붕재입니다. 최고급 빌라, 고급주택, 골프장, 클럽하우스, 영업용 건물, 별장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어 새로운 주택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맨빌의 칼라아스팔트 싱글이 우리나라 주택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엮니다.

미국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Manville

130년 역사를 지닌 ROOFING SYSTEM 전문업체인 MANVILLE은 지붕재 분야에서 쌓은 축적된 경험과 고도의 기술로 아름다운 색상, 다양한 패턴의 칼라아스팔트 싱글만을 생산함으로써 미국의 아스팔트 싱글 시장을 이미 석권 했습니다.

"맨빌의 명성" - 역시 최고임이 입증됩니다.

1. 맨빌은 1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붕재 전문회사
2. ROOFING SYSTEM 전문회사인 대형 다국적 기업
3. 미국 UL 마크를 획득한 보강할수 있는 제품.
4. 25년이상 장기간 품질보증
5. 최상의 화이버 글라스 함유로 뛰어난 내구성
6. 미국시장을 이미 석권한 최고급 세라믹 화이버 글라스 싱글
7. 완벽한 책임 시공 팀 운영, 전국적인 직영판매
8. 전문건설업, 갑류 무역업, 무역대리업 등록 및 제조업체로서 신뢰할 수 있는 회사.



다양한 칼라, 다양한 패턴 - 맨빌

- WOODLANDS PREMIER
- WOODLANDS
- FIRE KING
- ADVANTAGE 25
- WEATHER-SEAL
- FIRE GLASS III

주요관련 사업

철구조물, 철골제작, 산업기계 제작 및 수축, 토목공사, 아스팔트 싱글등 건축자재 수입, 주문주택사업

COLOR SELECTION



SHAKEWOOD TAN



HICKORY



BROWN BARK



CAMBRIDGE GRAY



TUDOR BLACK



COUNTRY SL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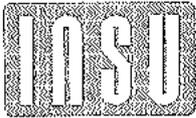
특수사업부: 강남구 삼성동154-15 (진술빌딩4층)
TEL: 557-1544, 563-1431~4
FAX: 563-1435

■ 인슈그라스울파넬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함은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상이고 유독기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율을 극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음의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 성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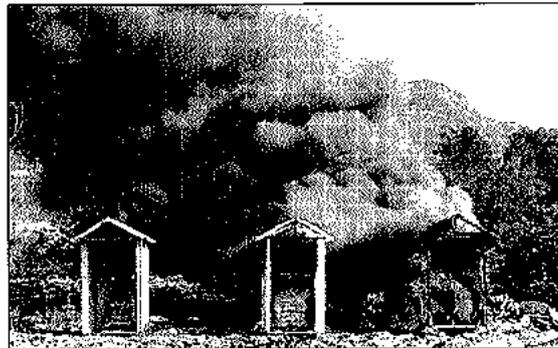


1급불연 단열파넬 탄생!



GLASS 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소재가 1급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하였으므로 기존단열파넬의 가장 큰 문제점인 화재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인슈그라스울파넬 방화실험장면)



주식회사 인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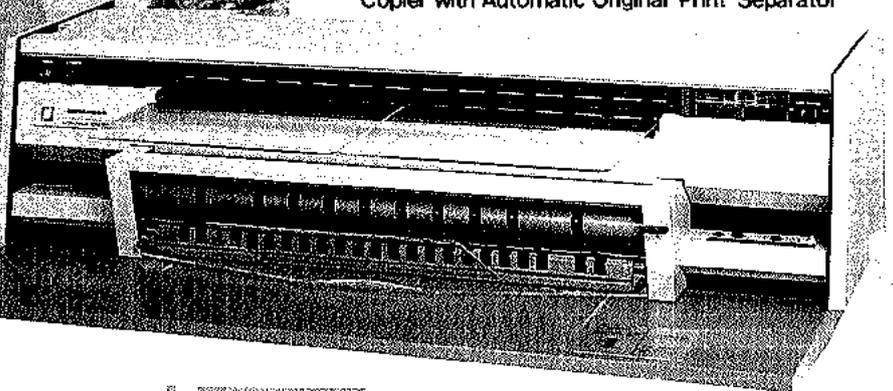
본사및공장 :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TEL : (02)745-0687, 이천 : (0336)32-4635~6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02)555-6891, FAX : 553-1651
부산사무소 : (051)462-9554 · 대구사무소 : (053)53 4543
광주사무소 : (062)524-9779 · 창원사무소 : (0551)85-5944



좋은 설계를
위하여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청사진 복사기 pd 1180i
암모니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Convenience Engineering
Copier with Automatic Original Print Separator



AMMONIA가 필요없는,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MECHANISM의 결정체입니다.

COPINICA PD 118은 종전의 AMMONIA를 사용하던
복사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독특한 System인 1R, 2B, P
현상방식과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견식 청사진복사기
입니다. (복사폭 680mm)

지금까지 청사진 복사기의 최대 난점이었던 AMMONIA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시간이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스위치
한 동작으로서 작동되는 COPINICA PD 118은 어느 업종,
어느 장소에서나 효율적인 작업을 약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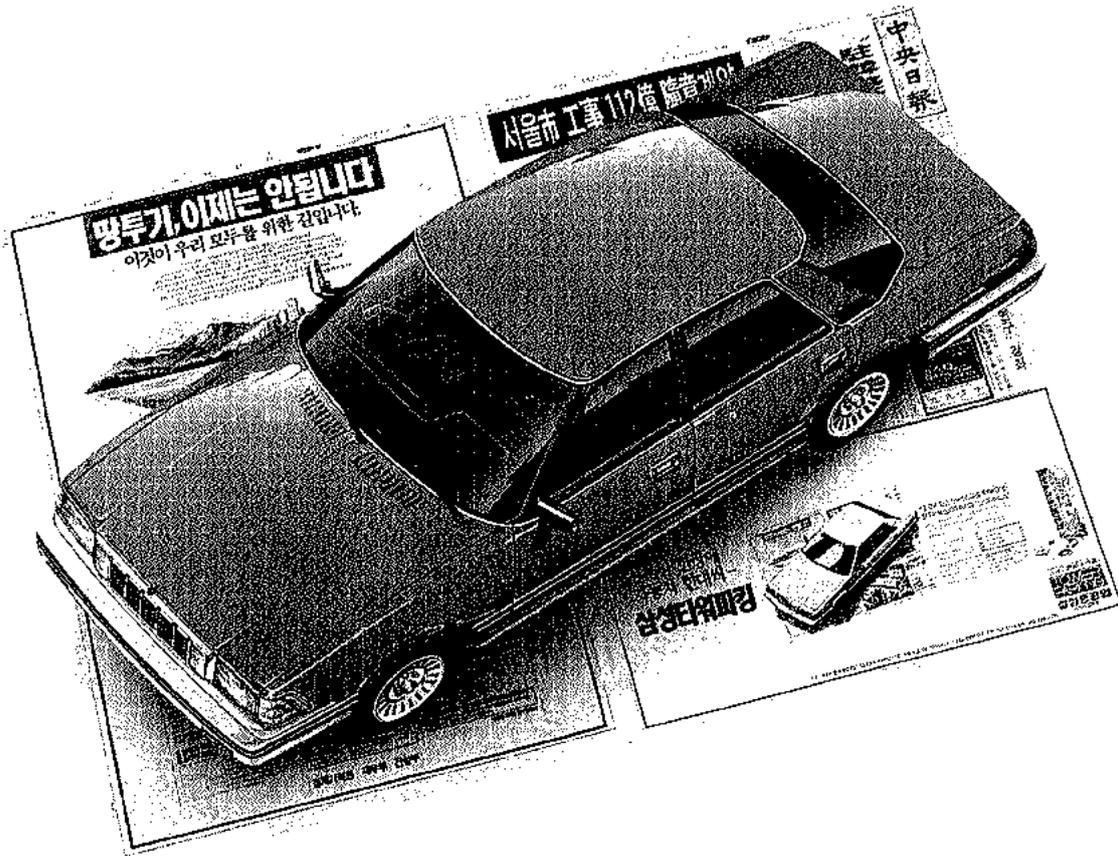
Items

- Diazoprinter
- Wide-width Plain Paper Copier ● Copy Paper
- PD Copier ● Film Sepia ● Tracing Paper
- Sensitive Paper (blue, black line, PD, etc.)
- ALL REPROGRAPHICS EQUIPMENTS



(株) 龜 映

The Pros in Reprographics in Korea.



신문지 한장에 자동차 한대씩— 삼성타워파킹

**국내최초로 초고속형, 텐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타워파킹 개발!**

10년전 국내에 입체주차장을 처음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삼성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도시의 주차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급기종

1. 공간이용의 극대화 실현
2. 다양한 기종
3. 컴퓨터로 제어되는 완전주차
4. 국내최고의 기술과 실적

- 수직순환방식 : 초고속형, 텐테이블 내장형 이중탑재형 ●엘리베이터방식
- 다층순환방식 ●2.3단주차설비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수직순환방식

대형체인에 차를 싣는 상자(Cage)를 깨달아 순환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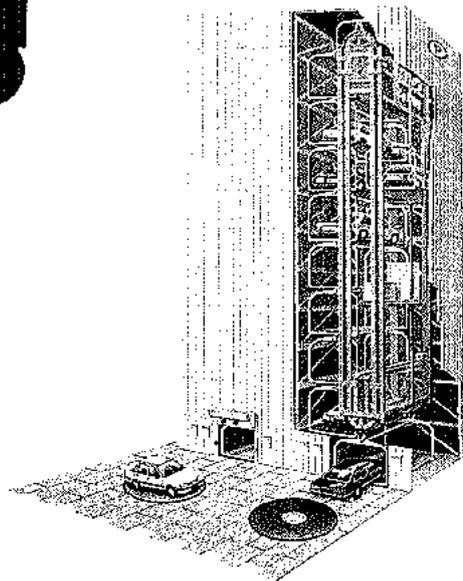
1. 초고속형 : 입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2. 텐테이블 내장형 : 전, 후, 좌, 우로 입출고 가능

3. 이중탑재형 : 파레트 하나에 2대주차

■ 엘리베이터 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고속으로 오르내리면서 좌우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고하는 방식 (횡식, 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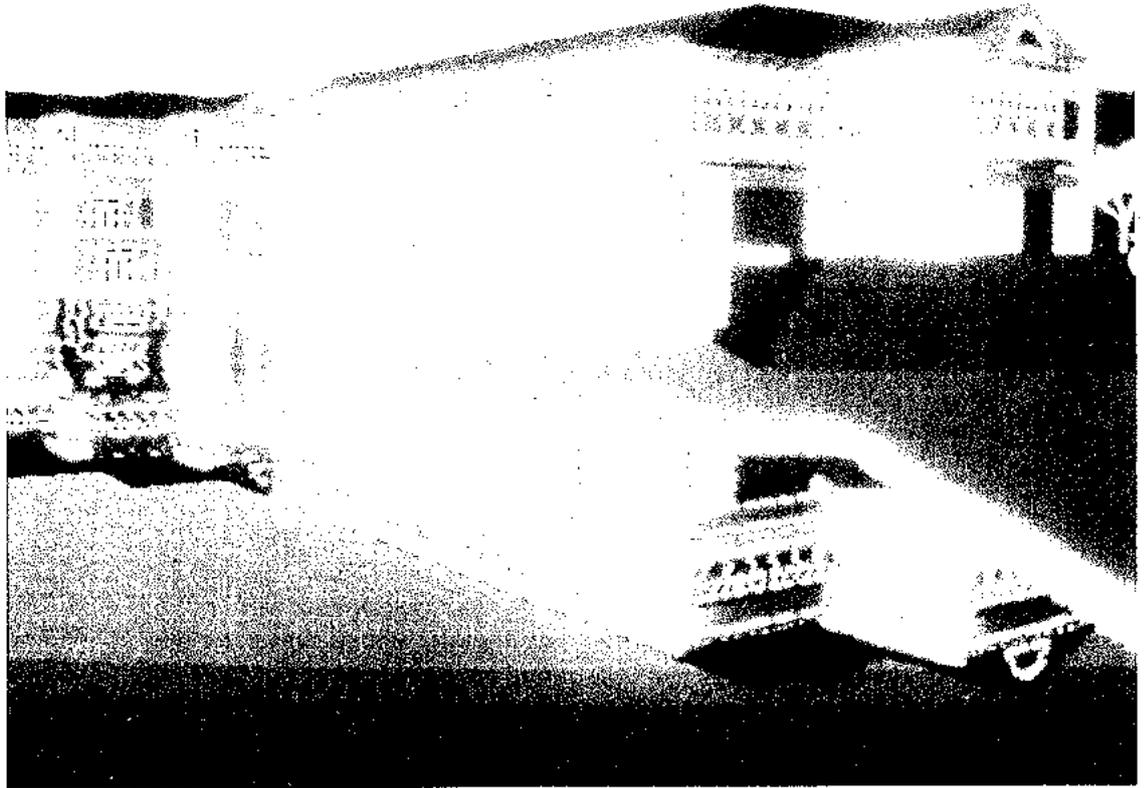
三星立體駐車設備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완벽지원, 완벽CAD 썬알파-플러스



썬파워386과
ARRIS의 만남.

썬알파-플러스 TURNKEY-SYSTEM의 특징

● HARDWARE FEATURE

풍부한 기술력을 보장하는 썬의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과
임선하여 권장하는 각종 주변기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도
초고속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며, 완벽한 A/S를
통하여 User를 최대한으로 지원합니다.

● CAD SYSTEM FEATURE

- 최고의 건축전용 CAD인 ARRIS를 채택, 2D/3D 그래픽 등 모든 CAD작업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범 DRAFT전용의 2D-시스템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3D 및 그래픽을 완벽하게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유물인 건축물 창작에 노력하시는 건축사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 완벽한 CAD의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효율성, 다양한 기술 개발등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 지원분야

썬알파-플러스는 MS-DOS로 지원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범 DRAFT전용 S/W

Auto CAD, VERSA CAD, MICRO CAD,
Micro Station

D/A (Design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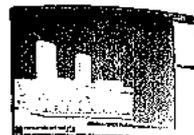
구조, 기계, 전기등의 각종 계산용 S/W + 기획설계

W/P (Word Proces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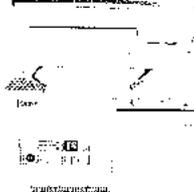
각종 사방서, 보고서 등 문서작성용 S/W

ARRIS의 특징

- 건축 디자이너를 위한 건축 전문 CAD S/W PACKAGE
- 과거 MAIN FRAME급 CAD의 성능을 PC에서 실현
- 건축 SCHEMATIC DESIGN 단계에서 실시 설계까지 일체식 SEQUENCE로 지원
- XENIX O/S사용으로 기존 PC CAD의 DOS한계 극복
- 화면 MENU방식으로 손쉬운 조작
- ISOMETRIC, 조감도, 내외부, 투시도 등 완벽한 3-D기능과 시간별 광원지원으로 완벽한 음영 CHECK 기능 보유(일조건)
- 건축자료의 DATA BASE화로 인력에 의한 기술 누수 방지
- 2D, 3D도면에 입·단면기호, 방위표시, 가구, 자동차, 나무 등 SYMBOL지원
- 1,600만 칼라 제공 및 신속한 칼라변화
- 컴퓨터에 의한 이고객 프리젠테이션으로 효과의 극대화 및 신뢰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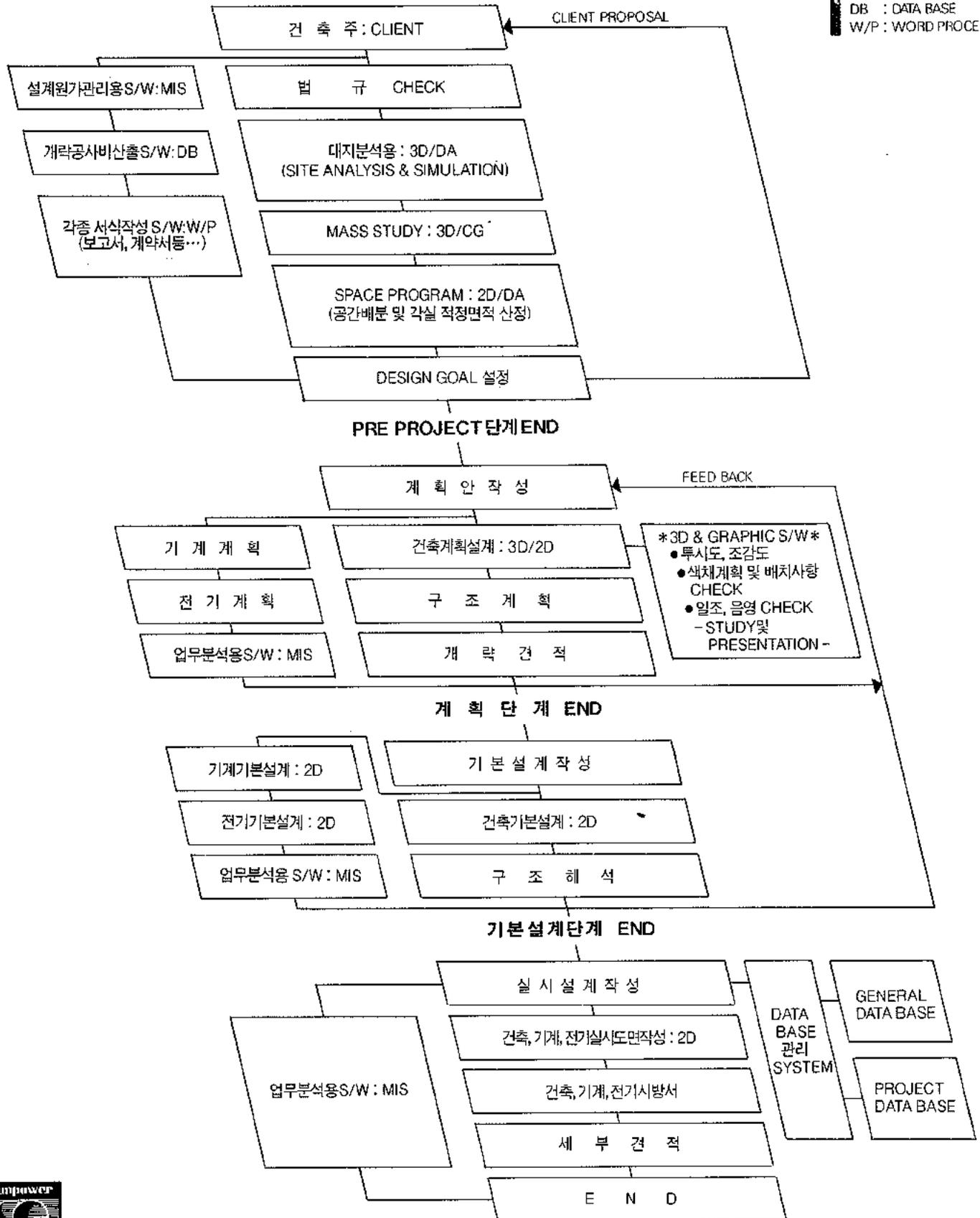
- 국내실정에 알맞는 Detail Library 및 건축자료 표준화를 위한 기법제공 예정
-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의 완벽한 교육지원



건축설계 전산화 SYSTEM MODEL

이 MODEL은 건축설계 전산화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제시이며, 썬 알파-플러스는 이중 CAD부분을 지원합니다.

CAD [2D :
3D/CG :
DA, DB :
W/P :
경영정보 :
2D : 2차원(평·입·단면도등)
3D : 3차원(투시도등)
CG : COMPUTER GRAPHIC
DA : DESIGN ANALYSIS
DB : DATA BASE
W/P : WORD PROCESSOR



서통 시사업부 5140-386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번피워컴퓨터 전시장 Tel. (02) 5140-386 (代) Fax. (02) 545-0296

차례/1990년 8월호 통권 제256호

공민작품	여수상호신용금고/鄭德薰	12
	명지대 체육관 및 강의동/(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14
	대흥빌딩/表相權	18
	제주 한국관/申勝培+(주)공간종합건축	20
	여수시청사/鄭德薰+엄이건축	24
	대양크리닉센터/曹泰鍾+姜綱哲	26
	목동 주경기장 및 야구장/金宇成	29
나의 소견지	호수가 보이는 여관/孫明文	32
읽어야 할 생각거리	건축여행/金仁喆	34
건축사회의	건축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	36
특이점	한국의 전통건축 ⑦ 朝鮮時代의 建築/張慶浩	44
	도시가로경관에서의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2) /徐輔光	56
	토오쿄오의 소규모 상업건축/金文德	64
	한국 전통가옥의 제조명/李王基+朴明德	76
실례경기	서울 방화지구 시영아파트 현상설계	85
작품	1990년 6월분 도서신고현황	92
신인출발		94
건축정보		96

發行人: 宋基德
 編輯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委員: 董政根, 朴舒弘, 吳澤吉, 金基哲,
 趙聖烈, 崔正一, 鄭正治, 朴研心,
 崔命喆, 金周喆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렉스: KIRAA 33550
 登錄番號: 서울 라-26 (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珪/沈文精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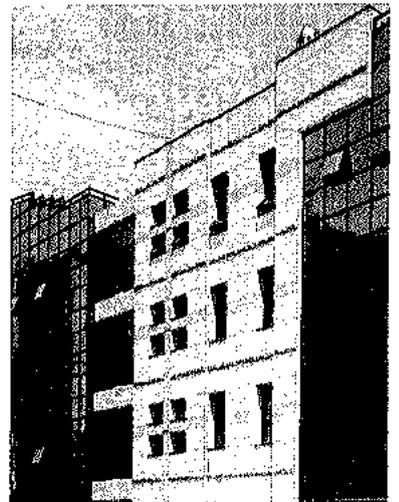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Member: Dong, Jeong-Keun/ Park, Seo-Hong/ Oh, Teak-ki
 / Kim, Kee-Chul/ Cho, Sung-Yul/ Choi, Jeong-Il/
 Jeong, Jung-Chil/ Park, Yeon-Sim/ Choi, Myung-
 Chul/ Kim, Joo-Cheo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1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 Moon Printing Co.)



표지: 제주 한국관
 (설계: 申勝培+(주)공간종합건축)

CONTENTS Vol. 256, AUGUST 1990

WORKS	<i>Yosu M.S.F.C Building/Jung, Duk-Hoon</i>	12
	<i>Myungji Univ. Gymnasium and Lecture Hall /Group-3 Architects</i>	14
	<i>Daehung Building/Pyo, Sang-Kwon</i>	18
	<i>Cheju Korea House/Sin, Seung-Bae & Space Group of Korea</i>	20
	<i>Yosu City Hall/Chung, Duck-Hoon & Aum Lee Architects & Engineers</i>	24
	<i>Daeyang Clinic Center/Cho, Tae-Jong & Kang, Kang-Churl</i>	26
	<i>Mok-dong Main Stadium & Diamond /Kim, Woo-Sung</i>	29
MY SKETCH	<i>An Inn Within Sight of the Lake/Son, Myung-Moon</i>	32
ESSAY	<i>Architecture Travel/Kim, In-Churl</i>	34
SYMPOSIUM	<i>Direction of Architecture Law Amendment</i>	36
REPORT	<i>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Jang, Kyung-Ho</i>	44
	<i>A Study on the Method of Exterior Color Planning of Building in the View of Urban Street/Suh, Bo-Kwang</i>	56
	<i>Small Commercial Buildings in Tokyo/Kim, Moon-Duck</i>	64
	<i>Review of the Traditional House/Lee, Wang-Kee & Park, Myoung-Duck</i>	76
COMPETITION FOR BANGHWA DISTRICT MUNICIPAL APT.		85
MATERIALS		92
NEWLY ADMITTED MEMBER		94
KIRA NEWS		96



전국시도지부 및 건축상담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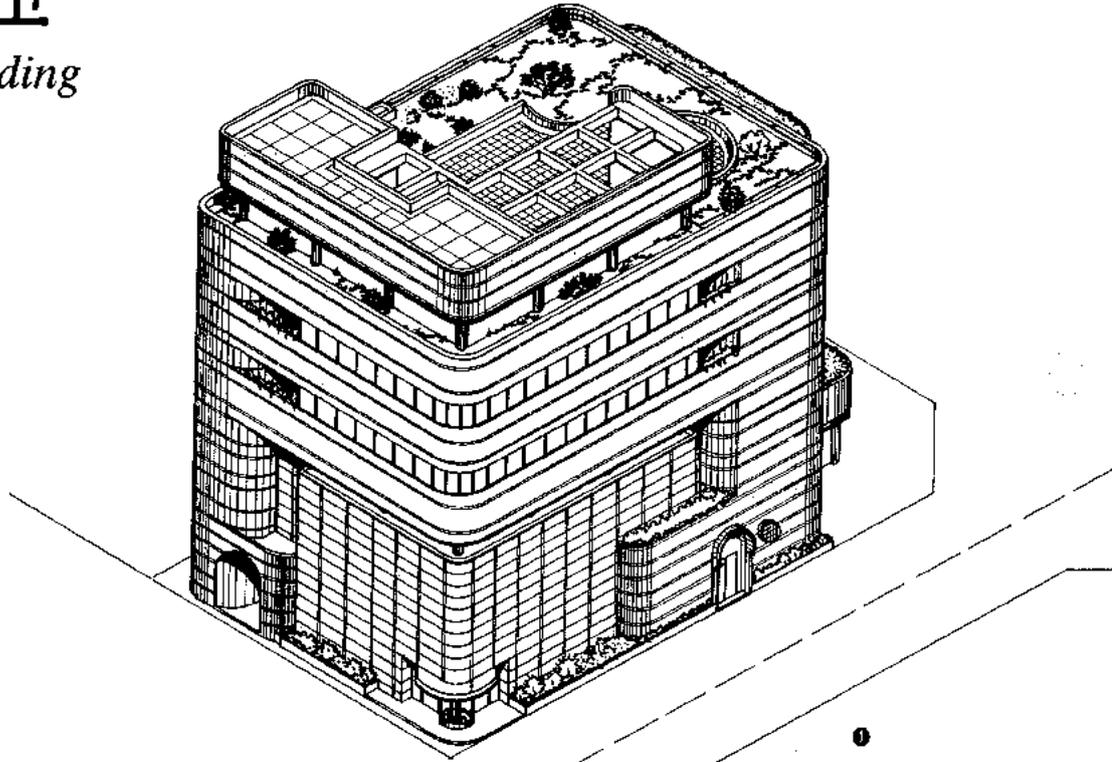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3가781, 634-2143 · 강동분소 / 강동구상대동317-4, 484-6840 ·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소 / 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중로분소 / 중로구정전동201-1, 738-5416 · 마포분소 / 마포구 경산동275-1, 333-5251 ·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50-12, 423-9158 · 중구분소 / 중구부도2가49-11, 279-1415 ·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1동1623-1, 587-9760 · 은평분소 / 은평구녹변동79-32, 352-6720 · 동작분소 / 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241-6, 511-8515 · 노원분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 양천분소 / 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분소 / 중랑구목1동171-12, 973-4921 · 성북분소 / 성북구삼선5가10, 923-4401 ·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가(부산테크비즈니스) 246-6284~5 ■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가11-8, (053) 72-5141~2 ■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032) 424-0146, 5100(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 521-0025 (FAX) 521-0026 ■ 대전직할시지부 / 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37-1, (042) 254-2441 ■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24-5, (031) 47-6129~30 · 직할분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1-8, (031) 42-6490, 7072 ·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719-9, (0343) 2-2698, 2-0012 ·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74-6, (032) 63-3144 · 성남분소 / 성남시신동5512, (0342) 2-5445 · 의정부분소 / 의정부시의정부동182, (0351) 2-1083 · 송탄분소 / 송탄시신정동21, (0333) 4-6153 · 고양분소 / 고양시원당읍죽교리38블럭16코트, (0344) 63-8902 ·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409-2, (0346) 63-8112 · 이천분소 / 이천군이천읍충리216-8, (0336) 2-3396 · 광명분소 / 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소 / 안산시고잔동531-5, 82-2820 ■ 강원도지부 / 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 54-2442 · 원주분소 / 원주시일산동206, (0371) 42-3257 · 강릉분소 / 강릉시성내동6-14 (0339) 2-2262 · 속초분소 / 속초시동명동466-33, (0392) 33-5081 ·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55-43, (0397) 2-3106 ·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흥리960-12, (0372) 43-2659 ■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7116-168, (0431) 56-2752, 53-7342 ·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673-1, (041) 2-3082 · 제천분소 / 제천시외동8-8, (0443) 2-6253 · 옥천분소 / 옥천군옥천읍삼양동222-206, (0475) 32-9997 ■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473-1, (042) 256-4088 · 천안분소 / 천안시문과동160-1, 4, (0417) 2-4551 ·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 32-2853 ·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 2-2217 · 대천분소 / 대천시대천동197-10, (0452) 34-3367 ■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진주시서산송동635-5(대죽빌딩508), (0652) 87-6007 · 이리분소 / 이리시남중동1가77-22, (0653) 52-3304 ·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1710-11, (0654) 2-4060 · 남원분소 / 남원시하정동106-2, (0671) 2-6002 ■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구화정동703-23(추신회관) (062) 364-7567, 33-9944 · 목포분소 / 목포시매안1동1, (0631) 43-3348 · 순천분소 / 순천시광원동51-11(0661) 3-2457 · 여수분소 / 여수시관문동441번지, (0662) 64-7023 ■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289번지, (053) 425-4904 · 포항분소 / 포항시죽도동43-22, (0562) 44-6029 · 경주분소 / 경주시노동동42-2(0561) 3-3638 ·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964-264, (0546) 52-6351 · 안동분소 / 안동시서부동157-4, (0571) 2-5703 · 김천분소 / 김천시명화동280-1, (0547) 2-2541 · 영주분소 / 영주시호천2동295-2, (0572) 2-4566 · 점촌분소 / 점촌시중앙동280-3, (0581) 2-2706 · 상주분소 / 상주시남성동36-23, (0582) 2-4306 ■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13-47, (0551) 46-4530~1 ·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강동585-6, (0522) 74-8836 · 진주분소 / 진주시본성동7-20, (0591) 2-6403 · 창원분소 / 창원시서호동163-18, (0557) 43-3577, 2-7420 · 김해분소 / 김해시부원동24B-10L, (0594) 2-6114 · 밀양분소 / 밀양시삼문동184-108, (0527) 53-2110 · 기장분소 / 기장군기정읍중앙리274-3, (0598) 2-7090 ·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방리522-4, (0523) 84-3050 · 거제분소 / 거제군신항읍고현리139-2, (0558) 635-3432 · 삼천포분소 / 삼천포시동읍동91-6(0593) 33-3591 ■ 제주도지부 / 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 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포동299-6, (064) 32-7777

여수상호신용금고

Yosu M.S.F.C Building

대지위치/전남 여수시 교동 630
 지역·지구/상업지역, 방화지구, 최저고도지구
 대지면적/608.0㎡
 건축면적/468.97㎡
 건폐율/75.49%
 용적률/349.79%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RC조
 외부 마감/반시유리 커튼월+파스텔타일
 주차대수/육외 3대, 육내 17대

鄭德薰/종합건축사사무소 동영건축
 Designed by Jung, Duk - Hoon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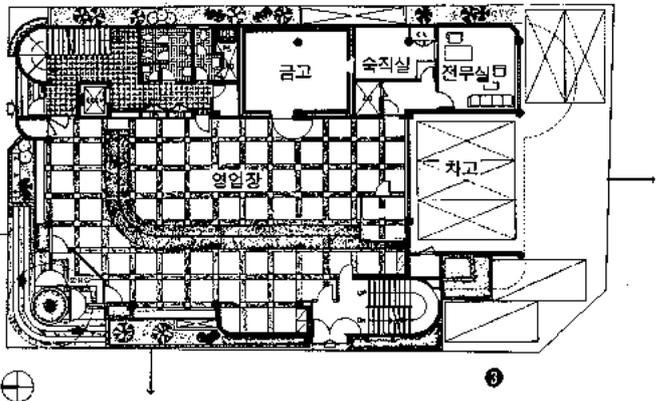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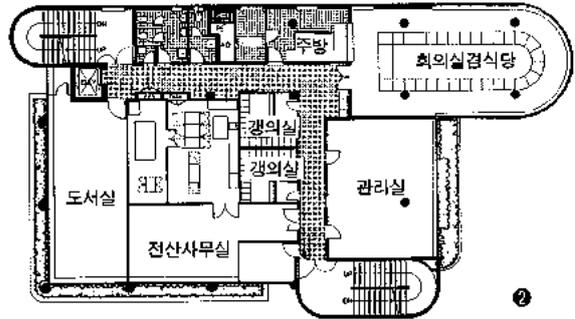
계획대지는 전면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종려나무가 가로수로 있으며, 하단에는 잔디와 화훼류가 깔려 있어 남국향취를 풍기는 중앙로에 면해 있다. 또한 우측과 후면에는 항구도시의 시장으로 접근되는 간선도로와 좌측으로 타 금융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여수시의 금융가라고 할 수 있는 위치로서 먼 옛날 갯벌을 성토, 매립한 지반으로 되어 있다.

계획의 전제로서

- 가로환경과 도시환경에 적응하며 상업건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며,
- 제2금융기관으로써 신용성·능률성·환대성·친근감을 도출하고,
- 주변 기존건물의 모티브를 최대한 감안하되 형태를 개성적으로 재구성하여 건축물이 장소성을 갖도록 하며,
- 기능과 형태를 만족하되 최대의 경제성을 중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작업에 착수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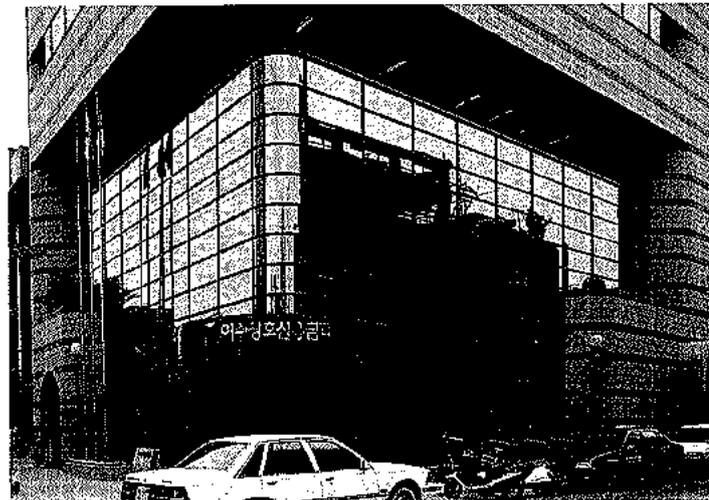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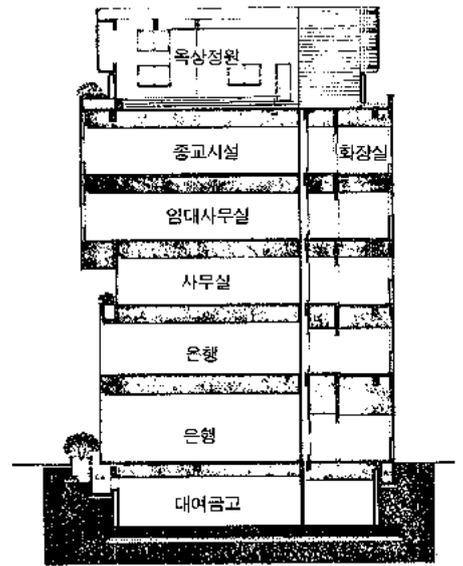
대지의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요구는 최대한의 용적을 구하는 것이었다. 후면이 남쪽이고 전면이 주진입 요소라는 점에 착안하여 후면에 주차장을 형성하고 건물을 Set Back 하였다. 또한 지붕에 옥상 조경을 적극 도입하여 부족한 녹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휴식공간을 구성하였다.

주출입구는 전면도로가 시장으로 진입되는 우측도로의 가각부분에 두어 영업적으로 고객을 유도하고, 캐노피를 원판으로 구성하여 강렬한 색채에 의한 시각적 쏠점을 이루도록 하였다. 상자형 조형의 모서리를 곡면에 의한 면접이를 시도하여 형태를 가감구성하고 캐노피·기둥·개구부의 형태요소를 부각시키려 하였다. 또한 전면의 좌측부, 우측부에 원형 개구부의 형태요소로서 부출입구를 두어 임대시설의 상업성을 극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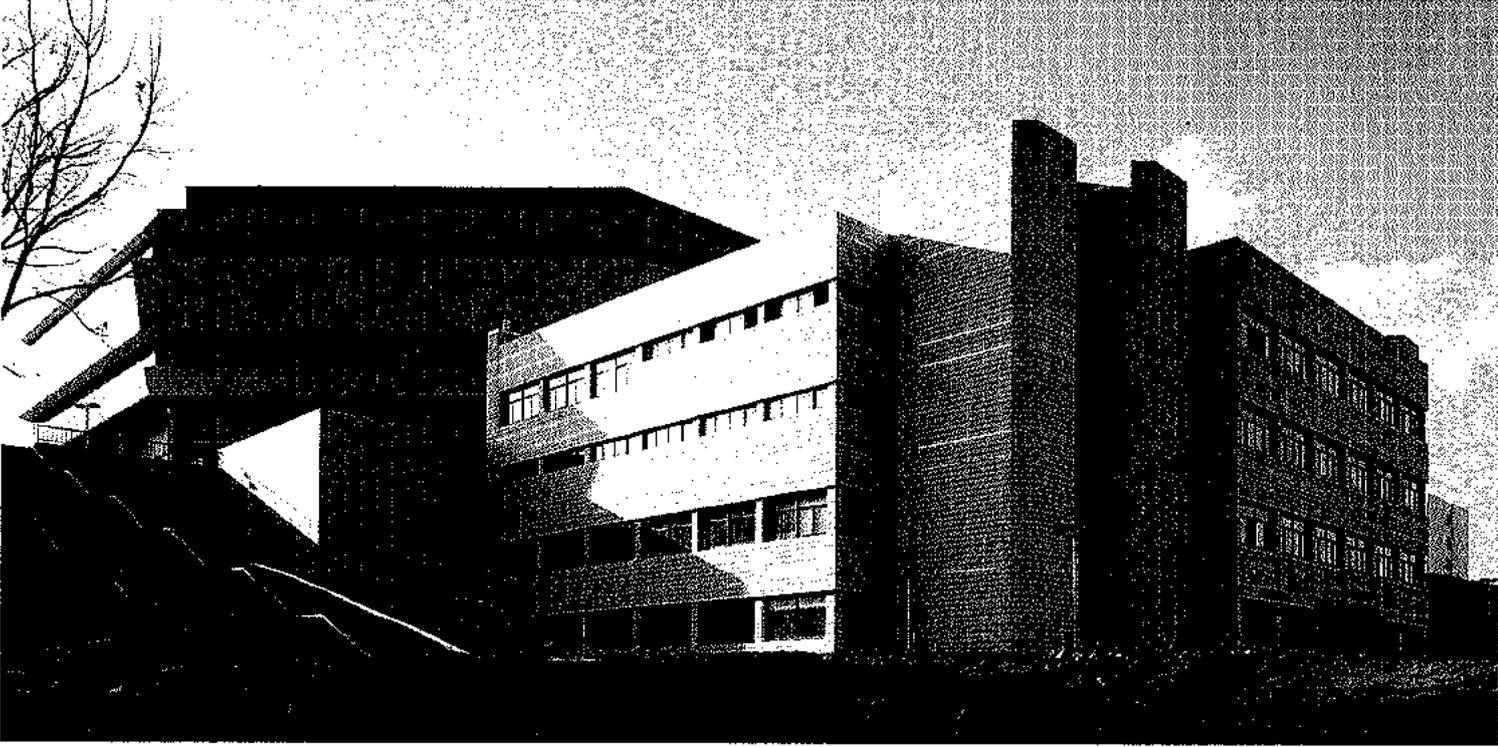


- ① 엑소메트릭
- ② 3층 평면도
- ③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④ 북측 파사드
- ⑤ 북동측모서리 외벽 상세
- ⑥ 사무실 내부 전경
- ⑦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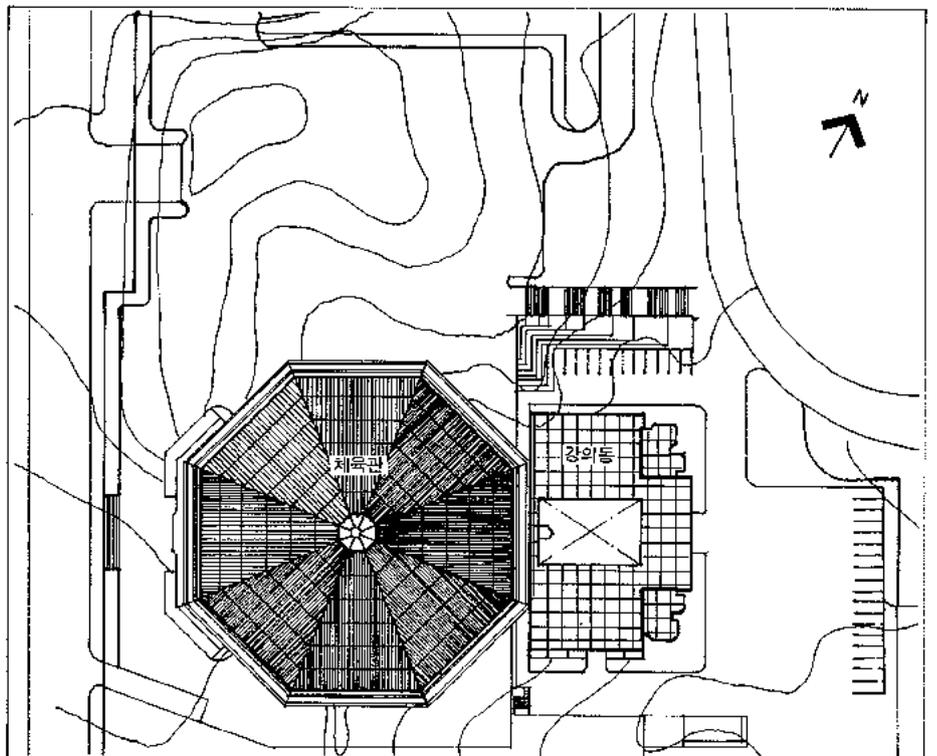


명지대 체육관 및 강의동

Myungji Univ. Gymnasium and Lecture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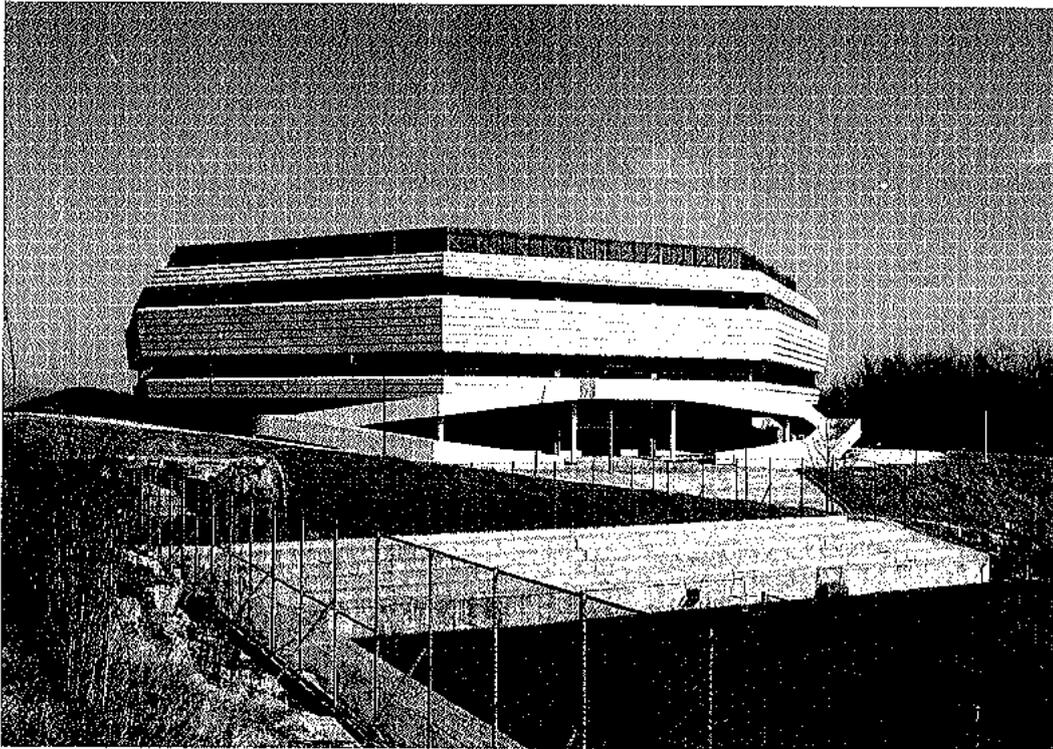


대지위치/경기도 용인군 남리
 대지면적/1,265,201㎡
 건축면적/14,556.2㎡
 연면적/84,675.0㎡
 건폐율/1.15%
 용적률/4.44%
 규모/체육관-지상 3층 체육대학-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외장용자기절타일



- ① 강의동측 전경
- ③ 체육관 전경
- ⑤ 체육관 단면도
- ② 배치도
- ④ 체육관 내부

(주)간심종합건축사사무소
 Group - 3 Architects



■ 실개소묘

● 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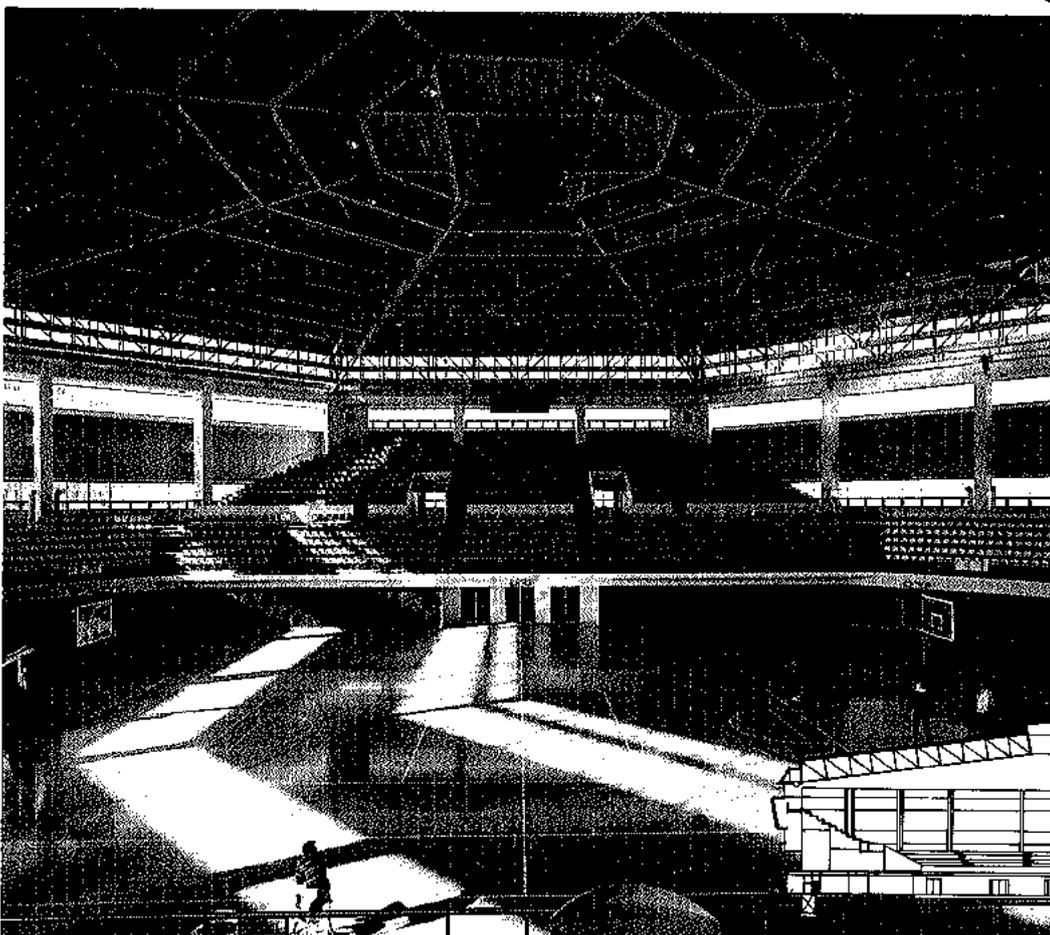
계획 건물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강의동)의 2원적 기능을 수렴하고 아울러 캠퍼스내의 각종 행사는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다목적 건물로 계획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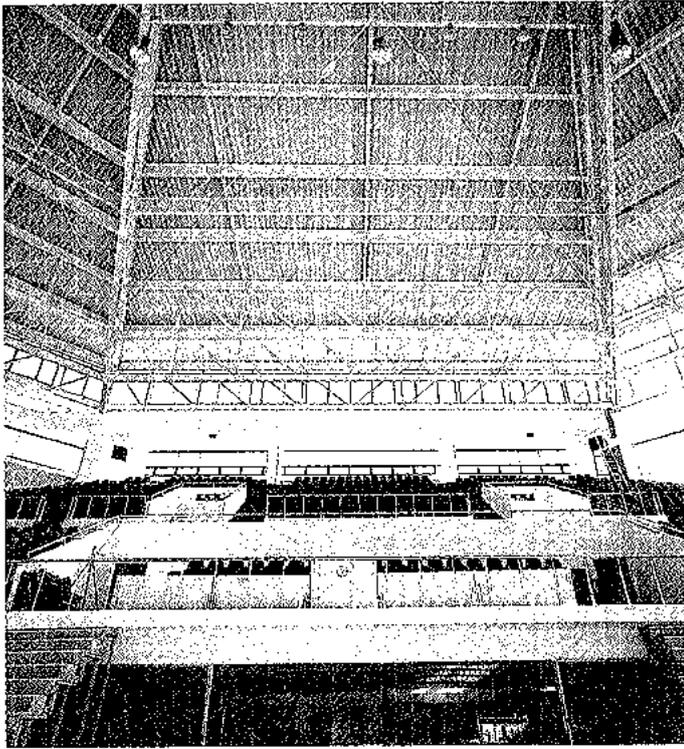
● 지역 Context와 배치

계획 대지는 캠퍼스 내의 남측경계에 접한 15m 정도의 고저차가 있는 절개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본 계획은 자연축에 순응하는 건물의 축개념을 도입하여 서측면의 산을 차경으로 동측의 절개지를 트인 공간으로 도입하여 자연과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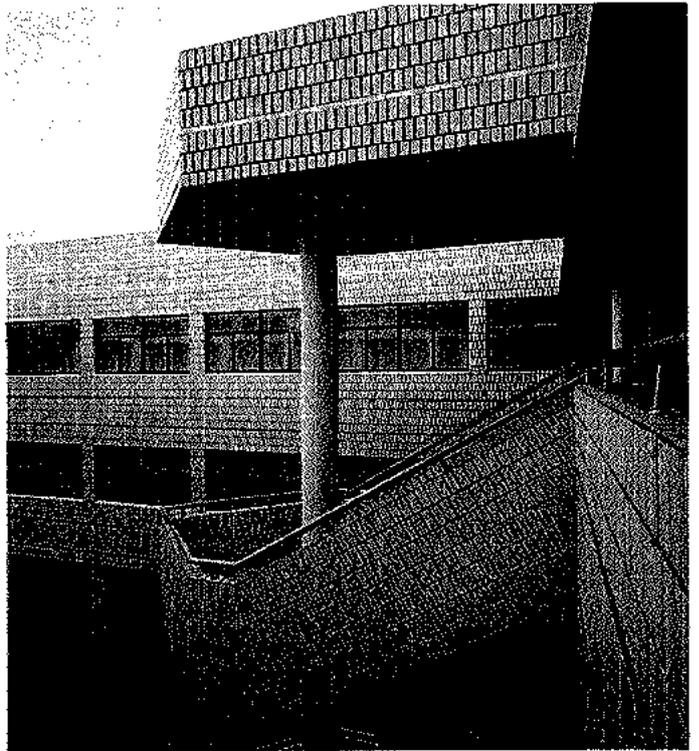
● 접근성과 도형

계획 건물에의 접근은 캠퍼스를 남북축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따라 주경기장 전면 광장으로의 진입과 대운동장 우회도로를 통해 보조경기장으로 진입하는 2원적 진입 동선체계로 구성되었다. 건물은 동서측의 완만한 경사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건물 전체의 수평적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 시켰고 절개지를 이용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2원적 구성으로 조형적 조화를 피하였고 주경기장 Roof 구조는 단순경량화로 노출구조가 갖는 중압감을 해소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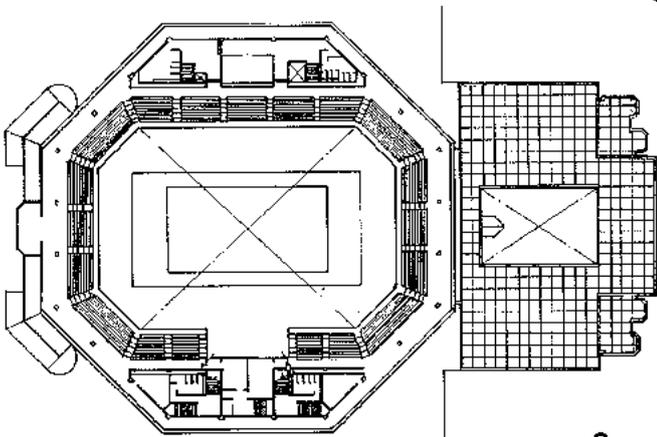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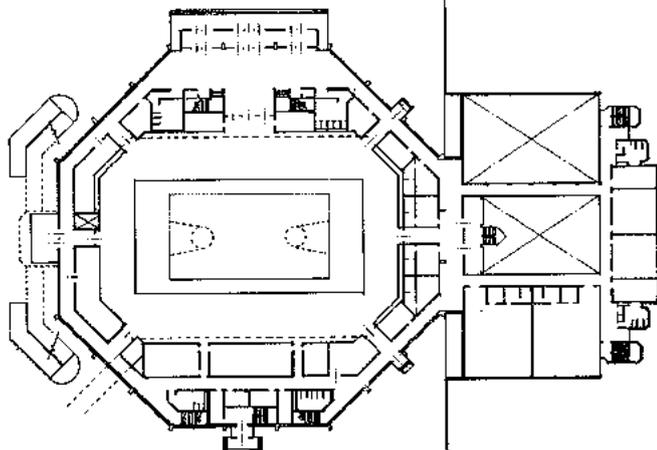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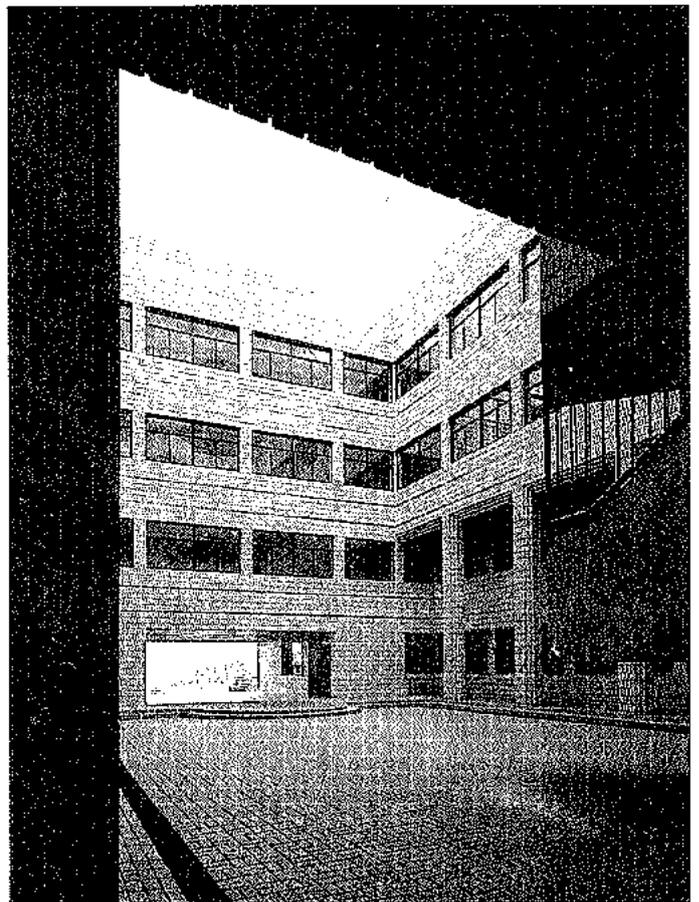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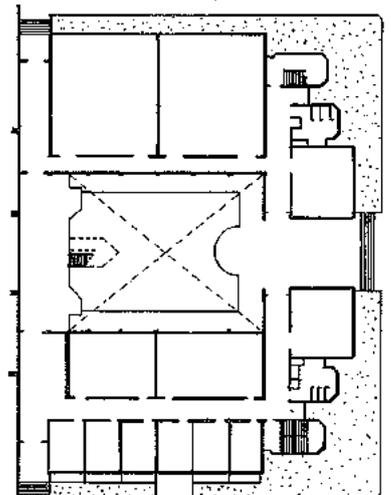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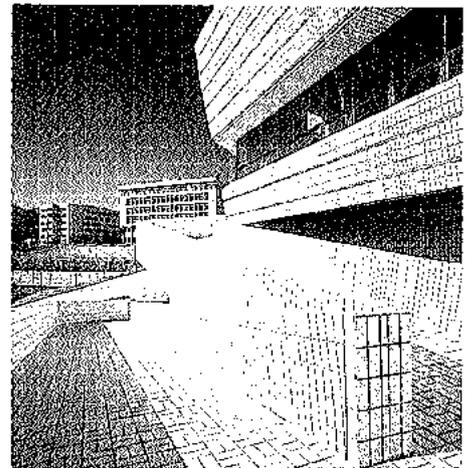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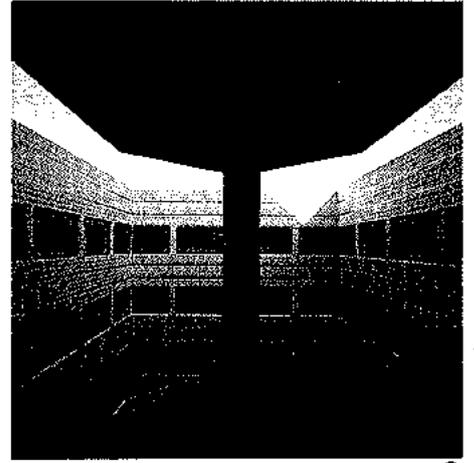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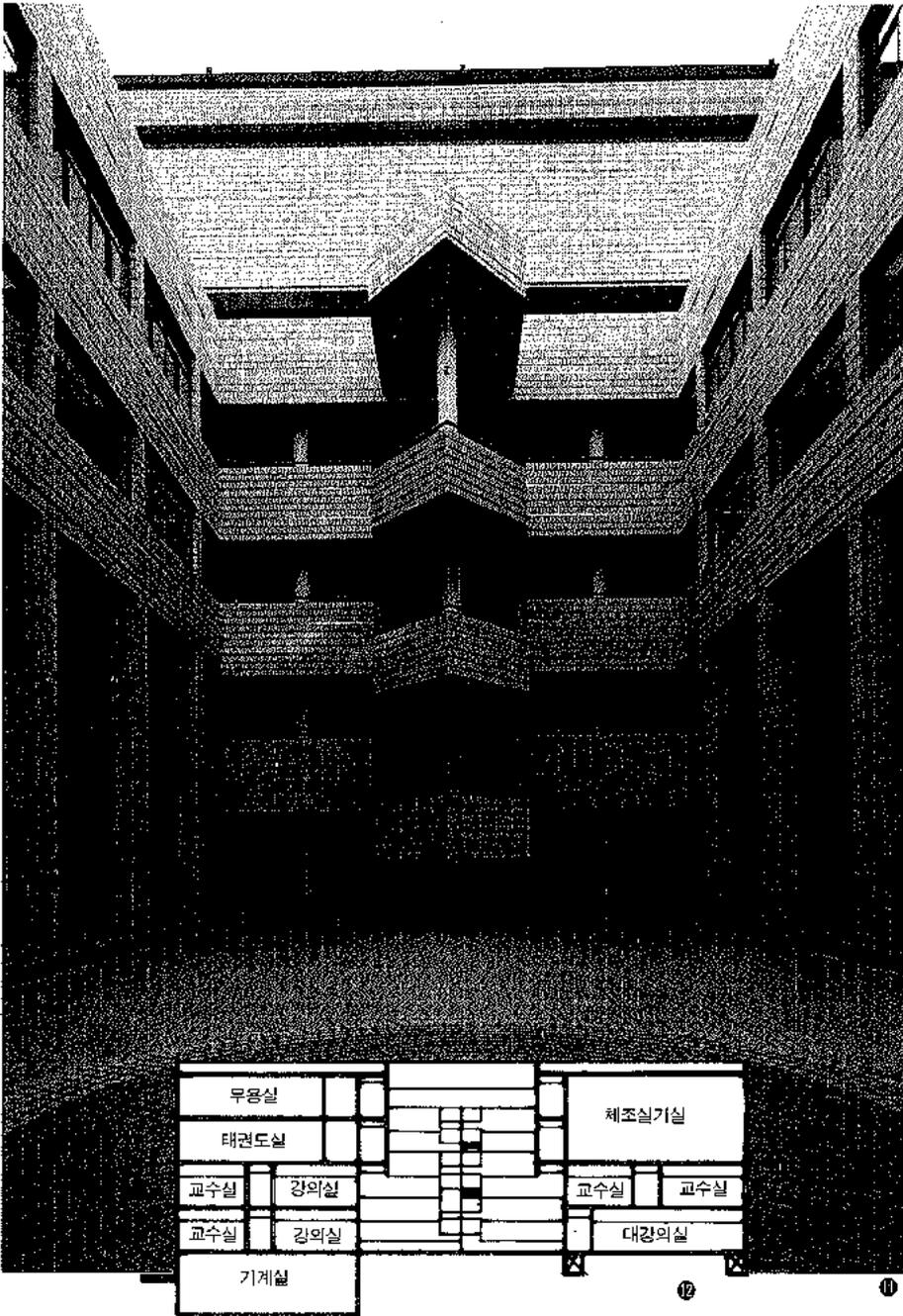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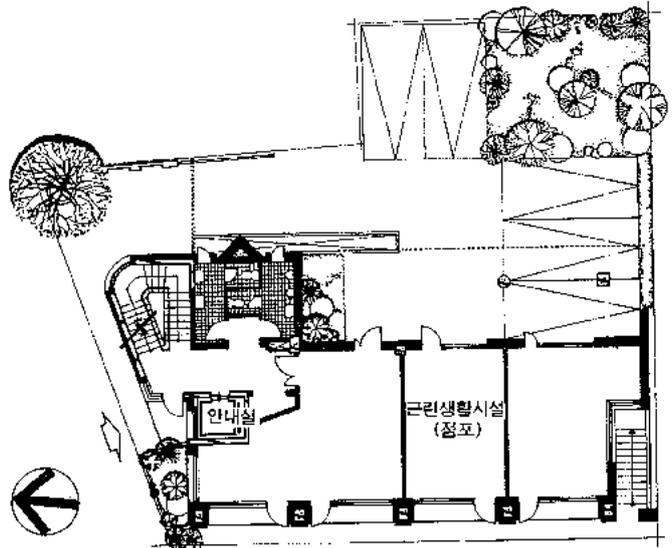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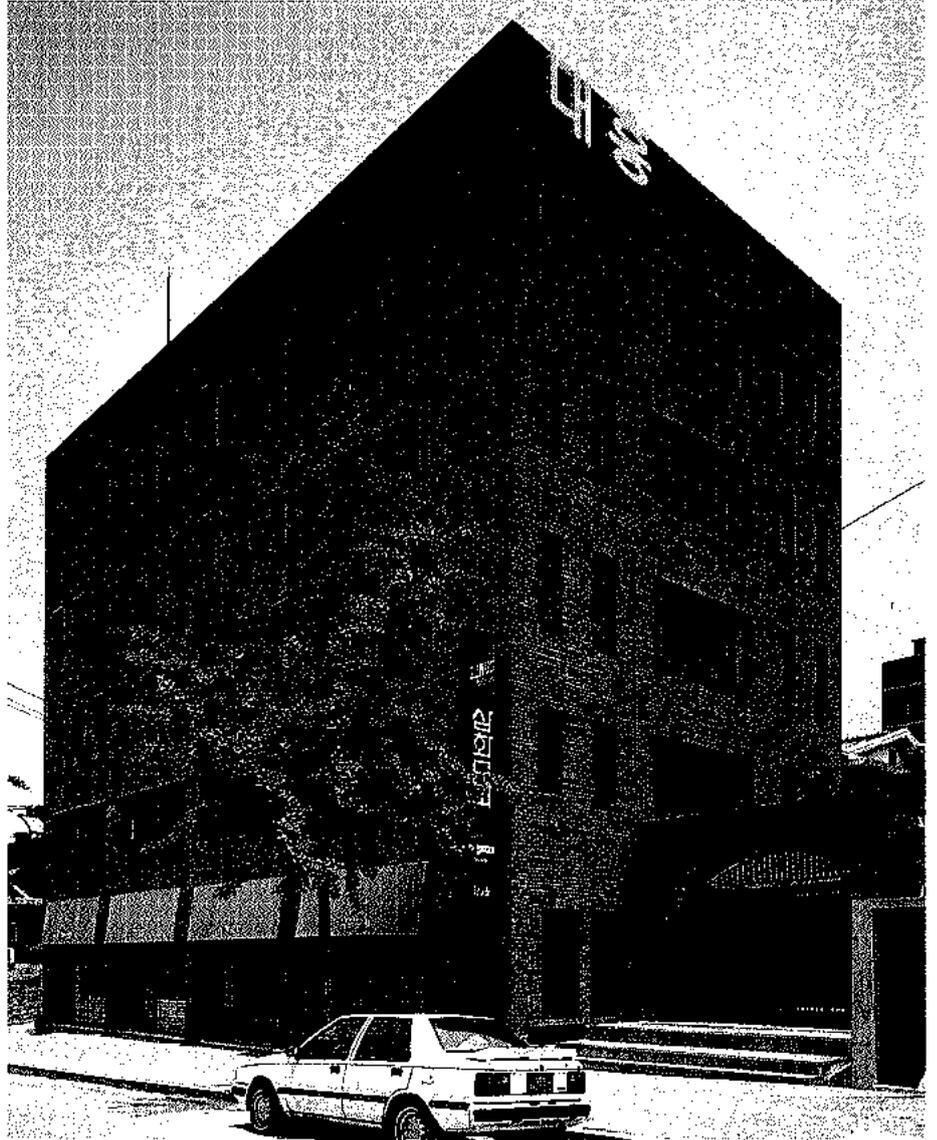


- ⑥ 체육관 본부석부분
- ⑦ 강의동 중앙계단
- ⑧ 강의동 중정에서 본 출입구
- ⑨ 체육관 2층 및 강의동 옥상층 평면도
- ⑩ 체육관 1층 및 강의동 평면도
- ⑪ 강의동 중정부
- ⑫ 강의동 단면도
- ⑬ 내부에서 본 강의동 중앙계단
- ⑭ Camp Way
- ⑮ 강의동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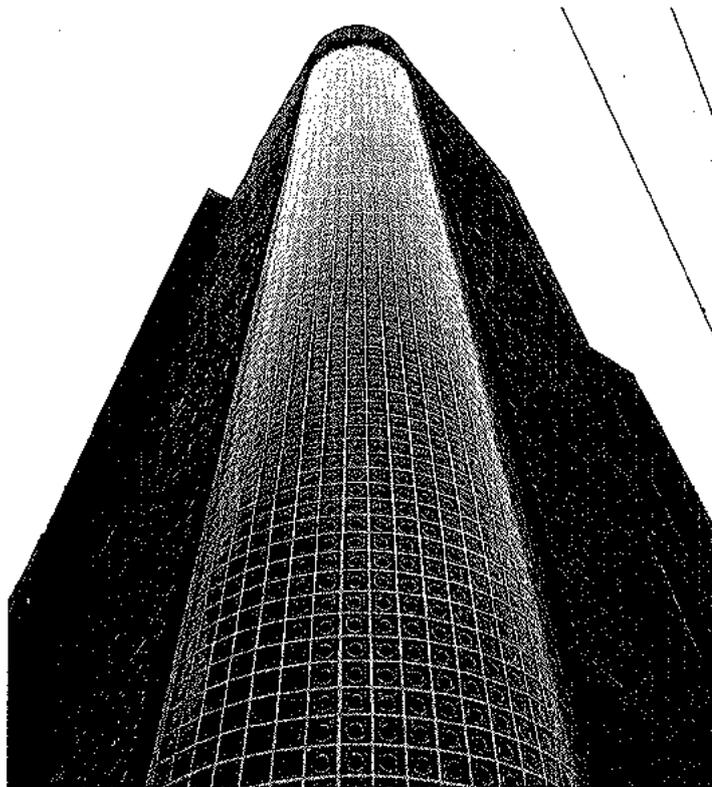
대흥빌딩

Daeheung Building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2
 대지면적/408㎡
 건축면적/203.06㎡
 연면적/1,197.99㎡
 건폐율/49.8%
 용적률/235.3%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붉은벽돌처장쌓기



表相權/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yo, Sang - Kwon



- ① 서측 파사드 원경
- ② 전경
- ③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④ 계단실 의벽상세
- ⑤ 주출입구부 상세
- ⑥ 기준층평면도
- ⑦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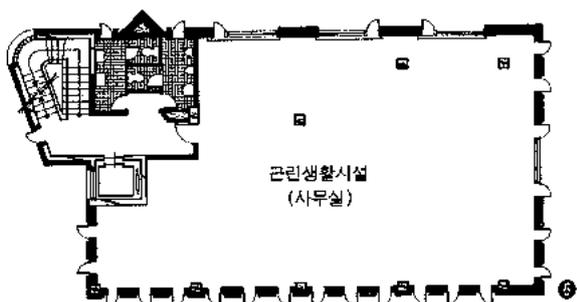
■ 설계소묘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설계하기는 힘든 작업이다. 건축가가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 수행해야 하는 바 하나의 건물이 설계되어지지하기까지는 큰 산고를 치르는 모태와 비교될 수 있으리라. 신사동 건물 역시 도시설계구역과 일반주거지역 사이의 주택가라는 걸림돌을 안고 설계에 임하였다. 서측을 전면도로로, 북측에 부도로를 갖는 장방형 대지에 대지 안쪽에 주차장과 조경을 위한 여유공간을 갖는 대지는 배치상의 단조로움에 빠질 상황이 있으며 주위의 기존 건물과의 조화에 신경을 써야했다. 계획시 첫번째 과제는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두 도로에 근접시키면서 뒷부분의 무용화 되기 쉬운 장소를 주차장으로 이용함으로써 의외로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주차장은 서남측에 두되 조정스페이스에 지장이 없고 사람동선과의 분리가 되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원만한 차량 출입이 되게 하기 위하여 1층을 할애하여 필로티를 구성하며 주차장의 딱딱하고 기계적인 분위기 속에 조경을 하여 전체 배치 분위기를 조화로 이끌었다. 또한 주출입구에도 조경을 하여 건물 출입시 자연스러운 친근감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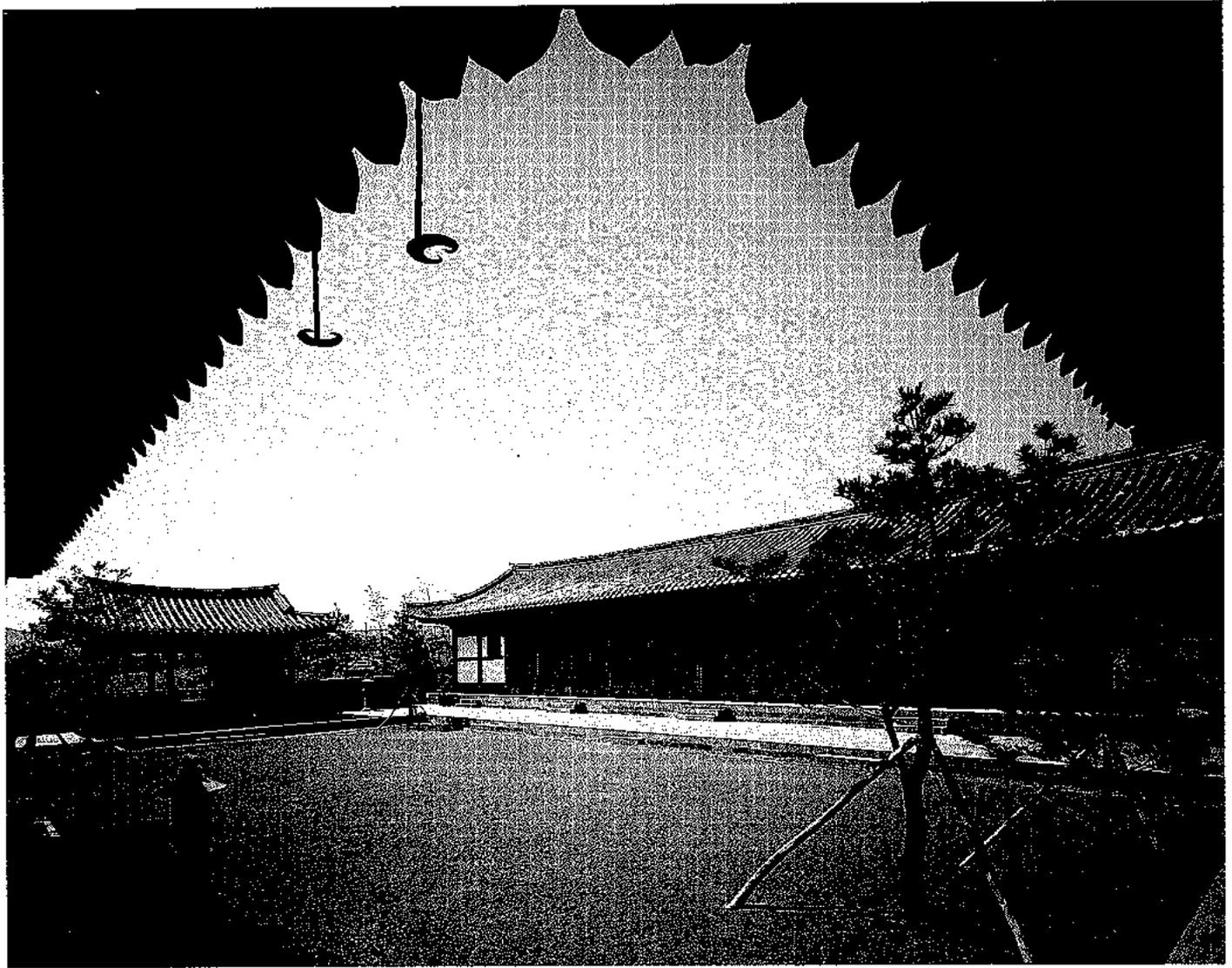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출입구를 분리 유지하여 1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면에 현관외의 출입구를 사용하며 지하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하로 통하는 아치형 외부 계단을 두었으며, 기준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와 주계단을 이용하여 각층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동등한 조건을 부여한다.

입면에 대한 고려는 설계시 또하나의 다른 과제로 대두되었다. 전면이 서향이 되므로써 향에 따른 입면 고려가 힘들었고 남, 동측보다는 시야가 확보된 서측과 북측에 보다 많은 개구부를 두어야 하나 서향으로 인한 개구부의 제한과 조적조에 따른 입면의 독창성에 주안점을 두었고 붉은 조적조의 자칫 어두운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유리벽력의 가볍고 경쾌함이 더해 가일층 밋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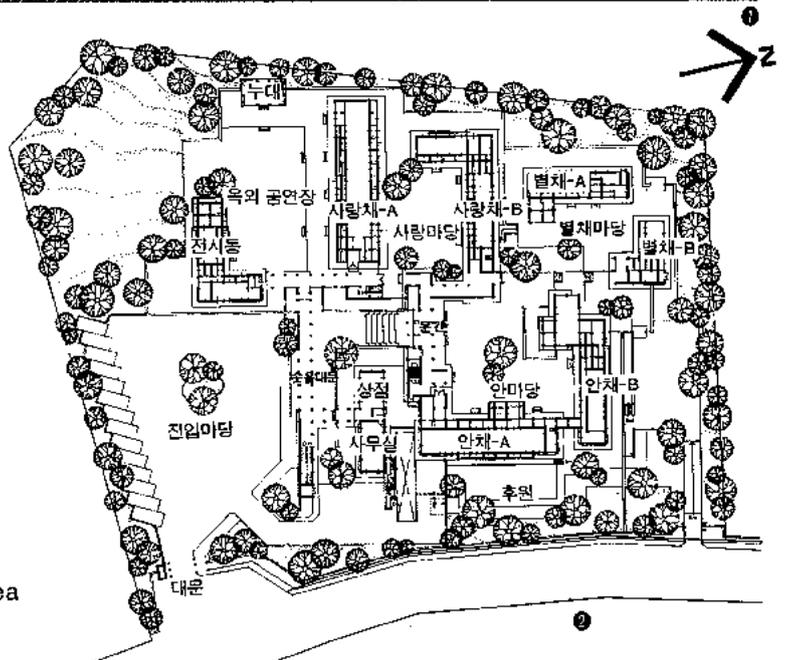


제주 한국관

Cheju Korea House



대지위치/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대지면적/11,920㎡
 건축면적/2,078㎡
 연면적/3,117㎡
 규모/지하1층, 지상1층
 구조/철골조
 외부마감/목재, 제주산현무암
 주요시설/대·소연회장, 전시장, 판매시설, 옥외공연장, 우내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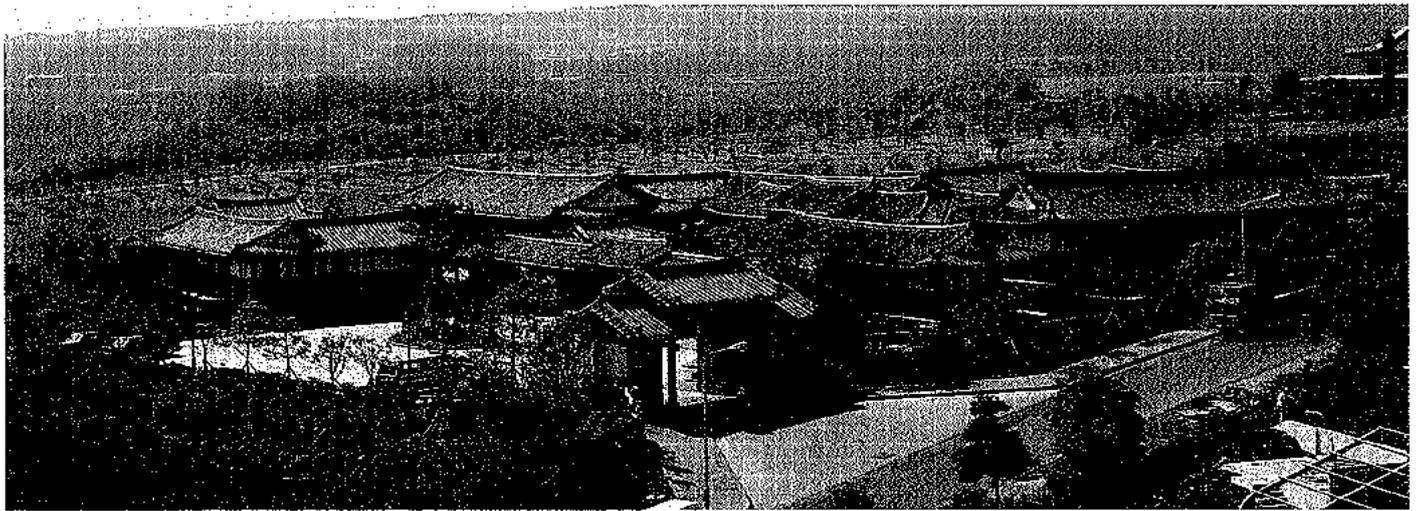


申勝培+ (주)공간종합건축
 Designed by Sin Seung-Bae & Space Group of Korea



- ① 옥외공연장측에서 본 사랑채와 누대
- ② 배치도
- ③ 안마당과 안채
- ④ 전경

①



④

■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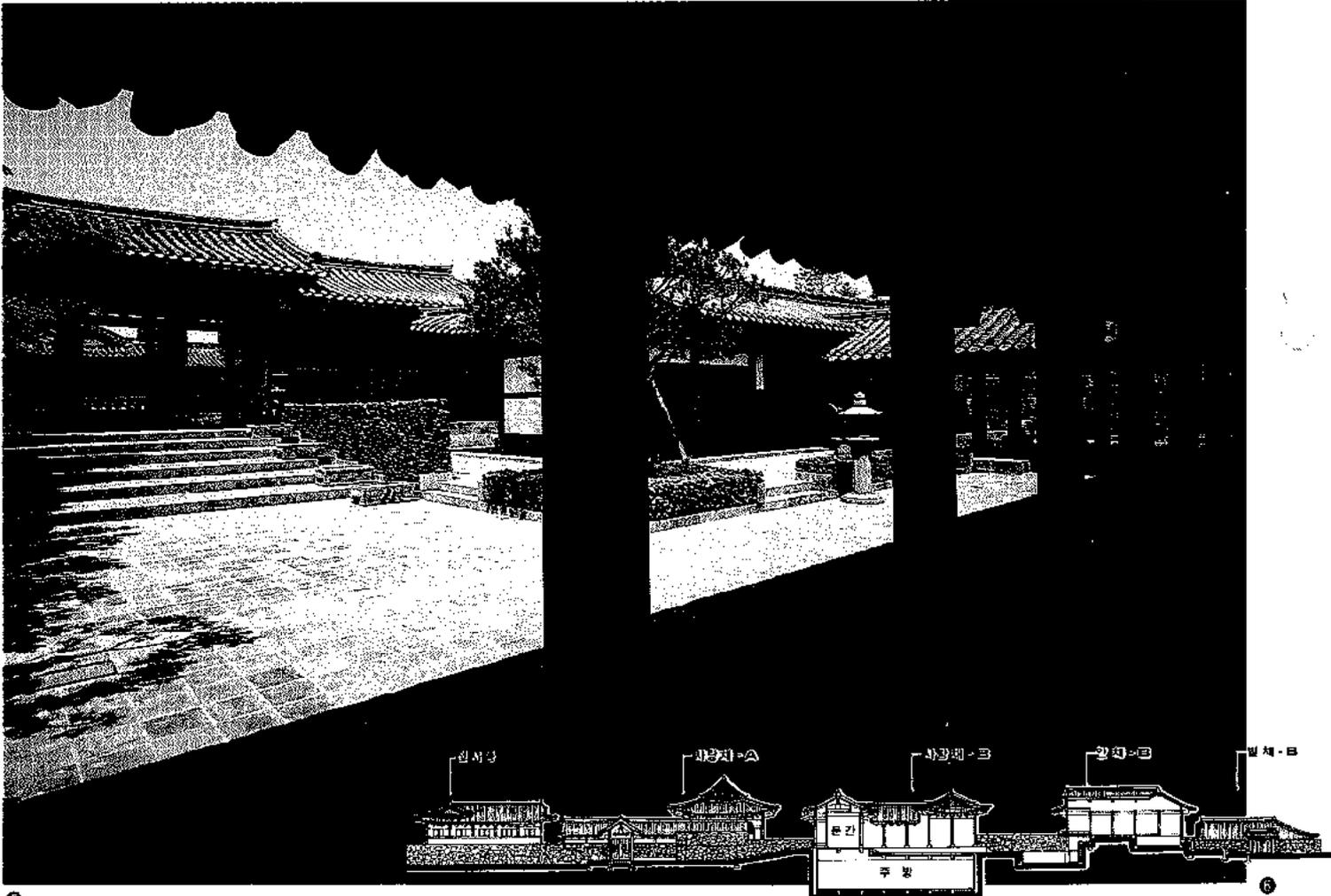
本 Project 의 계획은 인근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 이에 따른 형태나 규모는 어떠한 방향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주어진 첫번째 과제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향을 모색하면서 결국 두가지의 개념을 관련시킴으로써 실마리를 갖게되었다.

우선 Hyatt Regency Hotel 의 '한국관'이라는 시설로서 불가피한 전통성에 대한 요구라는 점과, 전통건축에 있어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관점, 즉 전래건축의 자기표현상의 특징으로서 환경(자연 또는 시설)에 대한 양보적 성격이라는 두가지 개념을 연결지어 본 것이다.

Hyatt Hotel, 신라 Hotel, 클럽하우스의 자기주장적 시설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건물을 추가하는 대신, '양보적 자기 표현성'을 채택함으로써

한국관 시설에서 보편적으로 기대되는 '전통성'의 이미지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이 가능하리라는 결론을 갖게되었다.

이와 같은 방향 설정은 건축주측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건축주측에서는 운영상의 편리라는 당연한 요구에서 단일 Block 의 배치를 희망하였다. 이에 따른 계획은 한 덩어리의 큰 건물에 세부전통양식만을 적용한다는 점에는 대단히 저항감을 느껴왔으므로 여러 Block 의 건물과 다수의 외부 공간으로 구성되는 다원적 Composition 을 제시하여 무난히 수용되어 전래적 Scale 의 내외공간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단 '정통성'이라는 테마를 손댄 마당에 한걸음 더 나아가 보고자 하는 의욕으로 장식적인 전통 건축 재현에서의 탈피를 원하였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보편적인 전통성을 넘어서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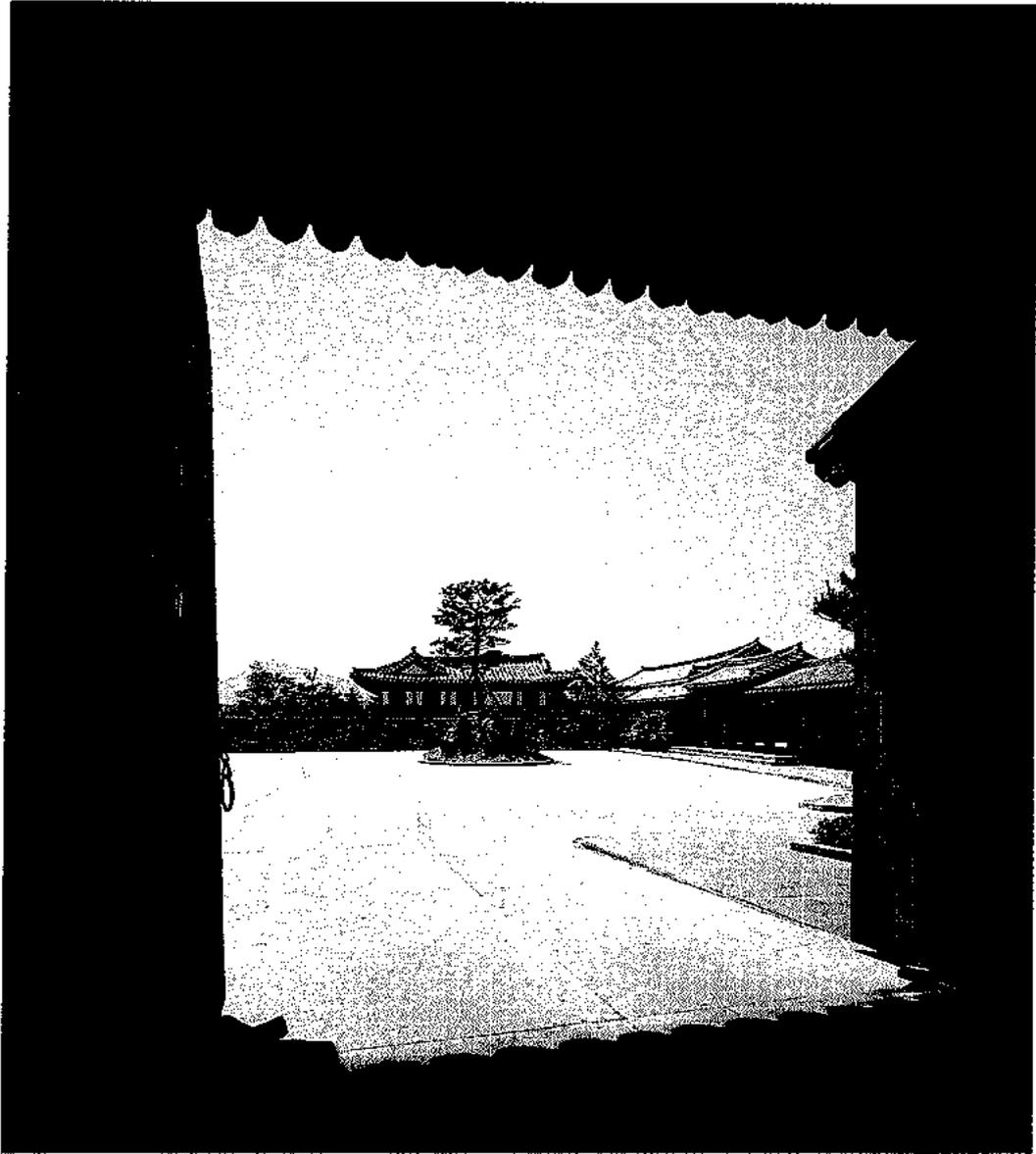
5

6

- ④ 솥을 대문간에서 본 문간
- ⑥ 단면도
- ⑦ 식당내부
- ⑧ 대문에서 본 진입마당
전사등과 솥을 대문이 보인다.



7



①

지역적(Local, Vernacular)인 것을 추구하고 싶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도만의 토착적 건축요소로서 제주도의 초기구조와 제주돌담을 기본적인 Design 어휘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여러각도의 Deformation 작업, 재료의 적용 등 많은 노력이 주어졌으나 만족스러운 Sketch를 얻을 수 없었고, 결국 기본적 Design 어휘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선부론 '전통적 겸 현대적' Design은 공감하기 어려운 결과에 도달함을 느끼게 되었다.

배치계획은 비교적 여유있는 대지크기로 옥외공간을 단위로 구성하여 나가는 기본 System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으며, 전시장과 판매시설, 옥외공연장, 대연회장과 소연회장, 그리고 가족단위

시설로 이어지는 개방적 내지 사적 기능의 점진적 위계에 따라, 단위 외부공간(마당)을 중심으로 각 Block을 배치하였다.

상당량의 서비스 기능을 소화하는 문제는 설계초기부터 부각된 것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동선의 기본골격을 지하에 두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서비스동선용의 시설이 연회장등 방문자용 시설의 공간감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과 손님 및 서비스로 대별되는 주요 동선이 서로 상충하는 것을 피하는 미점을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관의 동선체계는 지상과 지하, 즉 Super Infra Function으로 명료하게 구분되어진다. 옥내공연장만은 요구되는 규모면에서 Project의 기본적 스케일을 상회하므로 지하에 설치하였다.

여수시청사

Yosu City Hall



대지위치/전남 여수시 여서동
대지면적/23,010㎡
건축면적/4,564.87㎡
연면적/8,637.25㎡
건폐율/19.84%
용적률/28.10%

규모/지하1층, 지상3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벽체-화강석건식블럭이거
지붕-칼라아스팔트 싱글
주요스판/6m×9m
기준모듈/3m×3m

■ 설계소요

본 여수시청사는 여수시의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고 지역사회의 상징적 이미지가 부여된 현대적인 건축물로서 삼차 시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2000년대를 위한 행정능률 향상 및 시민의 편의증대를 위한 장소로서 폭넓은 참여와 서로 교우할 수 있는 시민의 마당으로서 Identity를 부여함에 목표를 두고 설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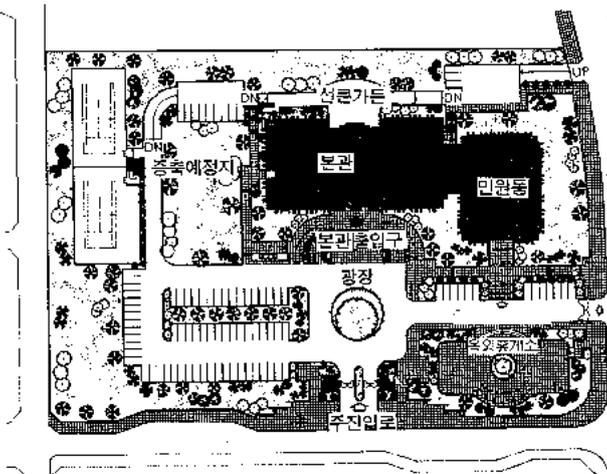
건물, 전면광장, 휴게녹지 공간(시민공원), 주차장, 체육시설로 5개의 Zone으로 구분하여 성격을 부여하였다.

전체배치는 도시축에 부응하는 남북축을 설정하여 건물의 균제축과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근거리 시각적 요소를 고려하여 건물의 주축에 대해 대칭이 되도록 하며 후면도 정면성을 두어 북쪽 로타리에서 정면을 인지시킨다.

본관동과 민원 및 보건소동으로 구분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와 시민 이용에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 정확한 대민봉사를 위한 공간의 체계화를 하였다. 최소업무 기본모듈은 3m×3m로 하여 책상배치의 가변성, 소방방법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제적 배치, 조명기구의 조도분산, 디퓨저의 Air Blancing에 합리성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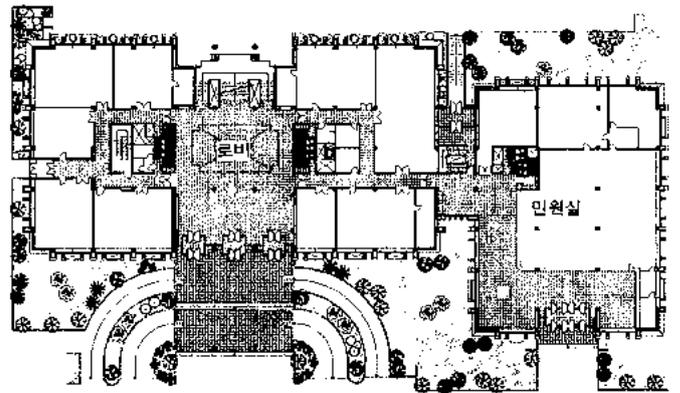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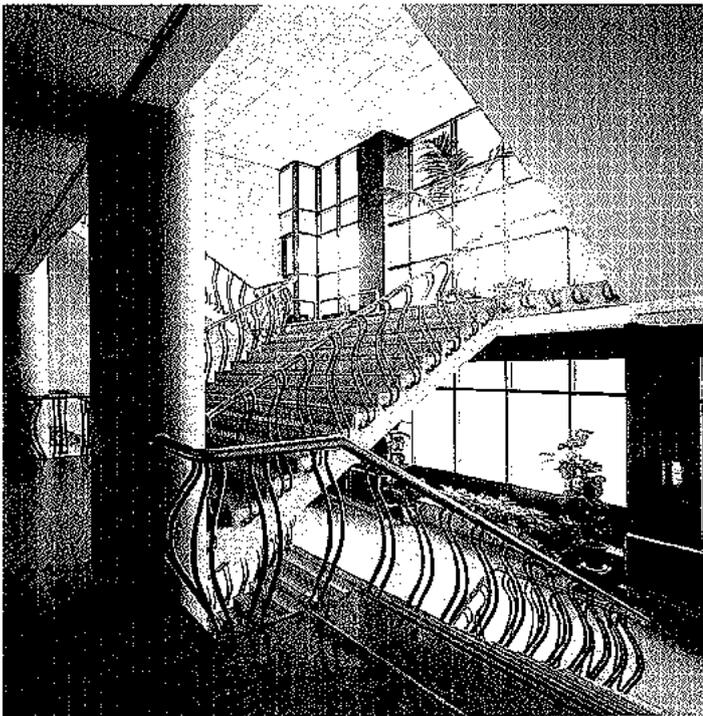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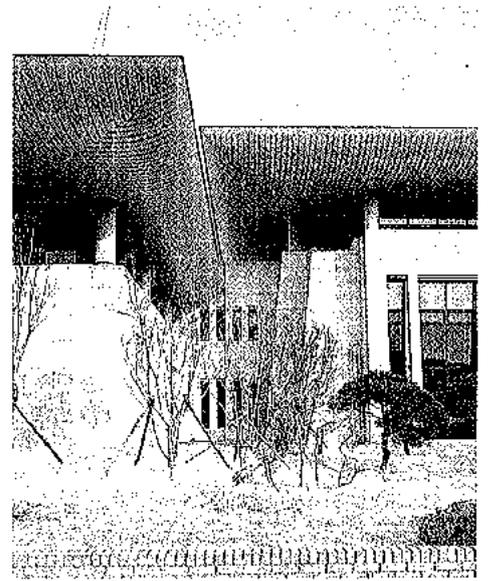
외주로부터 일사에 의한 빛이 유효하게 도달하는 실외 깊이(기본: 9m)를 유지하고 코어의 중앙부에 Top Light와 Open Space를 두어 복도 및 홀에 채광을 도입하고 심리적으로 쾌적하고 넓은 공간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鄭德薰(동영건축) + 임이건축
Designed by Chung, Duk-Hoon
& Aum Lee Architects & Engineers



- ① 전경
- ② 측벽 모서리 및 처마 상세
- ③ 내부계단실
- ④ 본관 및 민원동 연결부
- ⑤ 1층평면도
- ⑥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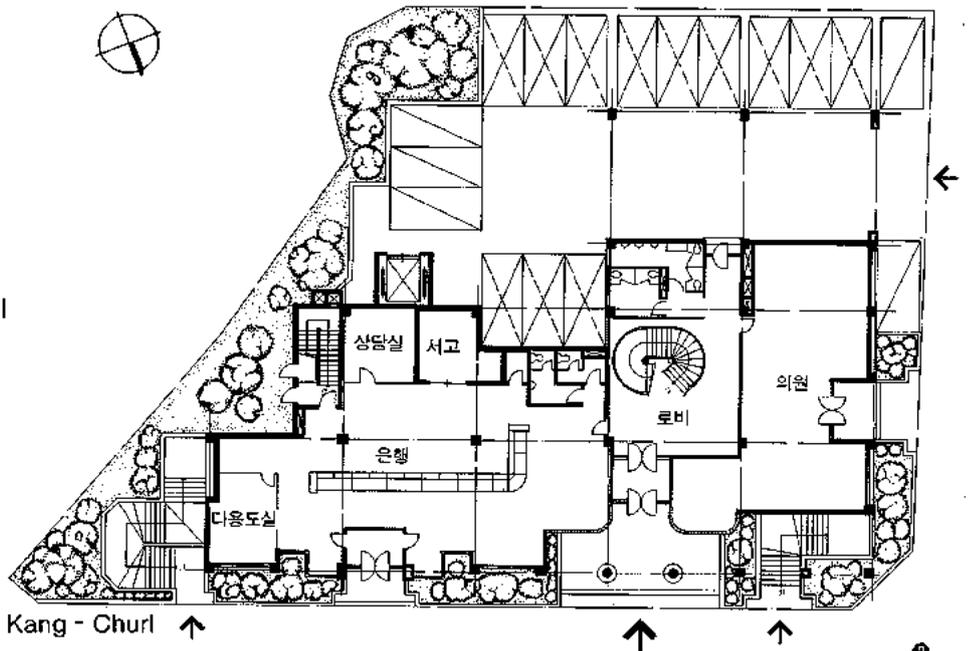


대양크리닉센터

Daeyang Clinic Center



대지위치/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553-502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주차장점비지구
 대지면적/1,541.4m²
 건축면적/759.76m²
 연면적/4,007.44m²
 건폐율/49.29%
 용적률/195.16%
 규모/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장/①18만사복층유리, 화강석버너구이 광내기 흑두기
 주차대수/26대
 건물높이/17.7m
 건축담당/문현일



曹泰鍾+姜綱哲/종합건축사사무소 마당

Designed by Cho, Tae - Jong & Kang, Kang - Ch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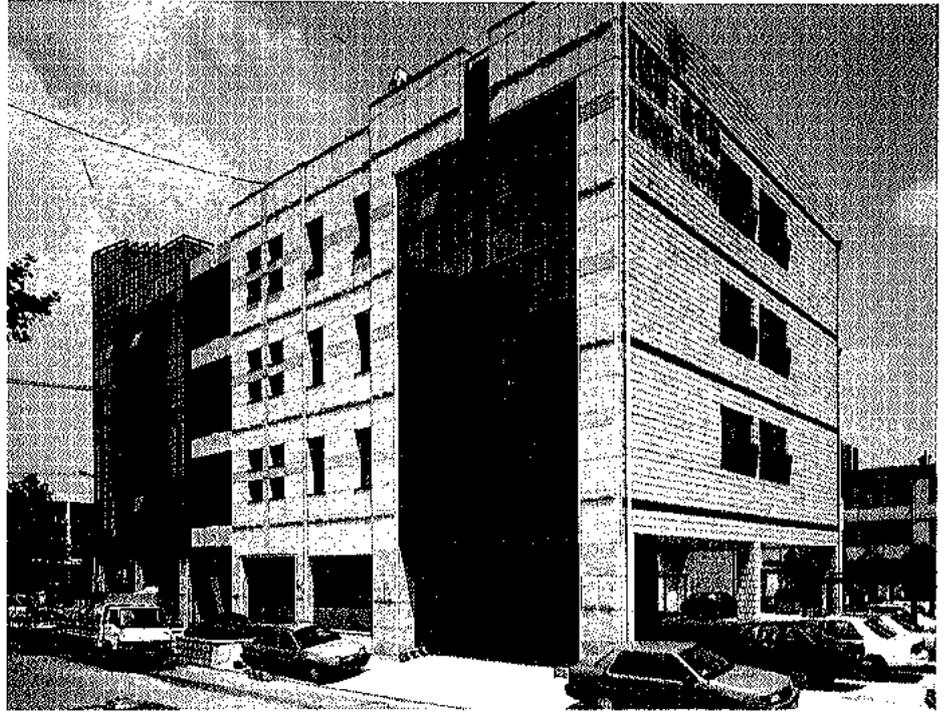
■ 설계소묘

본 대지는 주변의 아파트군에 인접해 정면 20m, 우측면 10m 도로에 접하고 있다. 주변에 가로의 특징을 부여할 건물이 없는 관계로 도로망 활동의 축을 중심으로 뚜렷한 이미지와 역할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의 부각이 필요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두 도로가 상호작용하여 2면 도로의 정면성 확보가 요구되었고, 우측면의 피로티로 진입하는 주차공간을 후면에 구성함으로써 공간을 짜임새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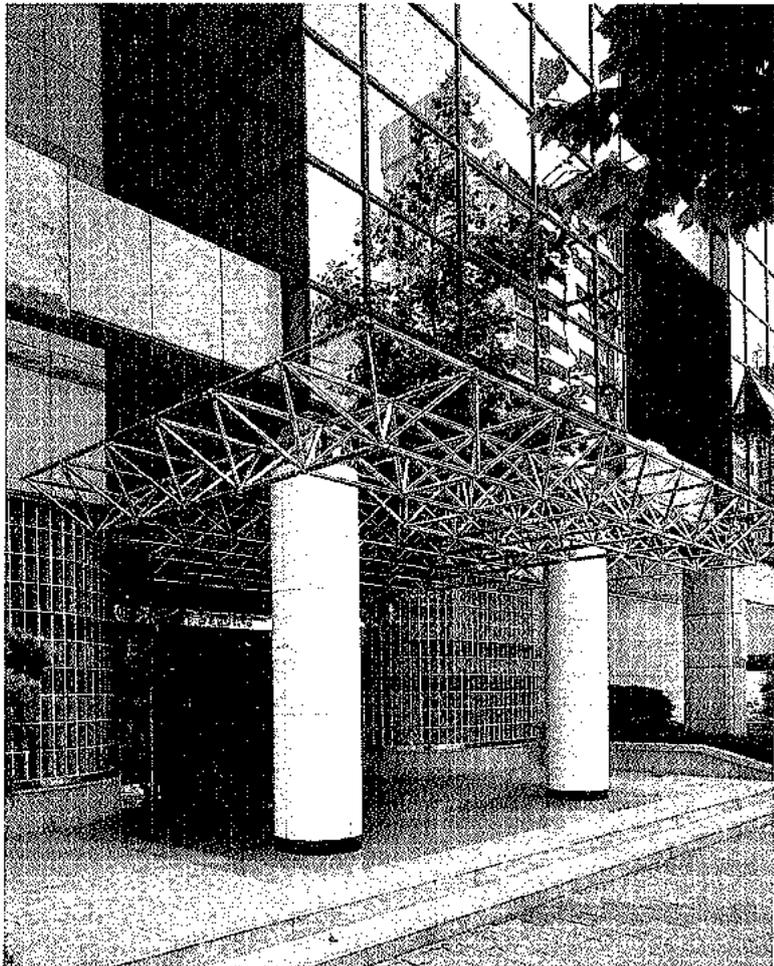
평면구성의 원칙은 각 기능별로 임대사무실 역할을 독립해주며, 서로 쉽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두었다. 각 층의 평면구획에 있어서 융통성을 확보하며 불필요한 통로면적을 줄임으로써 가용면적을 극대화시키고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위해 평면의 기능을 단순화시켰다. 'ㄱ'형의 안쪽 모서리에 위치하여 채광조건이 불리한 이곳에 코어를 확보함으로써 임대사무실의 사용공간에 질을 높였고, 코어의 채광을 위하여 오탁한 부분에 유리블록을 사용하여 실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주계단실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오픈시켜 각층 기능의 일체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주계단을 지하층에 연결시키지 않고 지하전용의 별도 진입구를 설정하여 사용시간대가 다른 임대공간들이 요구하는 각각의 독립된 기능을 만족시켰으며, 배면에 발코니를 설치하여 가용공간에 연장성을 주었다. 이 입면디자인에 있어서 주안점은 두 도로가 만나서 결절점을 형성함으로써 생기는 수평적 힘의 표현을 건축적으로 의장화시키는데 두었다.

자칫 지루하기 쉬운 긴 매스를 여러 유니트로 분절하여 거리에서 보는 인지패턴을 다양하게 연출하고자 하였고, 분절된 매스에 석재와 반사유리를 사용하여 투박함과 경쾌함을 질감으로 대비시켜 친근감을 주고자 하였다. 분절된 매스와 매스 사이에 오탁한 공간의 여백을 둠으로써 불포화된 공간이 장차 포화될 수 있는 시각적 여운을 남겨주며, 분절된 매스가 너무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서로 연결하여 일체성을 주기 위해 매스와 매스 사이를 강력한 수평띠로 결속하였다. 또한, 주진입구의 표현으로 스페이스 프레임을 설치하여 입구형태를 강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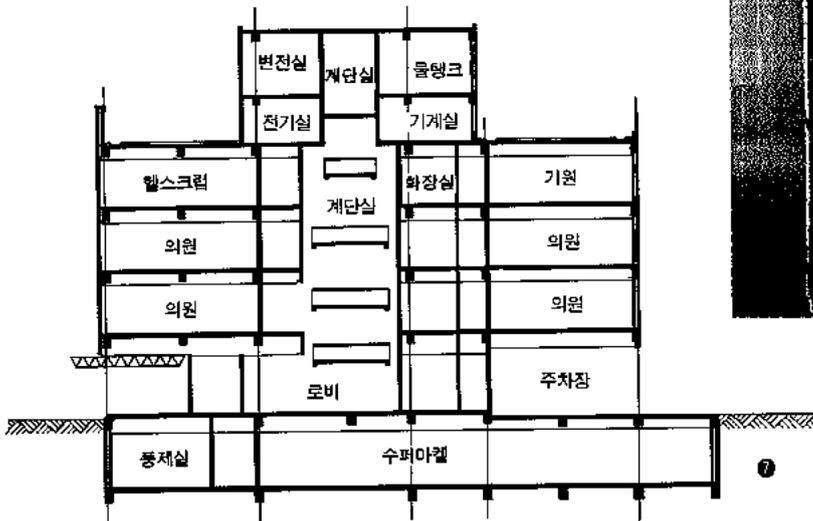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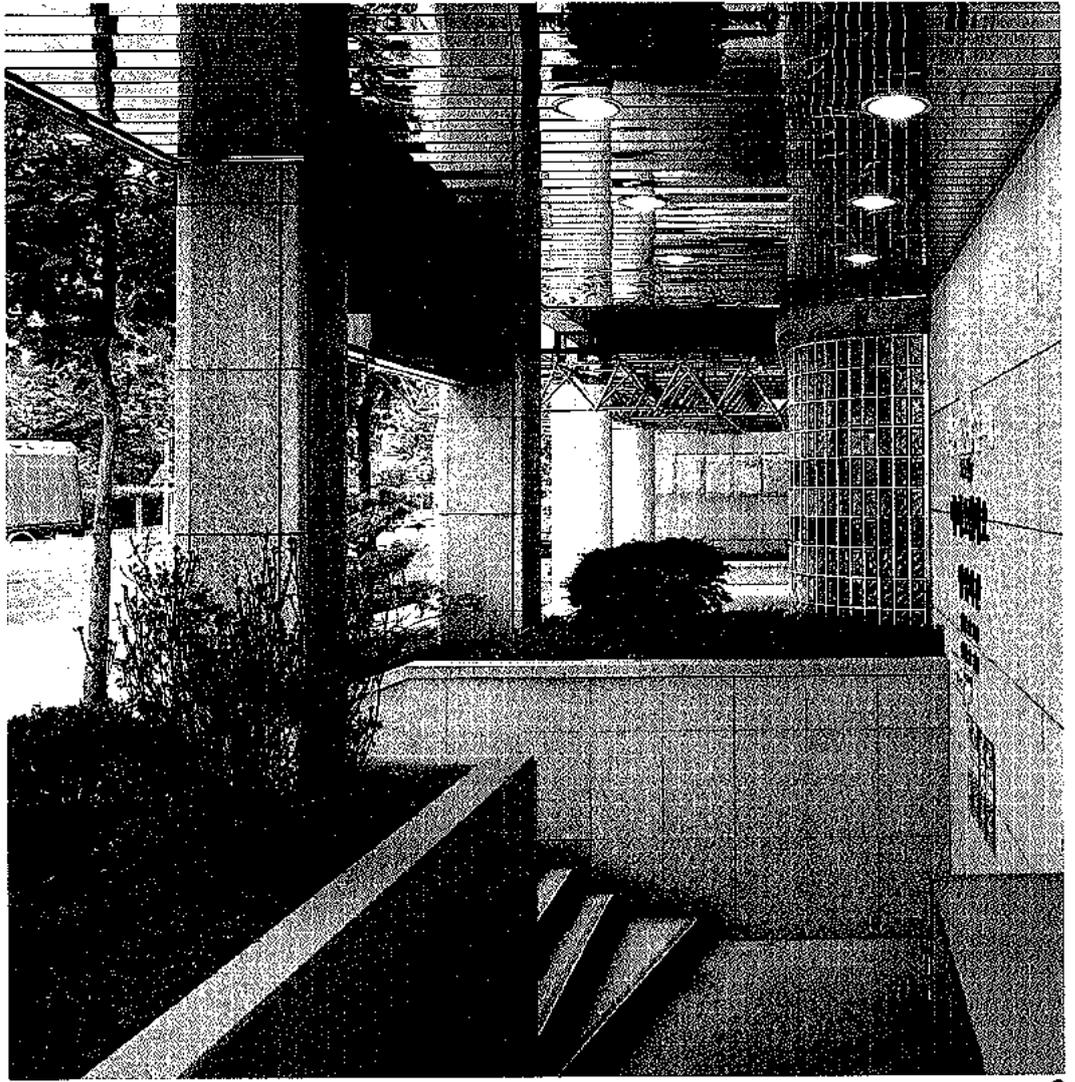


3



4

- ① 전경
- ② 배치 및 1층평면도
- ③ 서측에서본 축전경
- ④ 주출입구 상세
- ⑤ 선근 및 주출입구부
- ⑥ 1층 로비
- ⑦ 단면도



목동 주경기장 및 야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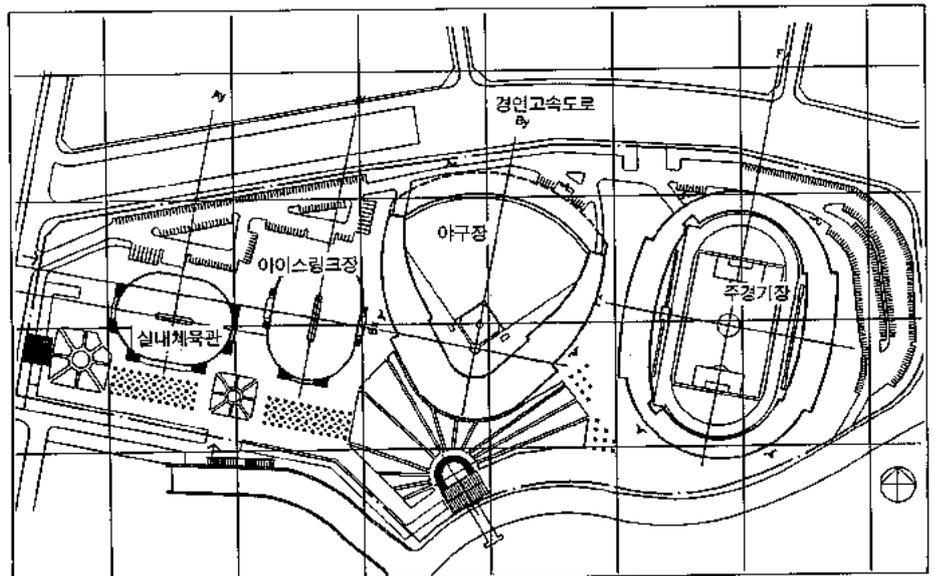
Mok-dong Main Stadium & Diam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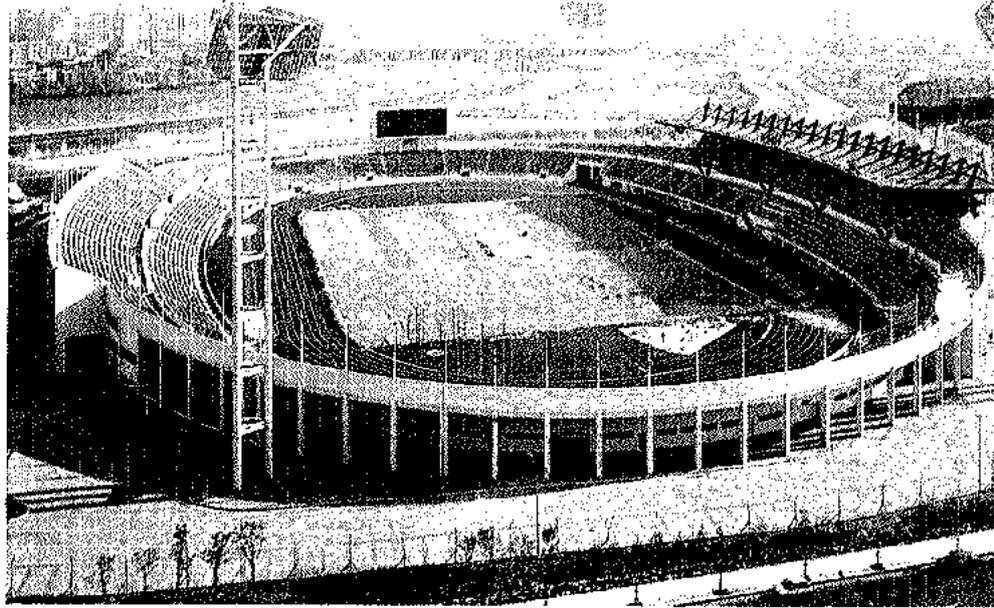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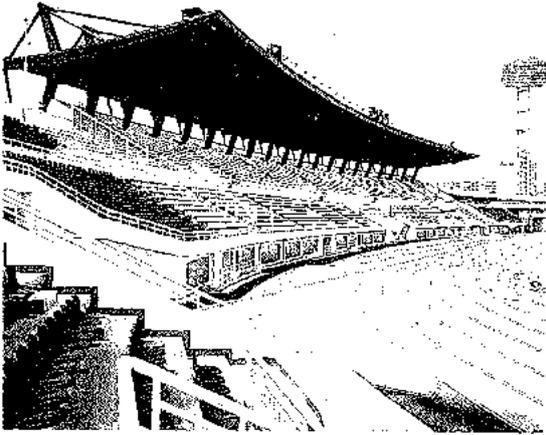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양천구 목동 914
 대지면적/157,600㎡
 연면적/65,568㎡
 건폐율/20.16%
 용적률/38.67%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철골트러스
 주요마감재/물탈위 수성페인트
 / PC 판(무늬마감)위 수성페인트

〈사실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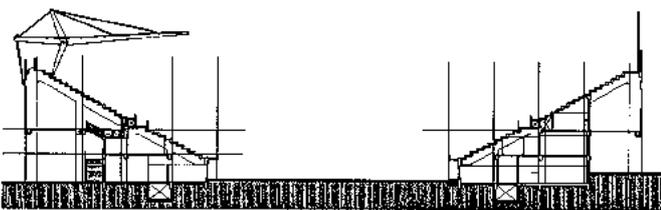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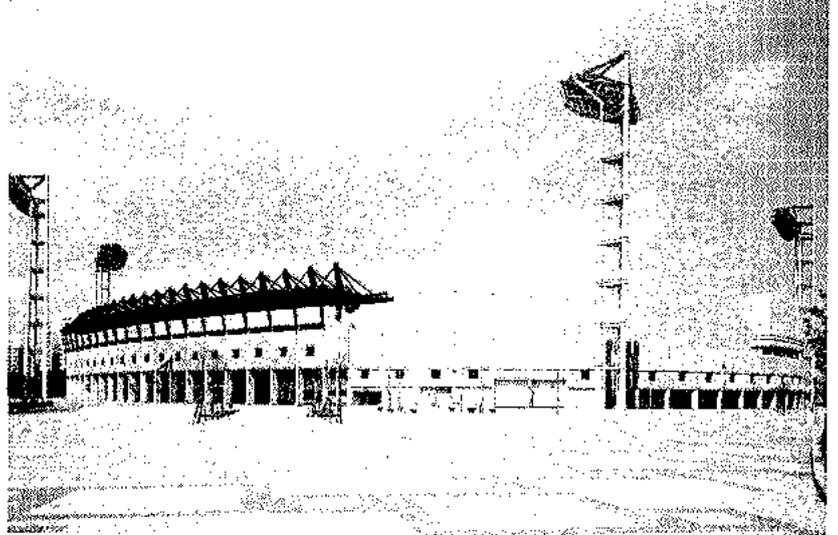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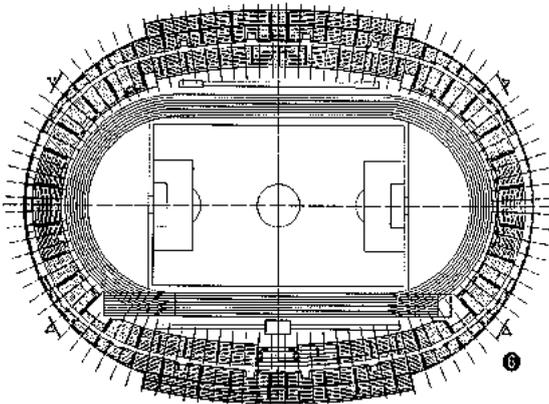
- 주경기장/수용능력 : 20,437명, 시설면적 : 22,114㎡
- 야구장/수용능력 : 16,818명, 시설면적 : 22,124㎡



金宇成/(주)아키프랜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Woo - Sung



- ① 전체전경
- ② 전체배치도
- ③ 주경기장 본부석
- ④ 주경기장 전경
- ⑤ 주경기장 남서측 전경
- ⑥ 주경기장 스탠드층 평면도
- ⑦ 주경기장 단면도
- ⑧ 야구장 전경
- ⑨ 야구장 내부 스탠드
- ⑩ 야구장 3루측 스탠드 외부상세
- ⑪ 야구장 2층 평면도
- ⑫ 야구장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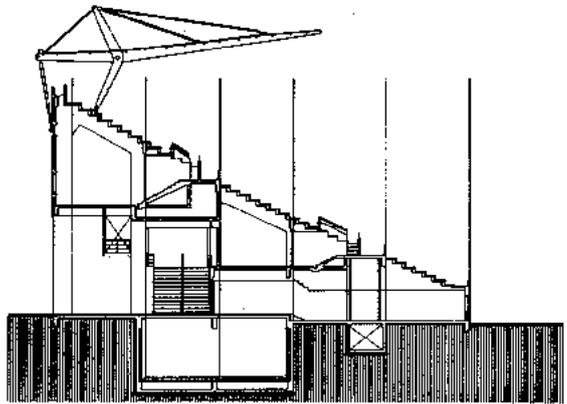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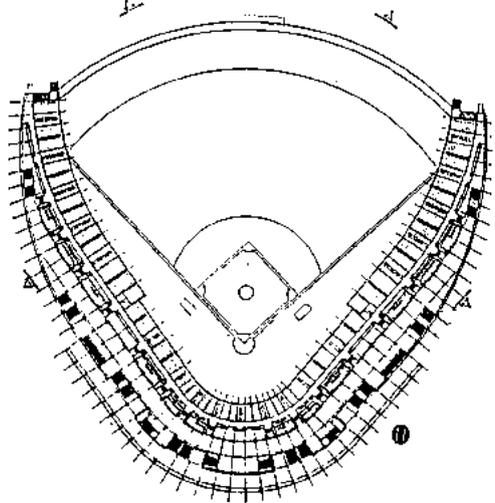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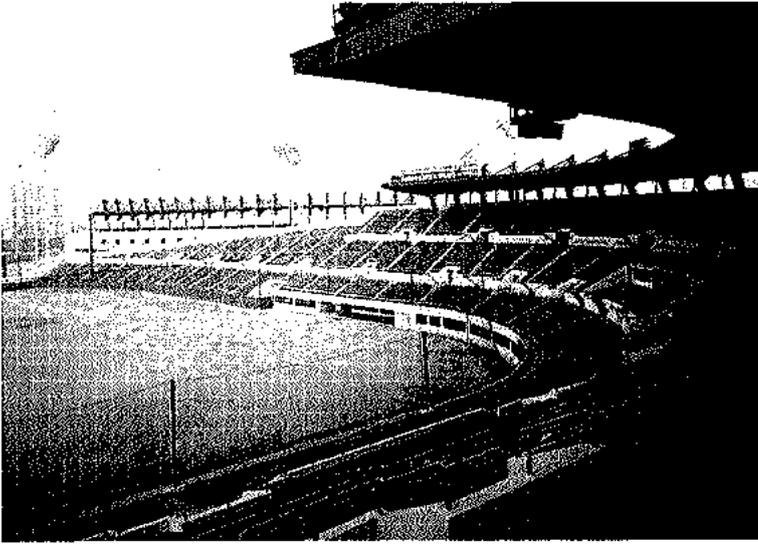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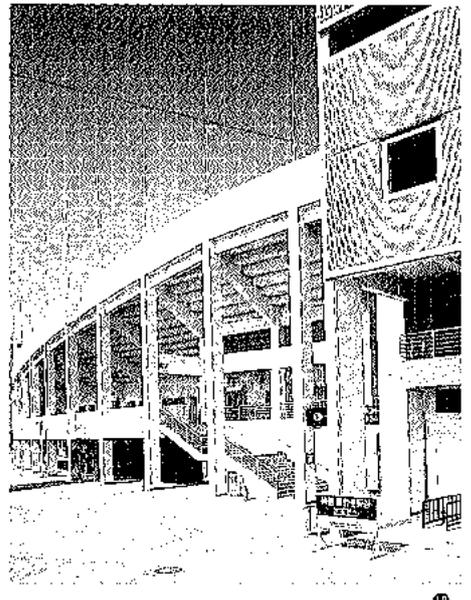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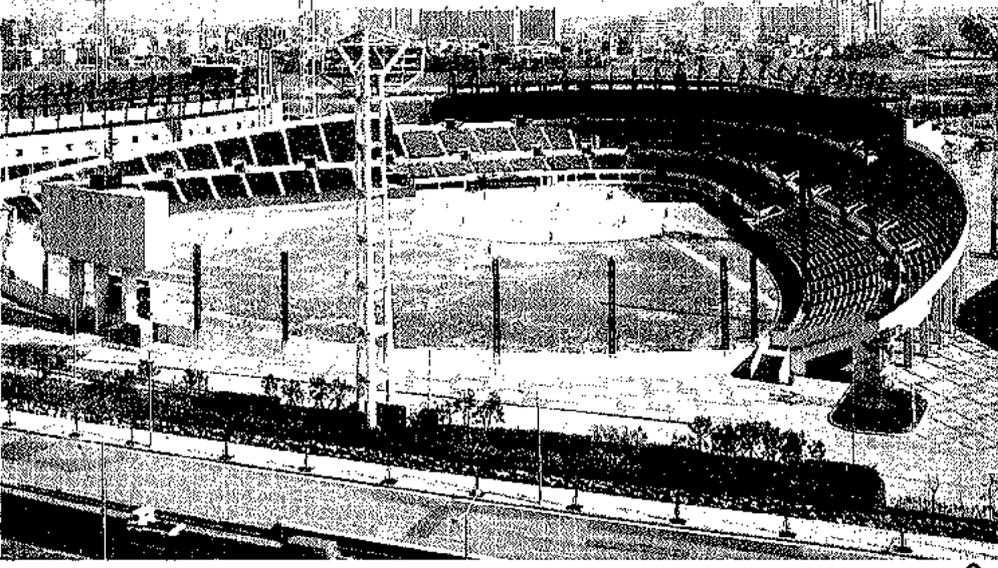


■ 설계소묘

강서지역의 종합운동장으로서 서울의 강도, 강북지역에 편제되어 있는 경기시설의 보완적 역할을 하여 도시균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주요전문 경기의 경기력향상 및 지역사회체육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운동공원 성격등으로 기능을 구성하였다.

• 배치개념

가. 보행체계의 연속성유지 및 보차분리
 목동중심지구와 운동장내 보행자공간(녹지체계), 안양천 교수부지 체육공원을 상호연결하는 보행체계를 형성시켜 도시 기능과의 연관성을 유지시키며, 보행자는 남측광장을 통하여 각 경기장으로 진입하며 차량은 북측으로 진출입시켜 효과적인 보차분리가 이루어지게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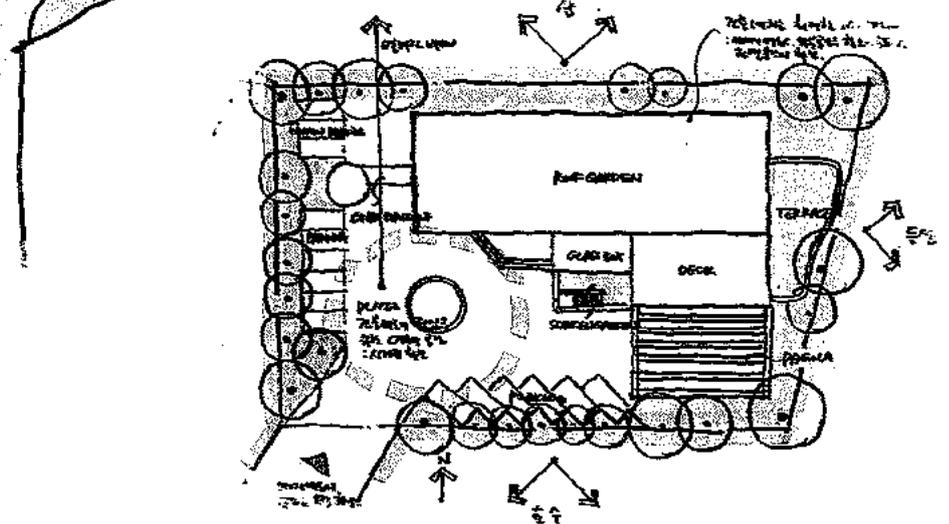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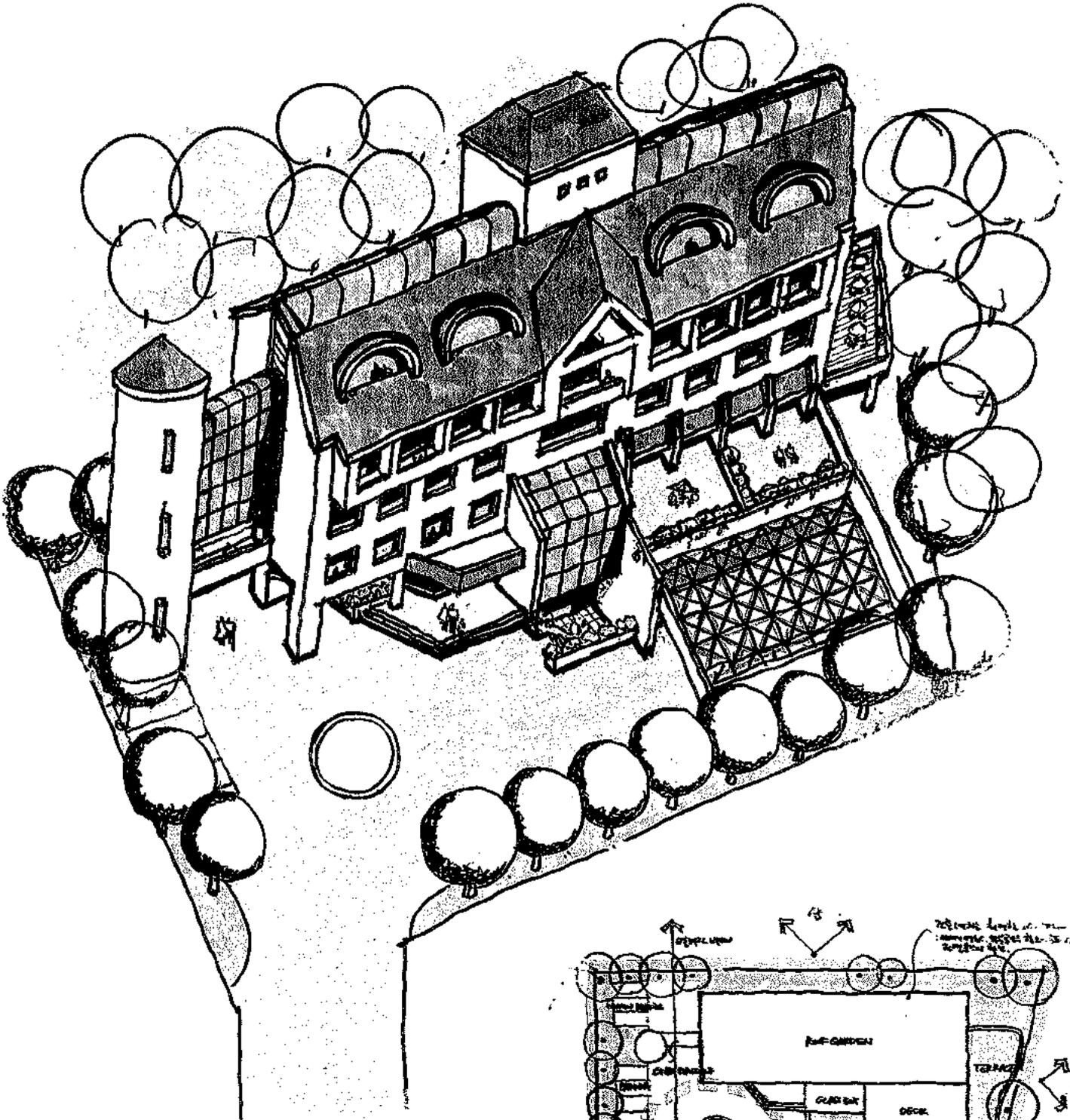


나. 대지형채를 반영한 배치
 동서장방향으로 생긴 계획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각 경기장의
 규격 및 시설기준에 맞추어 경기장을 선형으로 배치하였음.

• 조형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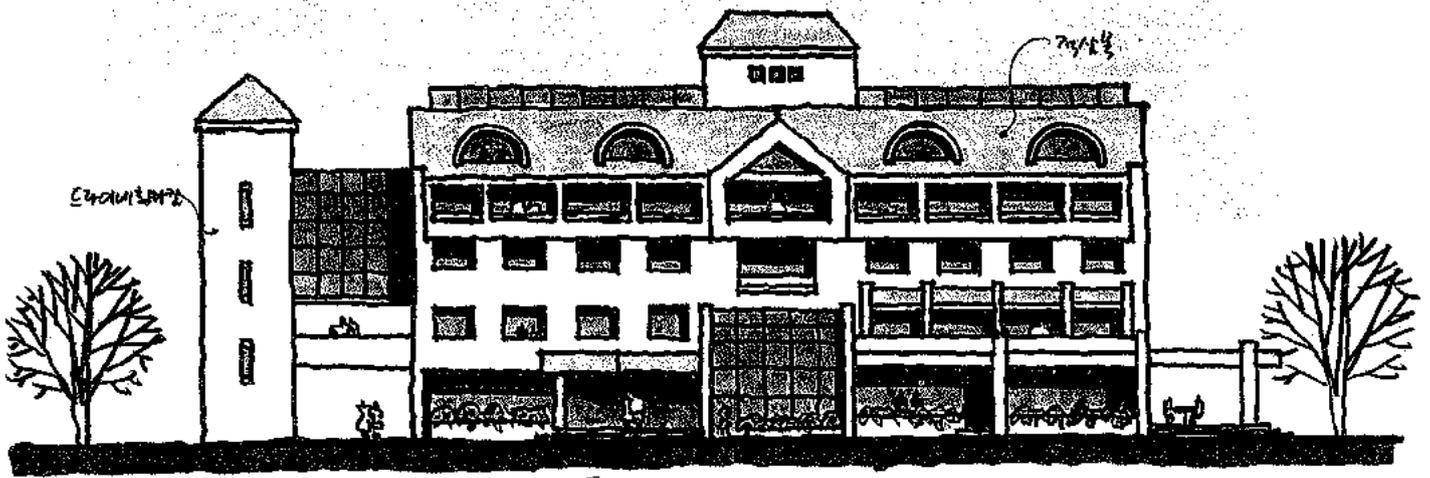
가. 도시 콘텍스트와의 조화
 구조미의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가로벽 형성에 주안점을
 두었음.

나. 전통건축구성 원리적 접근
 각 경기장에 기단, 기둥 및 벽체, 지붕의 3부분으로 구성하는 전통건
 축 구성요소로 도입하여 부드럽고 안정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였
 고 외부와의 경계에는 옛 궁궐 건축의 회랑개념을 도입하였음.



호수가 보이는 여관

An Inn Within Sight of the Lake



대지 내에서 바라 보이는 주위 경관의 빼어난 아름다움에 가슴 벅차 오르는 감동을 느낀다.

앞에는 호수요.

뒤에는 잘 생긴 산들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다.

좌·우로는 시야에 가득 들어오는 들판이 시원스럽기 그지 없다.

산 속에 있는 집은 산에 어울려야 하고,

호숫가에 있는 집은 호수와 격이 맞아야 한다.

신선한 공기와 빛과 바람을 마음껏 받아 들이자

저 끝없이 펼쳐지는 호수와 들판을 방 구석 구석까지 끌어 들이자.

뒤편 산 속에서 울려퍼지는 자연의 소리를 정감있게 들으면서 하루를 편안히 쉬는 안식처가 되게하자.

바하와 베토벤과 브람스의 음악이 위대하다지만 자연이 주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도 그에 못지 않는 것을...

경주 보문호 언덕에서

孫明文/건축사사무소 건·환
by Son, Myung-Moon

— 건축여행 —

金仁喆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재건축

by Kim, In-Choul

일상에서 벗어나 훌쩍 낯선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좋기로 말하면 한이없다. 머릿속 가득히 복잡한 구질스러움을 바울 수 있어서 좋다. 제도판위에 휘어지게 구부러진 허리를 펴줄 수 있어서 좋다.

손주름에 끼인 연필가루를 잠시나마 털 수 있어서 좋다. 낯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리를 엿볼 수 있어서 더욱 좋다. 대가의 흔적과 유명작가의 호흡을 코앞에서 느낄 수 있어 좋다. 예기치 못한 신선한 충격이 도처에 있어서 좋다. 혼자서 하는 발가는 데로의 여행도 좋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럿이 몰려다니는 것도 좋다. 지도나 가이드북을 들고 물어 물어 찾아가는 피곤함도 즐겁지만 가이드가 안내하는 편안한 시찰(?)도 좋다.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깃발들고 다니는 일본인의 바지런함을 애처롭게 보며 여유만만하게 적당히 넘어가는 우리식의 여유도 좋다. 하루종일 빙빙돌다 파감치가 되어 돌아 왔을 때 밤늦이 가자고 바람잡는 친구가 있으면 더욱 좋다.

옛적에 해외구경 한 번하기 위해 온갖공을 드렸던 노력을 생각하면 지금은 간편해서 좋다. 업무, 회의, 세미나, 갖은 핑계를 둘러대고 나온뒤 죄스런 마음으로 구경하던 거북함보다 카메라 둘러매고 휘적휘적 돌아다녀도 누구누치보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 돌아오는 길의 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로 무거워 킁킁 대다가 라이터, 볼펜에는 이젠 시들해져버려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편찮다. 어렵게 어렵게 나갔다 온 것만으로도 대견하고 시답잖은 사진이라도 잔뜩내어 놓으면 자랑스럽던 한때가 있었다. 경력서의 몇줄을 해외시찰(이 명칭엔 항상 의문이 따른다)의 항목이 차지해야 체면이 유지되던 시절도 있었다.

건축주의 해외건문에 주눅들어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쓸쓸한 경험도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기회가 찾아와 비행기라도 타게되던 싸움터에 나선 병사처럼 잠까지 설치며 하나라도 더보려고 발이 부르트는 것도 모를만큼 돌아다녔던 기억도 있다. 행여나 농철세라 눈에 띄이는대로 셔터를 눌러뒀다가 어디서 무엇을 찍은 것인지도 몰라 서너박스의 슬라이드를 정리도 못하고만 경험도 있다.

이번에 다녀본 캐나다와 미국여행은 그래서 그런지 여러가지를 생각나게 한다. 십칠일 동안에 밴쿠버, 몬트리올, 오타워, 토론토, 보스톤, 뉴헤븐, 뉴욕, 워싱턴, 시카고, 달라스, 로스엔젤레스의 열두도시를 돌아오는 빠근한 스케줄이었다. 처음 참가하는 단체여행이라, 개인여행에서 누릴 수 있는 임의로움이 제한될까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고 일행에 들기로 마음 먹었다.

국내의 여행사에게 전체의 진행을 맡겨 여행사의 가이드가 인솔하고 현지의 가이드가 안내를 맡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 귀찮은 출입국수속과 가방옮기는 일이 남의 손에 맡겨져 편하고 대절된 교통편이 항상 연결되어 아까운 시간낭비가 없어서 좋다. 여행에 서툰 몇사람의 사소한 착오는 일행의 분위기 속에 에피소드로 녹아버려서 좋다. 이십여명의 모두가 열심이라 보기에 좋고 서로를 격려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마음에 든다.

하루이틀 지나면서 어딘가 틀어진 듯한 어색함이 느껴진다. 여행사의 관행적인 예정과 우리집단의 특성이 잘맞아들지 않는다. 가는 곳마다의 한식식사와 쇼핑안내가 어색하다. 여행사의 가이드에게는 우리 집단의 특성을 설명해 이해를 시킬 수 있지만 일반 관광객만 상대해 온 현지의 가이드를 설득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단체관광여행이란 것이 어떻게 갖고있는 전문적인 여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어쩔수가 없게 됐다. 우연하게도 스케줄에 잡혀있는 시청, 박물관, 미술관 등의 건물들이 일반적인 관광코스의 건물들과 겹치는 것이 많아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 법하다.

사실 그동안의 건축여행은 관광여행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해외여행이 드물었던 시절에 한 번 나가면 일반적이고 전문적이고를 따질 겨를이 없었을 것이고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다보니 쉽게 해결되는 쪽으로 기울고 말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현지의 건축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대중적으로 이름있는 건물이나

사진으로 익히보았던 건물의 현장확인에 지나지 않는 결과만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몬트리올에서 우연히 발견한 모세사프디의 하비라트 67과 오타와의 캐나다문명 박물관도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것중의 하나다. 박물관의 경우 작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보았는데 귀국한 뒤 받아본 외국잡지에 특집으로 게재된 것을 보고서야「카디날」이라는 건축가를 알게되었다. 사진과 도면을 현장감 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캐나다의 경우는 국제적인 조명을 받지않고 있어서인지 기왕에 알려진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므로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사아리넨, 필립존슨, 루이스 칸 등의 대가와 씨어스타워, 무역센터, 크라이슬러빌딩 등등의 고층건물, 링컨센터나 몇 뮤지엄등 알려진 것 외에는 최근의 잡지정보들을 곁들기만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정보의 양도 엄청날 뿐만아니라 광역화되고 다양화된 정보를 일일이 추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세대를 거슬러 올라간 건축들을 주마간산으로 대충보고 미국건축을 보고왔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보의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현지사정에 밝은 전문적인 가이드를 구하는 길이다.

뉴욕에서 안내를 해주었던 K 씨나 달라스의 S 씨 경우에서처럼 도시전체의 개발적 설명과 특정한 건물의 디테일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확실한 그곳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가능하다면 건축과 건축가를 동시에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금상첨화이겠지만 거기까지는 욕심을 내지않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만든다면 현지에서의 방향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단체여행에서 건축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기호도 각각인 다중의 합의를 얻어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비싼경비와 아까운시간을 쪼개고 나온 마당에 이도저도아닌 것이 되고 말면 결국 낭비를 한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멀게만 느끼고 있던 해외잡지의 최신 이슈들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한결음에 확인될 수 있게 되었는데 남의 일이라고 제쳐두지 않을 바에야 좀더 계획적인 관찰을 해야 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기본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언어의 문제나 정보의 소화력은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나 깊이있는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체의 명분을 이용하기가 손쉽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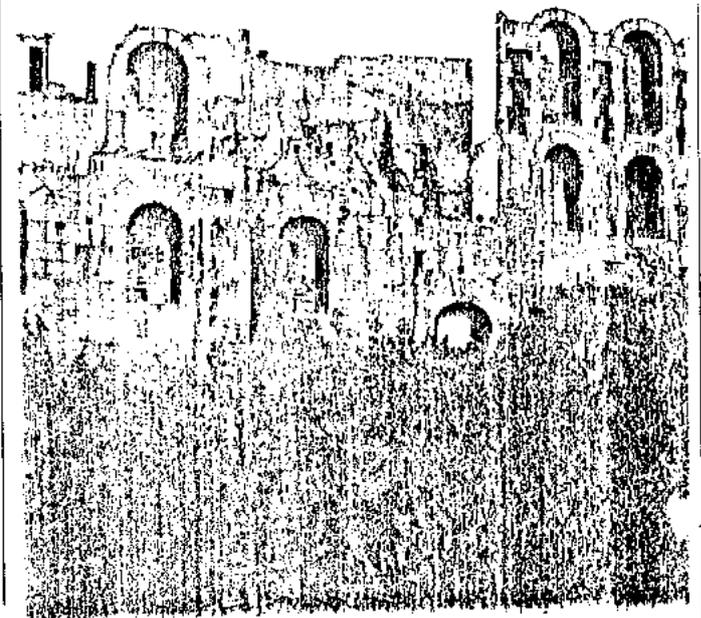
생각해보면 어려울 것도 없다. 협회와 같은 단체나 잡지사, 동호인 등의 모임에서 계획을 만들고 멤버를 구성한뒤 여행사와 연결하여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봄, 가을 등 정례적인 계획을 세워 각 차례별의 성격을 이번에는 영국의 근대건축, 다음에는 프랑스의 현대건축, 또는 르코르뷔지에의 건축과 프랑크 로이드라이트의 건축하는 식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대상자에게 알려 각자의 사정과 기호에 맞는 계획을 선택하도록 하면 충분한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은 있으나, 바빠서, 게을러서, 귀찮아서, 자신이 없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값싸게, 확실하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면 아마도 선착순 모집을 하거나 예약을 받아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이미 기성작가들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파리의 「십대 프로젝트」를 이미 보아둔 사람들도 많겠지만 체계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경우는 드물 것이다.

공식적인 행사까지 격상시키지 않더라도 슬그머니 다가서서 기웃거리러는 것보다 건물의 관리자를 앞세워 보고싶은 곳을 일일이 살펴보고 궁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이상 좋을 수 없다.

충분히 준비된 자료를 갖고 보아야 할 것과 물어야 할 것을 미리 챙긴뒤 카메라 보다는 스케치북을 들고 여유있게 감상하고, 판단해서 짚막한 평가라도 내린뒤 다음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보기에 좋을 것이다. 이동하는 중이나 저녁시간에 그날의 느낌을 대화로 나누고 돌아와서 해야 할 종합적인 평가회의 계획도 세우고 하느라 개인적인 충족뿐만 아니라 건축계의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 질 것으로 상상된다. 여행의 보람중에 큰의미를 갖는 것은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일간이나 십수일간을 같이지내면서 친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딘가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아도 틀림없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친하지 않는 것처럼 이상한게 없는데 머리도 맑아지고 감각도 세로워져서 친구까지 얻게되는 건축여행은 자주하면 할수록 좋을 것이다.



建築法 改正方案에 관한 討論會



제 1 과제

地自制 實施에 對備한 地方自治團體의 自律性 提高

김희춘 : 지금으로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건축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 제1과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제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했습니다.

그동안 10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1986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친 많은 개정이 수행되어 온 과정에서 볼 때 우선 법제정시부터 충분한 연구와 검토없이 시한에 쫓겨서 서둘렀기 때문에 옛 법의 근원이 구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있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되는 개정에서도 사회변천에 따른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보다도 단순한 문맥수정이나 잘못 또는 무리하게 규정되었던 내용들을 고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축은 그 시대 그 지역 문화의 척도라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은 개개의 건축물의 내용과 모습 뿐만 아니

라 더 나아가 도시 국토 전체의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건설부에서 마련한 건축법 개정 방안은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미비하였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져 오늘 이 토론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토론회에 임하여 우리나라가 발전 향상되도록 이 법의 개정을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과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1과제는 지자체 실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입니다.

발표는 이필원 건설부 건축기획관께서 하고 토론하실 분은 이문보 동국대학교 공대학장, 조태종 본 협회 법제위원, 최명철 본 협회 회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필원 : 오늘 발표 해 드릴 내용은 건축법 개정방안의 전체적인 윤곽과 지자체 실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이 배경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년 전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 행정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
座 長
金熙春
(서울大 名譽教授)

◆
發表者
李弼遠
(建築部 建築企劃官)

◆
討論者
李文輔
(東國大 教授)

曹泰鍾
(本協會 法制委員)

崔命喆
(本協會 會員)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시행령만을 고치게 되니까 여러가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가능한대로 법 개편에 착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행령 개정과 병행해서 법령의 개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또 건축사 협회의 법령 연구소가 발족이 되면서 지난 1년간 여러가지 연구 및 조사, 대안 제시에 결실이 맺어져서 이번에 건축법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대폭적 전문 개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이 촉박한 느낌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금년 정기 국회에 법률 상정을 해서 법 개정을 완료 하고 내년중에 시행령 시행규칙, 또 조례 등을 계속해서 개정해 나갈 추진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개정 작업이 어떤 정부 또는 당무자들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런 토론회, 특별한 작업반, 국회나 여론의 수렴 과정을 최대한 거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개정 작업이 저희들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재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건축법에 있어서 문제점은 먼저 현행 건축법이 건축 기준의 대부분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기 어렵고 또한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제가 여기서 새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위임된 내용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다른 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만 가지고는 현재의 골격이 지역적 특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대개 서울의 모습들을 또 대도시의 모습들을 모방 내지 답습하여 도시적 특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건축 허가 절차가 상당히 번잡하고 까다롭다 하여 늘 문제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에는 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서류를 간소화 한다, 이런 적어도 소극적인 측면에서 계속 대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면 미리 사전 검토다 또는 사전 심의다 하는 변칙적인 형식적인 간소화로 흐르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예를 검토해 보고 또 외국의 예를 조사한 결과 일괄처리제를 확대해서 나가자, 83, 84년부터 복합 민원 처리 해가지고 제도적으로는 도입이 돼있었습니다만 행정 기구, 인력, 조직의 보강이 뒤따르지 못하므로써 좀 유명무실하게 돼있습니다만 이제는 법에 완전히 명시를 해서 일괄 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수가 매년 20만에서 30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축법 개정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건축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관계 공무원과 단체, 학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0일 본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본협회의 회원과 방청객들로 입추의 여지 없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개최된 이날 토론회 모두 5개과제로 나누어 진행 되었으며, 종합토론을 통해 개진된 의견들을 종합하였는데 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개정방안 연구에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며 차후 본협회는 건설부 당국자와 사안별로 긴밀한 협조하에 심도있는 토론회를 거쳐 개정안을 적극 진척으로 하였다.

본誌는 이번 토론 내용을 모두 게재키로 하였으며 이번호에는 제1과제/지자체 실시 대한 자율성 제고에 관한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기타 토의 내용은 정리가 되는대로 게재할 예정이다.

만동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650만여명이 저희 건축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제개발과 국가 발전으로 축적된 개인 재산 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자산인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건축 행정에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 문제가 아직 소홀하다고 하는 것이 세번째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번째는 건축이 건축물 개개의 스케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도시를 연결시키는 장치들을 좀 더 탄탄하게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침 건축 행정이 주택국 속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도시국 속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성격이 좀 분명해지고 도시형성을 도시 계획이라는 평면적인 장치와 건축 규제라는 입체적인 장치를 공히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축 법령이 늘 저희 내부에서도 복잡하고 표현이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꼬여있다 하는 이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허가청과 또 건축사 여러분과 민원인 간에 서로 해석이 다르고해서 혼선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비리와 모순의 소지가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전에 10차례의 법 개정과 23회의 시행령 개정이 궁정적으로 보면 현실 수용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부정적인 요소를 보면 법의 안정성, 법의 명료성, 이 문제는 저해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가지 문제를 일거에 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을 내다 보고 또 우리 현실에 맞고 우리가 지키기 쉬운 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의 방향을 여섯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이번으로 끝날 수도 없고 또 끝나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같이 문제가 되고 연구가 필요한
 사항에서는 간담회 시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금번 건축법 개정공약에 대하여
 그동안 논의하였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서 요충이 보완되도록
 할 것입니다.



座長 김희춘 교수

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을 설정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법 개정, 시행령 개정, 규칙 조례 개정, 그 외에 이런 제도적인 정비 뿐만 아니고 실제 운영과 집행상의 면도 같이 뒤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현행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정비에 있어서 병행해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같이 가 줘야되고 또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정 방향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크게 여섯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곧 실시되는 자자체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의 건축조례 제정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또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써 허가 제한권의 일부를 위임하려고 합니다.

두번째, 국민의 편익 증진과 규제 완화를 위해서 세가지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공사중 설계 변경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건축 허가에 따른 조사검사의 민간 대행 범위를 현재보다 더 확대하고 허가 할 때 관련 법률의 인허가, 즉 토지 형질 변경, 취적, 공장물, 정화조 등에 면제 대상이 현재 있습니다만 대폭으로 확대해서 앞으로는 허가가 내면 One Stop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허가를 일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나가자 합니다.

세번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대형 건축물의 허가시에 사전예고제라고 그랬습니다만 여기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의 공사시 허용 오차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타 특수한 조건의 경우 건축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적법위주 상태에 대한 정기 보고를 강화하고 방화문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정기 검사제도를 새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오히려 요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

서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감시원 제도를 현재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임명을 해서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도심의 건축물에 미관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80년에 도입된 도시 설계 제도를 좀 더 내실있게 보완 정비하고, 또 하나 도심 대형 건축물에 있어서 공공을 위한 공개공지의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기타 법령 체계를 단순화하고 조문을 평이하게 하는 등 추진을 하고 용어 정의에 있어서도 준공 검사도 이제는 마치 건축물의 질을 보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용 승인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도 몇가지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만 유인물 11페이지를 보시면 조례 제정 범위의 대폭 확대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개선 방향만 간단히 말씀 드리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방화피면 구조 안전 등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제외한 기술규정, 집단규정, 절차규정에 대부분을 조례에 포함을 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면 건폐율은 법에서 정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는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 자치 능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할시급은 그런대로 여건이 돼있었습니다만 기타 시급, 또 군급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범위가 좁혀질 수 있도록 시행상의 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차등 위임하는 방법을 조례 준칙이든지 업무 처리 지침에서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국적인 허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지역 단위에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 지도를 통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및 도시 계획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인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제한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문제점과 방향과 제가 맡은 지자체 실시에 대비한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법은 기본 방향만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때 조례를 정할때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김희춘 : 이문보 교수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문보 : 먼저 건축 계획에 가장 중요한 이와같은 토론회를 개최한 대한건축사협회와 또 법 개정안을 공보해서 토론회에서 붙여서 적극 수렴을 하겠다고 하는 선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건설부 당국자에게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토론의 원고는 개정안을 받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과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가 바랍니다.

자율은 스스로 통제함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강박,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이라 하는 것은 방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구속은 존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구속의 형태가 달라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율이라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데 더 이상 바랄것 없는 이상이라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모든 구성원이 높은 의식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영구적으로 존속하며 모든 인간활동을 수용하는 것이므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조건과, 특히 지리적인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한 사람이나 물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건축물에 대하여 전 국토에 대하여 획일적인 규제를 한다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전국의 각 토지에 대하여 현지 조건을 감안한 적절한 규제는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스스로 판단하여 적절한 규제를 하는 자율적 규제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율적 규제는 현행 건축법에서 계속 늘려 왔습니다만 지방자치체를 실시함에 앞서서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극히 환영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을 구현하는 수단은 조례에 위임하거나 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각지방의 환경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규제 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규제 사항을 자율적 규제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몇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법 제 5장의 경우, 이것은 도시 계획적인 집단 규정으로서 건폐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등 5가지 규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과 용적률 규정은 이미 상·하한값의 범위를 주어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폐율 규정에 대하여는 강화할 수 있는 재량권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건폐율 규정도 용적률 규정등과 마찬가지로 상·하한값의 범위를 주어서 자율 선택의 폭을 줌으로써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높이 제한규정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현행 고도지구제를 지정하므로써 현행 법령에 의하여도 조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 중 건축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 규정은 이미 정해진 건축선으로부터 또 다시 후퇴시키는



발표자 이병원 건축기획관

바탕도 고도의 자치능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법 시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당하다고 믿어야 할지라도 사실상의 처가 리스크를 범수 있도록 차광 임의하는 상황은 존재할수있거나 임의적의 시정에서 경구할 생각입니다.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중건축선인 셈입니다. 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규정은 인접 대지와 선린상 관습적인 뜻이 농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도 지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제4장에 있어서 소위 용도지역제는 획일적인 기본골격을 견지 하면서 지구제로서 부분적으로 규제 내용을 조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의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은 그 용도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같은 용도라 할지라도 규모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용도도 항상 등장함으로 탄력성 있는 규제가 요구됩니다. 물론 지구제로 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각 지구는 지정목적이 뚜렷하고 국제적이므로 전반적인 용도 제한 조정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행의 획일적인 각 지구별 용도제한을 절대제한 용도와 또 지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상대제한 용도로 구분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즉 상대제한 용도에 대하여는 조례로 제한 여부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융통성있는 자율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2장의 규정은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방화 피난 등 개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방에 따라, 그 요구 기준을 달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획일 기준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정 단열 내진 등의 것은 조례에 위임하거나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는 물론 이에 따라 그 행정을 담당할 집행체제가 완비되고 재정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건축 행정의 집행체제에 있어서 고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업무량이 앞으로 대폭 증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다도 공무원의 자질이 제고되고 증원되어야 함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규칙 기타 건축행정상의 위임사항을 심의하

사회발전이 따라 새로운 형태의 용도로 높은
 다양성으로 임박한 있는 문제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확실적인 과 지구적 용도 차이를
 현대적인 용도와 지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상대적인 용도로 구분하고 상대적인
 용도에 따라서는 조정에 제한 여부를 수선했
 수 있게 하는 용도성을 부여할 것임니다



이문보 교수

기 위한 지방건축 위원회의 설치에 현재 시장 군수의 재량
 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 설치에 의무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건축 도시계획 법률 조정 색
 채 및 이에 관련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건축위원회는 대도시와 그 주변에서는 가
 능하지만 기타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설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건축위의 설치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당해 업무만을 전
 담할 수 있는 도건축위원회나 또는 공동건축위원회의 제
 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임명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정부의 감독에 따르지 않을 수 없
 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라서 선출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반 행정과 달리 건축 행정의 경우는 부당한 처분
 이 현실적으로 시정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
 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차원에서 자율성
 제고에 관한 토의입니다. 발전적으로 일정구역에 거주하
 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당해지역에 바람직한 건축 및 환경
 상의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법
 률적 효과를 발생케하여 그와 같은 제도를 일종의 주민자
 치제도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
 로 주요 개정 내용에 나와있는 시도지사의 한시적 건축 허
 가 제한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 지방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하는 성격도 가진 하지만 사실
 상 이것은 행정관소 내부에 있어서의 권한의 위임하기 때
 문에 자율성 제고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

김희춘 : 이문보 교수님께서서는 자율의 폭을 좀 더 높
 히는 문제, 건폐율 높이기 위한 문제 등 10가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태종 본 협회 법제위원에게 부탁드립니다

조태종 :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대한건
 축사협회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30년동안 건축법이 꾸준
 히 이어왔는데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어찌보면 신선
 한 충격을 저희에게 주시려고 노력하신 이필원 건축기획
 관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켜보면 건축법의 제도나 법령자체에
 문제가 있어 잘못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하고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
 에 건축법이 상당히 우리에게 불편하다는 것을 느껴 온 것
 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많은
 사람들은 건축법을 아주 잘 지키고 건축법이 좋은 것이라
 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그런데 제가, 건물가가 폭등하고 투기가 만연되는
 좁은 우리나라 국토 실정에서 건축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을 지키면 손해나 보고 건축법을 지키지 않아도
 손해를 본다는 그래서 투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건축법이 상당히 악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건축법을 악용하는 자체가 사회 계층간에 위
 화감 조성이나 대관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있는 국민화
 합 저해 요인으로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미공개화된 행정
 내용이 원인이 되고, 둘째는 주관적인 인식이 법령에 앞
 서 적용되는 일선 건축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잡다난한 건축행정 체계상에 문제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들을 이번 건축법 전면 개정에서 다소간에 수용했기 때문
 에 앞으로 잘 될 수 있으리라는 제 개인 생각이 먼저 떠오
 립니다.

이렇게 잘되더라도 앞으로 운영, 시행이 잘 되지 못하
 면 역시 문제점을 새로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정 개정보다도 운영 시행이 더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주어진 과제가 시·군의 건축조례 제정범위 확대와
 시도지사의 한시적 건축제한권 부여를 잠깐 말씀 드리고
 기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건축조례 제정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건축법
 이 시민생활과 밀착되어 있고 건축 행정의 현장 여건이 다
 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화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건
 축법령으로 전환하여야 된다는 점에서는 사실 동감입니
 다. 또 주된 방향이 건설부에서는 총괄적인 기준을 제시
 하고 감독만 하고 일선 지방관청에서는 그것을 시행하는
 운영규정이나 내용을 각기 지방 특성에 맞도록 제정하다

는 뜻에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것이 우리가 처해있는 현재 여건들을 보면 다소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市가 67개소가 있다고 보고 郡이 137개소가 있습니다. 또 구청이 71개소가 있는데 모두 합치면 275개소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각기 지방마다 상이한 내용들이 제정 시행 된다면 상당히 좁은 우리 국토 내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일관성 없게 난무하여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에 매진해야 할 우리 건축사들에게 상당히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인접한 시·군의 건축 행정 내용이 상이해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은 결국 불신공조를 만연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작년 6월 공청회때 이원필 건축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건축허가청이 267개소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3,350명의 52%만이 건축전문가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건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마다 다른 건축행정을 계속해서 운영 시행한다면 건축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술이나 예술에 대한 축적을 높이 쌓아서 새로운 문화 창조를 이루는데 열심해야 될 우리에게 정보 수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 한다는 그런 모순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도나 법령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 시행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 개인 의견으로는 감독관청에서 다양성 있는 욕구 충족이 가능한 조례준칙을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조례집에 있는 조례 내용을 보더라도 서울시의 조례 내용과 각 지방단체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서로 상이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 내용이라고 본다면 자치단체의 특성을 다양하게 제정해서 지방마다의 충족을 완화시켜 주면서 그것이 일관성 있게 조성되어 가지고 정보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독 기준도 제정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난립된 정보의 홍보대책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실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방법 등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건축인들에게는 기술, 예술적 축적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하고 비 건축인 모두에게는 건축법이 건축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쉽게 접근하기 쉬운 법령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시 도지사에게 한시적 건축제한권 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자신으로서는 개정된 내용에 찬성합니다. 다만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면 어떤 시에 병원을 설치해야 된다고 가정 했을 때 그 시도의 병상의 규모를 500명상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미리 500명상

이 필요하다는 도시 계획시설에 일정을 해줬다면 다른 사람이 추가로 병원을 지을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제한 자체가 어찌보면 다른 사람이 건축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도 우려되고 일본의 예를 들면 40만정도의 인구가 된다면 백화점을 도시의 책정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그 다음 사람이 다시 백화점을 지을 수 없는 모순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계획이나 도시 계획으로 건축 제한을 하는 자체는 좋지만 어찌보면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규칙이나 다른 보완책을 강구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든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방화 시대가 됐을 때 건축법이 공공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 제정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태종 회원

도시 계획시설에 일정을 해줬다면 다른 사람이 추가로 병원을 지을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제한 자체가 어찌보면 다른 사람이 건축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도 우려되고 일본의 예를 들면 40만정도의 인구가 된다면 백화점을 도시의 책정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그 다음 사람이 다시 백화점을 지을 수 없는 모순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계획이나 도시 계획으로 건축 제한을 하는 자체는 좋지만 어찌보면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규칙이나 다른 보완책을 강구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든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이 지방 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이 된다면 아마 많은 행정관청의 장들이 건축법을 공부하고 건축법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연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견제율, 용적률, 도로 사선 조향 등을 완화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완화 폭을 개정했을 때 그 개정하는 폭이 더 많게 해 줄 수 있는 사전제도가 필요히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완화 폭을 많이 할 수 있는 제정 확보 대책을 연구할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끼리 더 많은 제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대폭 개정해서 제정 확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상업지역내에 조경을 적은 회사에서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업지역과 주거 지역하고는 차이점을 상업지역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주거지역은 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업지역의 지가에다 조경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너무 특혜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있는 조경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의 조경을 완화시키는 비용을 부담시켜서 도시의 공공 녹지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합용도 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의 경우를 보면 주말이나 휴일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좁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는 저녁시간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효율 가치가 떨어집니다. 건축법의 용도를 두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휴일에는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녁시간이나 평일에는 외국어 학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연구시설로 전환시켜 본다면 두가지 용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방세를 더 많이 걷을 수 있고 토지 효율이나 건축물의 효율을 더 높여서 제정 수입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법 개정에 복합용도를 연구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얼마 전의 신문에 보면 미, 일 무역구조 조정 협의회에서 일본의 대규모 소매법 규제 법안이 문제 되었고 미국의 대규모 백화점의 일본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익 차원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무역 개발을 가속화 시켜야 할 단계고 서비스 개방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건축법도 국내용이 아니고 국제용으로서의 필요성이 있는데,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미래 대비를 위하여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릇 좋은 도시란
물리적 환경보다는 공간과 건축물이 자기 시민의 삶
속에서 문화적·역사·생태학적 가치를 높이고 인성을 함양하며
이행이 됩니다.

김희춘 : 지금 조위원의 토론 내용은 주로 지방의 자체에 위임하면 오히려 여러가지 법이 혼란해지고 건축사들이 정보에 급급해야 하는데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어떤 조례의 준칙 같은 것을 관주도하에서 일부 막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판에서 역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 한다는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회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최명철 : 여러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짧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정되는 안 자체는 전부 조례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얘기로써 시행령 내지는 조례로 미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법 제4장 제38조에서 제43조의 건폐율, 용적율을 규정한 대지안의 공지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다 조례로 위임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상태만 가지고 무엇을 토론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가지실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면보다는 실질적

지자체에서의 도시공간, 현재 산업화 사회에서의 도시화를 필연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모든 도시 공간 자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혀줘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지금 이 법을 맞이해서 과거 40년동안에 전쟁후에 복구적 차원에서 생각했던 건축법에 대한 의식, 또는 거기에 따라서 생활했던 모든 방식들이 일대 전환을 이뤄야지 이 법의 본 내용에 해당하는 취지에 모든 것이 합당하게 이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전환되어야 되는 어떤 발상의 첫번째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출경제 내지는 경제건설 경제정책과 건설정책 자체가 도시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축물의 하부구조, 도로 내지는 생활 습성이라든지 이런쪽에 가장 커다란 역점을 두고 그러한 것으로써 마련된 도시와 주거나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윤 추구 자체가 우리나라에 지나간 40년동안에 커다란 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전쟁 후의 복구 차원 내지는 수출 드라이브의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실제로 살아가는 주민들, 거기에서 꽃필 수 있는 모든 문화들, 그러한 개념 자체로 바뀌고 있다는 자체를 건축주 뿐만 아니라 저희 건축인들도 의식을 하고 더불어서 공무원들까지 같이 의식이 될 때 지금까지의 과거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은 도시, 그리고 좋은 도시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앞에서 나온 전국적인,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서 지방자치 단체마다의 자율성 독자성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는 저희들로서도 대단히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건축인들의 사고로써 생각해 볼때 도시 계획이라는 배경의 만분의 1정도의 지도로써 행해지는 도시계획과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택지 하나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때 스케일을 보면 600분의 1, 또는 200분의 1, 100분의 1 이런식으로 스케일이 작습니다. 그러면 만분의 1지도와 100분의 1정도의 저희들의 건축작업, 그 사이의 갭, 그 사이에 도시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도시 공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파손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디자인이 안되는 상태에서 도시가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법규 자체가 산술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이번엔 대폭 조례로 이양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산술적으로 미리 법만 규제를 했지 그 안에서 꽃피어야 되는 도시 공간들, 그것들의 창조적인 역할들, 이런 것에 대한 발상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건축인들도 그러한 도시 공간 내지는 도시 건축물에 대한 주체로서의 자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근간으로 해서 이번에 지자체의 자율성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더불어서 도시 공간이라는 자체가 무엇이나 좋은 도시가 무엇이나라는 패턴이 저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좋은 도시란 정신적 측면에서 경제적 물질적 풍요

도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물리적 장치로서의 공간과 건축물이 각기 시민의 삶 속에서 융해되어서 풍요롭게 개방되고 장소성을 획득할 때에 이루어진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단편적인 기억 또는 서울시라고 했을 때 옛날의 시내의 개념, 그리고 인사동, 경복궁, 덕수궁 돌담길 이러한 여러가지 기억나는 공간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강남에도 없고 새로 만들어지는 분당에도 없을 것이고 일산에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고 그 자체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대한 저희들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도시 공간을 창조해 내고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건축문화가 그것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속적인 기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자체 자율성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성, 공공 의식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상류층 다르고 저소득층 다르고 서로가 사회 생활에 적절한 규범이라는 것이 전혀 사회적으로 총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 자율성 자체를 단력적 운영이라는 용어으로써 보장을 해줬을 때 그것 자체가 실제적인 시행과정, 실제적인 건축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나 허가에 지금의 현행에서도 문제가 되는 문제와 지자체가 생겨서 주민이 또는 전체 시의회 같은 데에서 이러한 건축 허가의 결정 과정을 지금 상태로써 개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특별한 행정적 장치, 또는 한시적인 행정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랬을 때는 여러가지로 지금의 발상 전환 내지는 사고의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가지 악용의 우려가 높은데 이러한 자율성을 한정해 봤습니다.

두번째로 정보화 사회 얘기도 조위원님께서도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자체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보화 사회로 나간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 관한 일반 주민들이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건물이 공공적으로 이 도시내에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지를 얼마나 할애를 해 줘야 되고 주차장을 그 땅에서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되고 또는 건물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 자체가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로써 자율화 되고 나서는 그런 것이 개정되어서 건축적 공무원 자체의 능력 부족을 탓하기 전에 이것은 건축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 정보화 사회로 넘어갔을 때 일 예로써 도시 계획 환경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대지 소유자로 하여금 분명하게 얼마만큼 지을 수 있고 얼마만큼 할애된다는 것 자체를 밝혀줄 수 있는 그



최명철 회원

이런 건축성 개념이 막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전후방과 시대에 있어서도 각 도시에 적합한 법령 체계 자체가 통괄할 수 있는 도시건축법의 제정을 건의해봅니다.

러한 제대로 된 건축 정보 체계가 선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가지고 공무원과 알가알부하고 그 내용가지고 여러가지 로비로써 해결된다든지 하는 그런식의 풍토가 바로 바로 개선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실제적인 정보 체계가 건축주한테 직접 명시가 될 수 있게 행정 체계를 개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건축법 자체가 도시 계획법에 하부 구조식으로 돼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건축문화 창조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도시 계획법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양재동이나 포야동에서 6, 70평 단위로 구획정리는 돼있어서 틀림없이 주택이 들어갔으면 하는 지역에 많은 부분에 상가, 사무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택 단지로서의 좋은 것을 보장해주려면 그 자체의 Zoning 의 문제,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러한 Zoning 의 문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전반적인 도시 전체의 효율성, 도시 공간의 효율성 그런쪽으로 내용들이 집약될 필요성이 있다고 가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계획법 내지는 기타 법령과의 문제가 요번 건축 개정안에도 지적법이라든지 도로법에 일부 같이 연결은 돼있는데 저희들이 건축인으로서 실제적으로 건물을 디자인하고 건물을 건축한다고 볼 때 내용상으로 걸리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도시 계획법 또는 도시 개발법 특정 가구 정비법이나 주차장법 이런 것들하고 설계를 해보면 건물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법의 효율 때문에 건축물, 그리고 도시 공간 자체에 제대로 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건축법 개정과 더불어서 앞으로 다가올 건축문화 시대에 있어서도 도시 건축법이라는 각 도시에 적합한 법령 체계 자체가 통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건축법의 제정을 건의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춘 : 최 명철 토론자께서는 주로 현재 구체적인 법 제안보다도 도시적인 스케일로써 개혁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으로써 고쳐보자는 안 같습니다.

朝鮮시대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張慶浩/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4. 朝鮮時代의 宮闈

3. 昌慶宮

이 궁터에는 원래 壽康宮이 있었던 곳으로,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그러나 세종 이후로는 이 궁은 관심을 갖지 않고 차츰 퇴락되어 갔다. 그후 1482년 성종은 당시 생존하고 있던 세조비 貞熹王后 尹氏, 어머니인 德宗妃 昭惠왕후 韓氏, 養母인 예종의 妃 安順왕후 한씨를 위하여 수강궁 터에다 창경궁을 건조하기로 하고 수리도감을 설치하였다. 1483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484년에 주요 전각들이 완공되었다. 이때 건물은 明政殿, 文政殿, 歡慶殿, 景春殿, 仁陽殿, 通明殿, 養和堂, 麗暉堂, 思誠閣 등이다.

그러다가 1592년(宣祖25年) 임진왜란 때에는 경복궁, 창덕궁, 종묘와 함께 궁 전체가 소실되었고 그후 1616년(광해군8년)에 명정전, 문정전, 환경전 등과 일부 부속건물들이 증창되었다. 그러나 1624년(인조2년) 李适의 亂과 1830년

환경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춘전, 崇文堂, 養和堂 등 內殿의 건물들이 불타 버렸다. 그리하여 1834년에는 소실된 여러 전각들을 대대적으로 복원하고, 그전에 불타 버렸던 통명전도 이때 복원되었다. 이렇게 맥을 이어오던 창경궁은 1909년 일제시대에 동물원과 식물원이 개원되면서 전각이 차츰 헐리어 1911년에는 명칭마저 昌慶苑으로 불리게 되었다.

1982년 문화재관리국은 民族文化遺産의 보존·계승사업으로 창경궁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명정전 행각과 편전인 文政殿을 복원하고 명정전 후측에 침전으로 통하는 賓陽門과 행각을 복원하는 등 治朝와 燕朝의 基本宮制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건물의 복원을 위하여는 먼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자료를 토대로 복원공사가 행하여진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각종의 놀이시설과 동물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1986년부터는 昌慶宮으로 이름을 복원시켜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창경궁에 관한 자료로서 「昌慶宮修理所儀軌」(仁祖 11年~1633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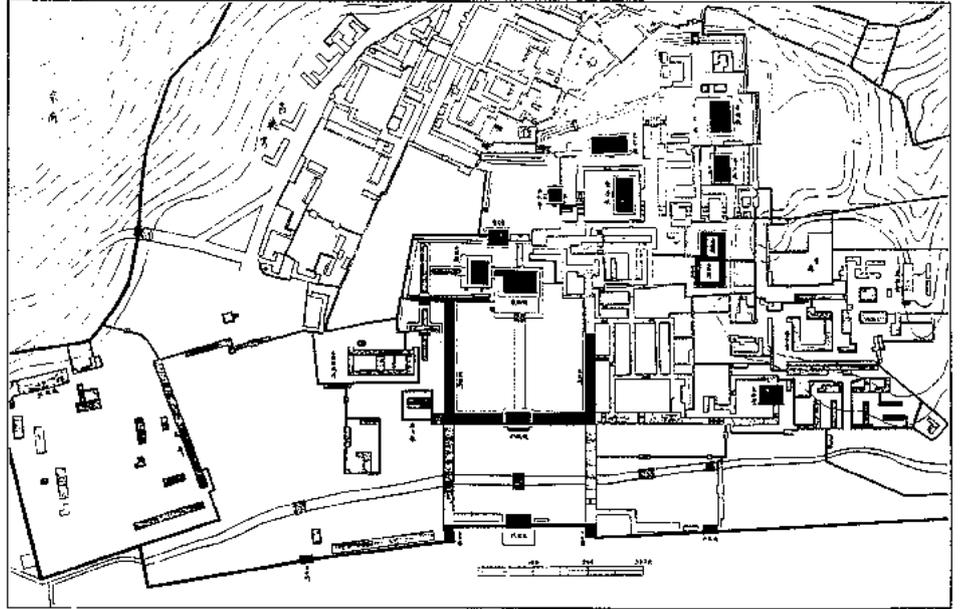
「昌德宮 昌慶宮 修理都監儀軌」(1652년), 「宮闕志」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료는 純祖年間인 1826년~1830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東關圖」인데 창덕궁과 창경궁의 건물배치와 자연지세 그리고 나무의 배치 등이 세밀하게 彩色鳥瞰圖로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것인데 16책의 화첩으로 되어 이를 펼치면 세로 2.73m이며 가로 5.76m이다. 여기에는 현재 없어진 건물들이 수없이 많이 배치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나타난 창경궁의 배치는 남향이 아닌 동향의 배치를 하여 明政殿을 비롯한 明政門 宮闕正門인 弘化門이 동향으로 놓였다.

이것은 창덕궁에서와 같이 그곳의 地勢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배치였다. 즉 서북쪽 櫻峰에서부터 支流로 흐른 비원의 능선은 종묘를 향하면서 명정전을 에워싸 문정전 남쪽과 북쪽으로 뺏어내렸다. 그러므로 左靑龍·右白虎의 산자락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동향의 건물배치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 다시 복구공사가 계획될 때 그 향에 대하여 金黼孫은 남향을 주장하였지만 종묘사이에 이루어진 脈을 끊게 된다고 하여 결국은 창건때와 같이 동향을 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그대로 시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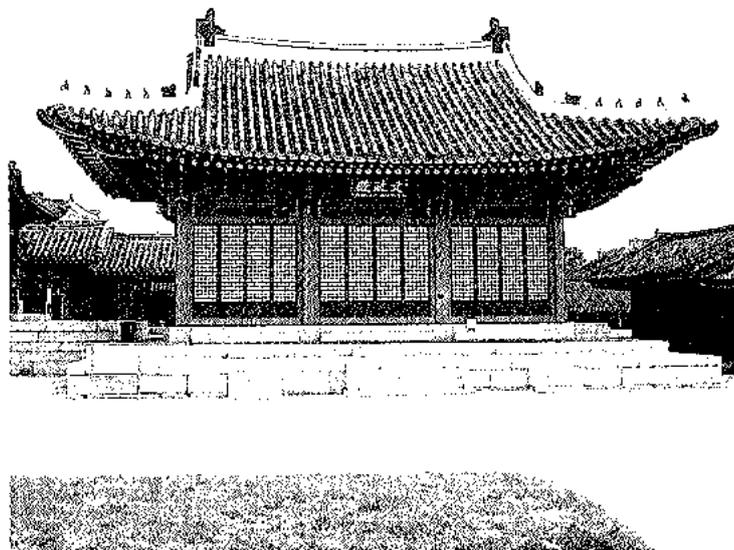
그러나 편전인 文政殿은 남향을 하여 角柱를 쓴 것이 명정전과 다르다. 따라서 창경궁의 배치는 정문인 홍화문을 들어서서 북쪽 춘당지를 거쳐 흐르는 옥류천을 건너는 옥류교를 지나면 명정문을 들어서게 되고 명정문과 명정전 사이에 三道와 品階石을 배열하여 명정전 월대를 오르게 한다. 그리고 이 중심곽의 주위에는 행각을 두르고 있으며 명정전의 남쪽에는 문정전이 놓여 이 두 止殿과 便殿의 治朝空間을 이루고 명정전의 후측에는 賓陽門이 놓여 이곳을 들어서면 寢朝인 燕朝공간으로 연결이 되어 景春殿과 歡慶殿 그리고 通明殿과 養和堂 등으로 통하게 되며 이 북쪽 좁 높은 곳에 慈慶殿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인들이 세운 舊博物館이 남아있다. 한편 빈양문의 정서쪽에는 낙선재가 있어 상궁 등 宮人들이 거처하였다. 또 창경궁의 園囿로서는 북쪽에 春塘池를 두고 그 주위에 정자를 두었다. 이렇게 하여 창경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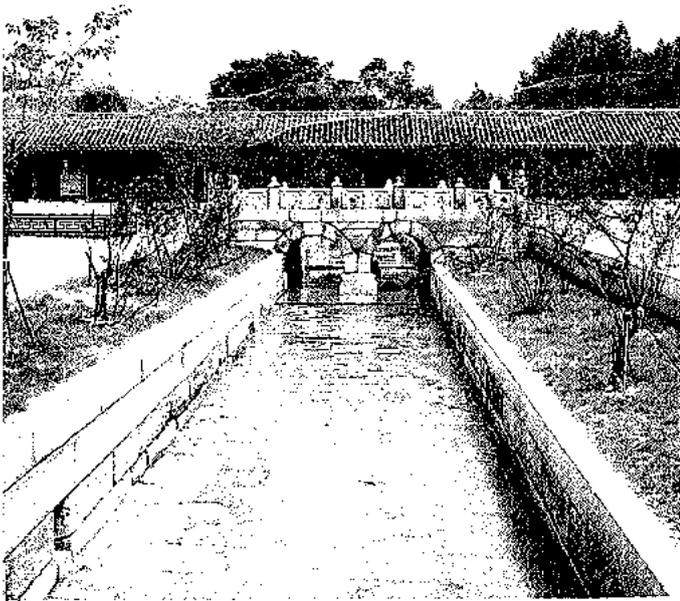
- ① 昌慶宮 全景
- ② 昌慶宮 配置圖
- ③ 文政殿 復元後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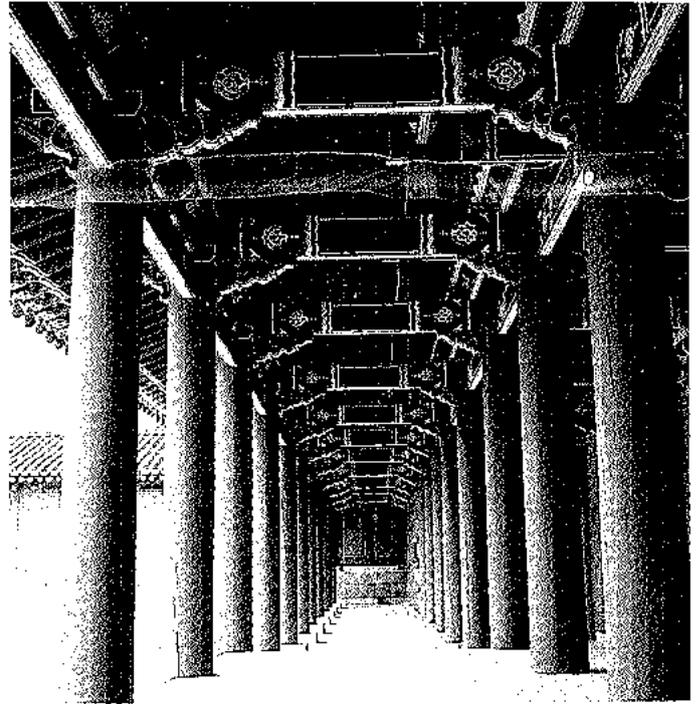
②



③



4



5

조선의 離宮으로서 그 배치와 기능을 갖게 되었다. 창경궁 안에 지금 남아있는 주요건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明政殿

성종 15년(1484년)에 창경궁이 조성되고 그 正殿으로서 명정전이 세워졌다. 이때 명정전을 동향으로 한 것은 지세에 따른 것이었다. 이 건물은 1592년 임진왜란때에 불타 없어졌다. 그후 광해군8년(1616년)에 文政殿·歡慶殿·仁陽殿 등 주요전각과 함께 명정전이 중건되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은 조선시대 궁궐의 전각건물 중에서 중요한 正殿이나 永寧殿과 같이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명정전은 중건될 때에도 그 坐向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당시 繕修都監에서는 舊基대로 동향하여 건립하려 했고, 또 金朝孫과 그의 제자들은 남향을 하도록 상소하였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脈인 舍春軒 남쪽 능선을 끊는다 하여 원래대로 동향하여 西坐卯向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 건물에 대한 기록은 앞서 기술한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데 이 중 「宮闕誌」 기록에 보면 건물의 규모와 형식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즉 여기에는 「명정전은 15間 內7包 外5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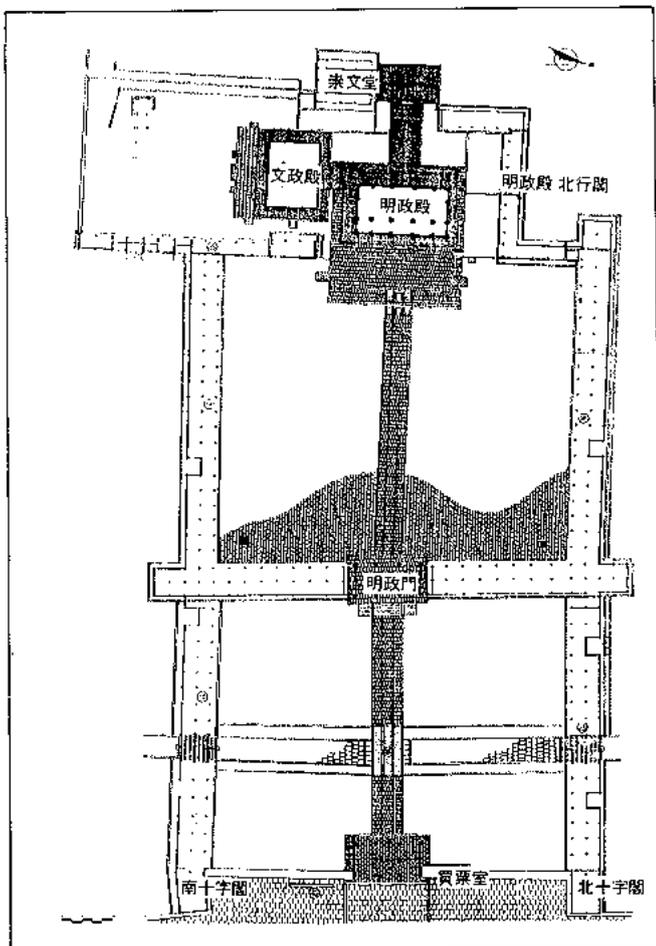
되어 기둥의 길이는 14尺이고 보칸이 13尺 2칸에는 앞쪽에 9尺 퇴칸이 있다. 도리칸은 14尺씩 3칸에 좌우 9尺씩 퇴칸이 있다. 후측 북도6칸 以南에 4각문 즉 建福門이 있다. 북월랑은 2間通(複廊임) 20칸으로 습이 40칸인데 안에는 永淸門이 있다. 남월랑은 2間通 20칸으로 합이 40칸인데 안에 光政門이 있고 전후에 행각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건물은 이와는 좀 다르다. 즉 정면이 중앙칸 14尺과 그 좌우 13尺씩 그리고 양첩칸이 각 9尺씩 합이 5칸이며, 측면은 중앙칸이 13尺, 그 좌우칸이 9尺씩 그리고 뒤에 10尺 퇴칸이 따로 붙어있어 합이 4칸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기록과 현존 건물의 규격이 다른 것은 후대에 보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록의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때 營造尺 1尺은 조사결과 31cm~31.4cm로 산출되었다.

명정전은 다른 궁의 정전과 같이 2층의 月臺를 두어 그 위에 건물기단을 마련하고 초석을 배열하여 세웠다. 그러나 월대의 형식은 다른 궁의 것과는 달리 지형에 맞추어 前面동측과 북측 일부만을 2층단으로 하고 건물의 좌우측과 후측에서는 한 단으로 짜았다. 월대의 짜임은 창덕궁 인정전과 같은데 地臺石과 面石 그리고 甲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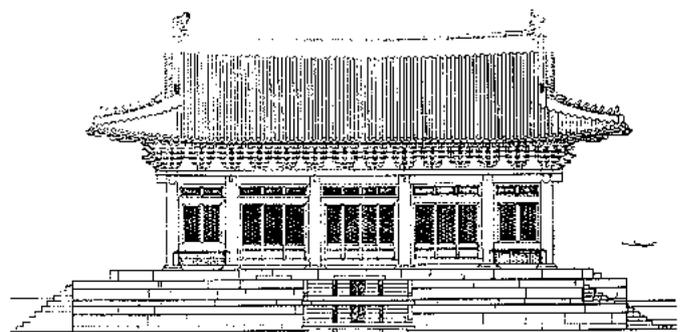
짜은 형식이다. 월대의 정면 중앙부에는 건물 중앙칸에 맞추어 三道의 2층계단이 놓였는데 중앙 御階幅이 2.4m, 양측 夾階幅이 1.3m로서 상하가 모두 6단이다. 御階의 踏道石板에는 아름답게 양각한 4分心葉形 운곽 안에 한 쌍의 鳳凰이 날개를 활짝편 彫飾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계단궤판에도 唐草와 寶相華, 雲紋 등이 정교하게 조각되었다. 또 계단 중간 隅石(마구리 마춤돌) 앞 끝에는 龍머리와도 비슷하고 해태와도 유사한 동물머리를 조각하고 좌우변의 隅石에는 외부로 雲紋과 渦雲紋을 장식하였다. 이 월대 위에는 堦을 깔고 밑의 계단 앞에는 명정분과 연결되는 御道가 있고 그 좌우양변에는 24개의 品階石이 있다. 1984년 발굴조사에서 명정전의 지대는 濕地였던 것을 매립한 후 건물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특히 명정전 북서쪽에서는 습지를 地定한 목재의 말뚝을 박았던 것을 확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오래된 말뚝지정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명정전의 초석은 내모석에 원형의 운둔높은 주춧돌 새김하였는데 그 위에 원주를 세워 본체를 세웠고 후측의 퇴칸은 내모초석 위에 角柱를 세워 翼工집을 세웠다. 조선시대 다른 궁의 정전인 勤政殿·仁政殿·中和殿 등이 外牌平柱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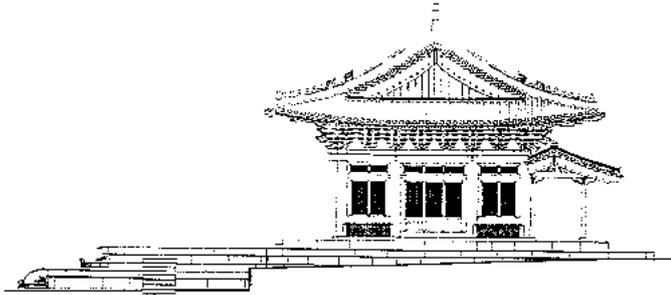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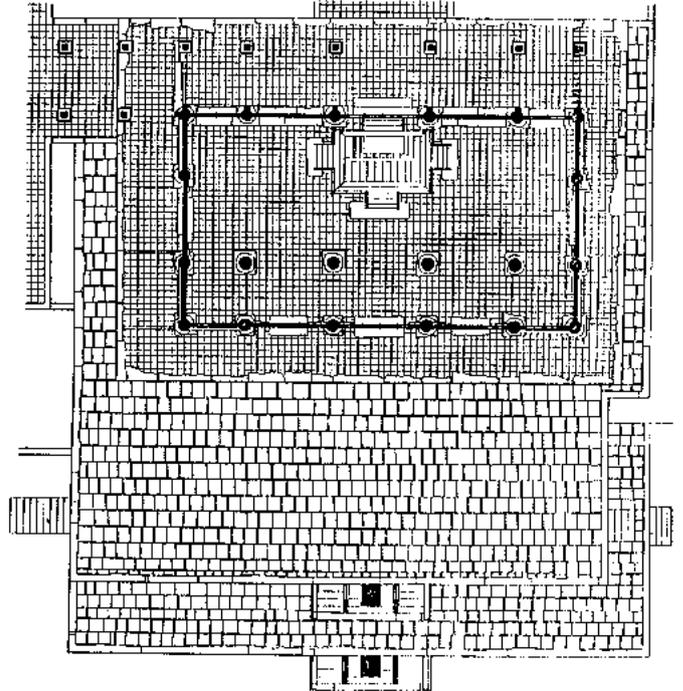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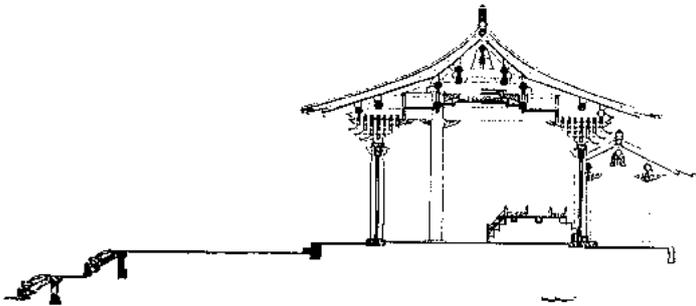
- ④ 昌慶宮 玉川橋
- ⑤ 明政殿 月廊 內部
- ⑥ 昌慶宮 明政殿 全景
- ⑦ 昌慶宮 建物配置圖(고적도보에서 전재)
- ⑧ 明政殿 正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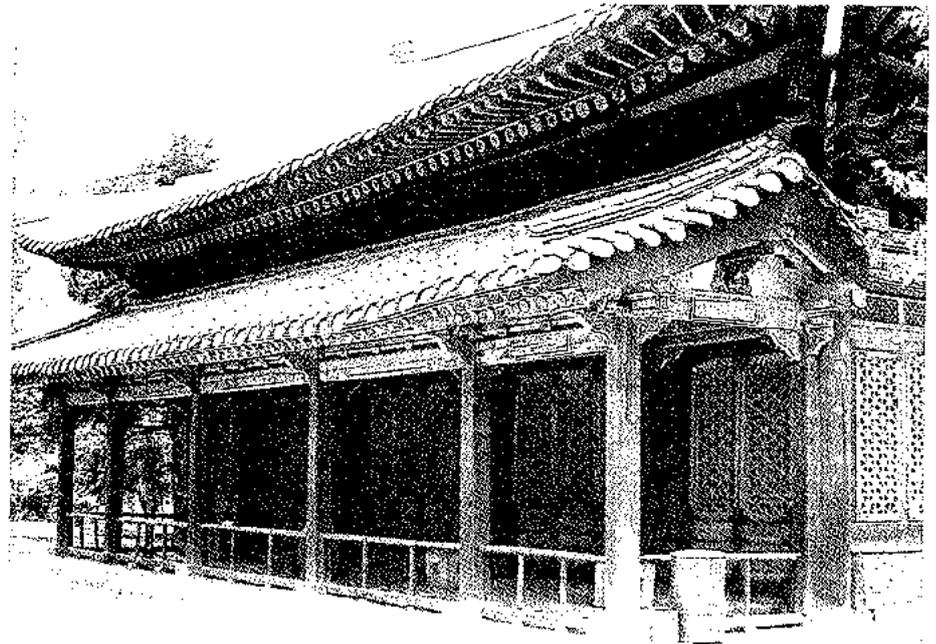
㉑



㉒



㉓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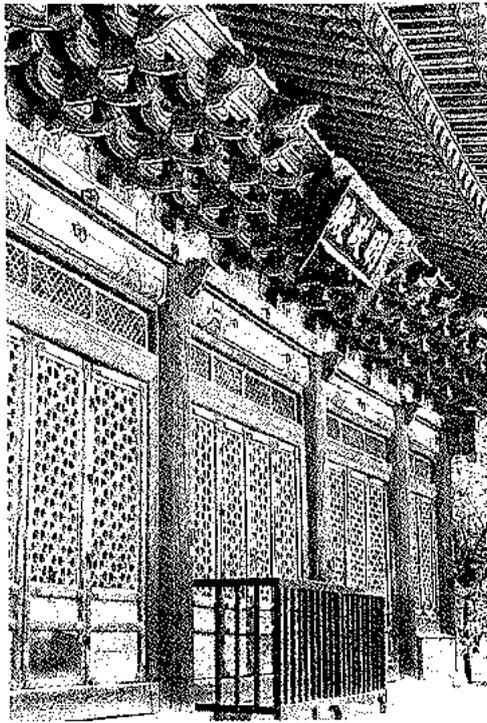
- ㉑ 明政殿 側面圖
- ㉒ 縱断面圖
- ㉓ 平面圖
- ㉔ 후측의 棧道
- ㉕ 전면공포와 후부

內陣高柱를 사방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비하여 명정전은 내진 고주가 건물내 앞쪽에만 4개 1열로 놓여있고 후측에는 내진이 없다. 그러므로 架構도 건물 앞으로는 고주에서 退樑을 걸고 뒷쪽에는 大樑을 걸어 평주위에 놓인 多包作 위로 걸었다. 이러한 기둥배열로 보아 명정전은 다른 궁의 정전과 같이 重層이거나 중층으로 계획되지 않고 처음부터 단층으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공포는 外3출목 7包作, 內4출목 9包作 多包式으로서 먼저 기술한 「宮闕誌」의 기술과 다르다. 첨차는 교두형에 공안을 뚜렷이 파고 건설하면서도 날카로운 쇠서끝과 내부 살미끝의 直切, 기둥상부의 나비형 按草工 등 조선 중기의 특징을 보인다. 건물 4면에는 세모와 육모의 꽃살로 된 꽃살창을 달았다. 그러나 정면과 측면의 좌우협칸의 하부에는 고막이벽을 塼으로 쌓았고 꽃살창 위에는 교살창을 둘러 달았다. 지붕은 팔작지붕에 겹처마로서 지붕위에는 용마루끝에 龍頭, 함각마루 끝에 驚頭, 추녀마루 위에 雜像 등이 놓였다. 다만 건물 후측에 덧붙인 퇴칸은 맞배로 지붕을 꾸미었는데 본체 처마말에 꾸미어 쇠서 등 공포의 일부를 잘라내어 손상을 주었다. 이 퇴칸의 남쪽은 문정전으로 통하는 복도와 연결되고 서쪽 중앙에서는 빈양문으로 통하는 복도와 연결되어 있다. 명정전 내부 바닥은 전을 깔았고 후측 중앙에 御座와 龍床이 놓이고 그 뒤에 日月圖의 병풍이 놓여 위에는 寶蓋가 있다. 천장은 우물천장에다 중앙부에 한 단 접어들린 안에 雙鳳紋을 둔 보개천장을 장식하였다. 1963년 수리공사에 함각머리 안쪽에서 墨書銘이 발견되어 광해군때 제건된 것으로 추측하게 되었다.

2. 明政門

이 문은 명정전을 둘러싼 月廊中 명정전과 마주보고 있는 동월랑의 중앙부에 있으며 궁의 外門인 弘化門보다 내측에 놓여 중문의 기능을 갖는 평삼문이다. 위치로 보아 명정전의 동서 중심軸線上에 정확히 놓이지 않고 남쪽으로 약 1.2m 벗어났다. 향도 명정전보다는 북동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므로 흥화문의 중심축선은 명정문에서 한번 꺾인 셈이다. 문의 좌우에 연결된



동월랑은 어느 정도 명성문에 맞추어 배치하였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둘러싸인 中庭은 온전한 방형이 아니고 좀 기울어져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 이유가 확실치는 않지만 宮밖에서 명정전이 문을 통하여 직선으로 들여다 보이는 것을 피하는 우리나라 풍습이 배려된 것이 아닌가 한다. 명정문 앞에는 三道로 된 계단이 있는데 중앙도에만 계단 隅石이 놓이고 그 앞의 御道橋과 중앙계단폭이 같은 것으로 보아 당초 중앙계단만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 건물은 언제 세워져 보존되고 있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문의 건축기법 형식으로 보아 명정전과 거의 같은 시대로 추정된다. 그 규모는 「宮闕誌」의 기술과 같이 정면이 중앙칸 15尺, 양 협칸 13.5尺이고 측면이 10尺씩 2칸으로 되어 있다. 이때 사용된 영조척은 보칸이 30.2cm~30.7cm이고 도리칸이 31.3cm~31.5cm이다. 즉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을 한 다포식 건물이다.

원형주좌를 둔 초석 위에 원주를 세우고 중앙열의 주열에는 각칸마다 2매씩의 육중한 판문을 달아 안으로 열게 하였다. 평주 위에는 나비형 안초공을 내외로 돌출시켰고 옆으로 창방과 평방을 걸어 그위에 내3출목, 외2출목의 포작을 배열했다. 포작은 마치

주심포작을 짜듯 외1출목에서는 첨차없이 교두형으로 된 頭工첨차가 놓이고, 이 위에 쇠서만이 얹혀져 있다. 그리고 내목에서도 제3출목에서 첨차가 없는 것이 특이하다. 쇠서는 명정전의 것과 비슷하고 한대 위에는 뽕죽한 三分頭를 나타낸다.

3. 弘化門

창경궁의 정문이다. 정면3칸, 측면2칸 2층 우진각 지붕을 가진 多包形式의 건물이다. 門樓는 石基壇 위에 세워졌는데 밑의 층은 3칸에 2짝 판문을 달아 출입하게 되어있고 문을 닫으면 宮을 閉鎖할 수 있다. 2층은 마루바닥에 4方 외벽선에 판문을 달아 문을 열면 이 위에서 4방을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平柱위에 창·평방을 돌리고 그위에 包作을 짜아 배열하였는데 공포는 內3出目, 7包作이고 外2출목, 5포작의 다포식이다.

공포의 짜임은 명정전의 것과 거의 비슷하게 건설한 짜임이어서 조선초기 형식의 특징을 보인다. 기구는 보칸 중앙에 고주를 세우고 대량을 이 고주에 양쪽으로 끼워 맞보형식으로 걸치고 이 보 위에 2층平柱를 새웠다. 그리고 高柱는 2층에까지 연장되어 대량 밑을 받치고 대량 위에서는 판대공을 놓고 宗마루를 얹어 지붕틀을 짜았다.

1층은 우물천장을 하고 2층은 연동천장을 하여 기구가 보이게 되어있다. 또 서까래가 완만하여서인지 2층 연목 위에는 덧서까래를 짜았다. 이 건물은 조선 성종때 초창 되었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광해군 8년(1616)에 재건하여 지금까지 보존되어오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 흥화문 양측에는 宮牆이 연결되고 南·北十字閣을 지나서는 行閣이 연장되어 명정전 월랑과 연결되어 있다.

4. 通明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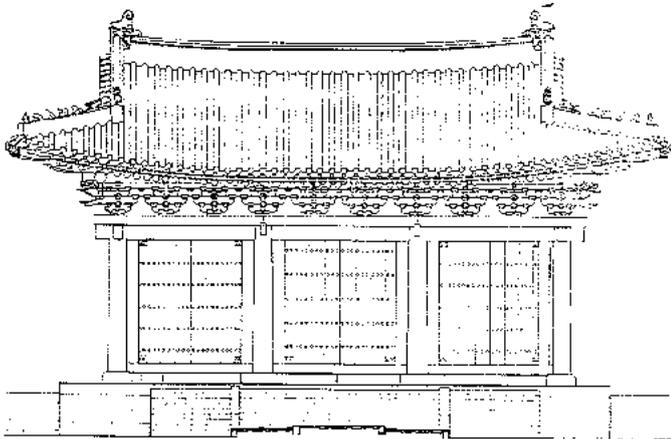
건물은 명정전 서북쪽에 놓인 창경궁의 內殿이다. 남향한 건물로서 전면에는 月臺를 두었는데 이 남면 3개소에는 계단이 놓이고 동·서면에도 각 1개소씩 놓였다. 건물의 서쪽에는 石造蓮池가 반듯하게 놓였는데 연지를 동서로 건너지른 石橋를 놓아 외부로부터 통명전 앞 퇴칸 측면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연지의 호석은 장대석으로 쌓았고 주위에는 석난간을 둘러었는데 북쪽변에는 入水口를 石漏漕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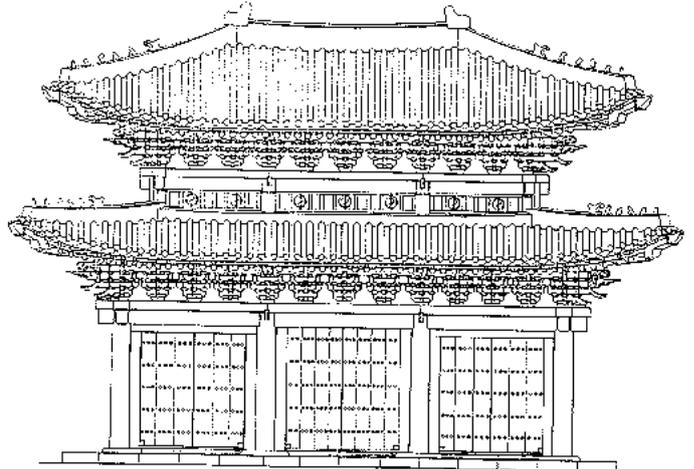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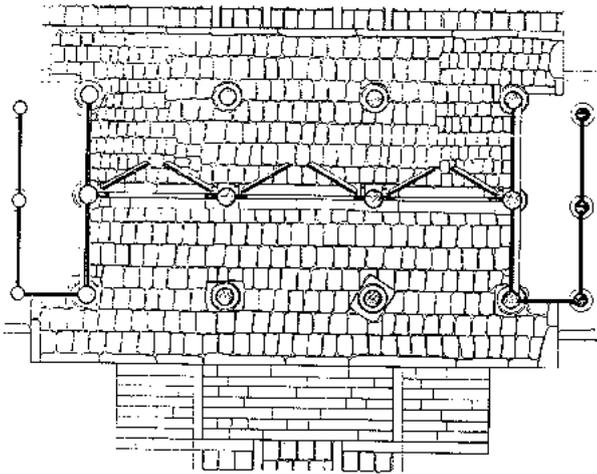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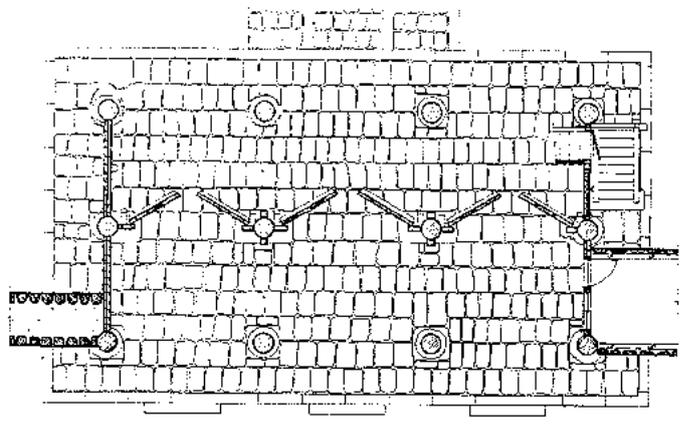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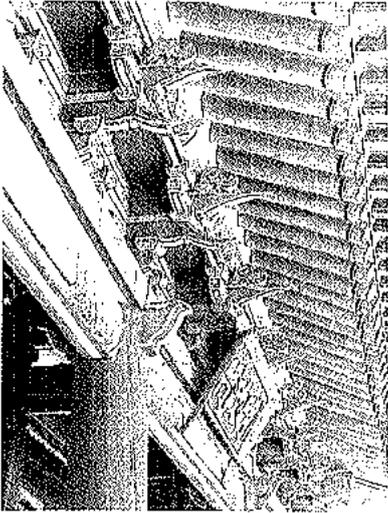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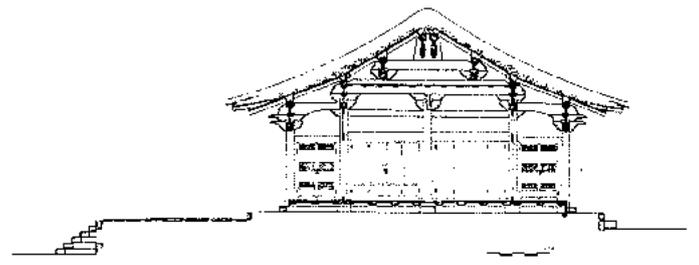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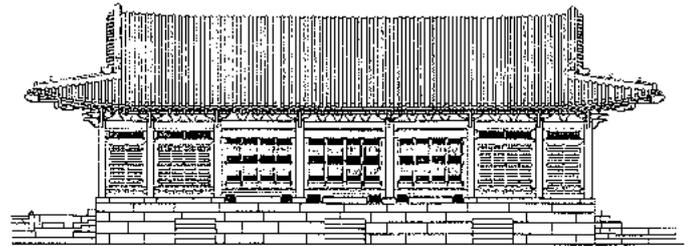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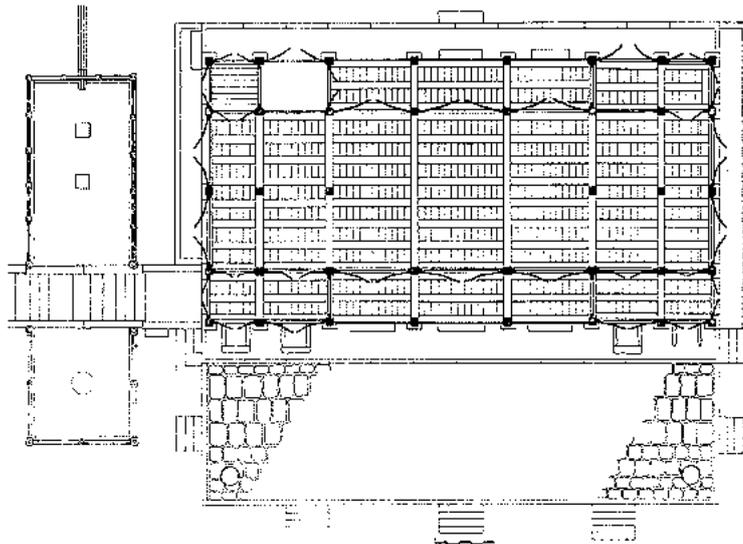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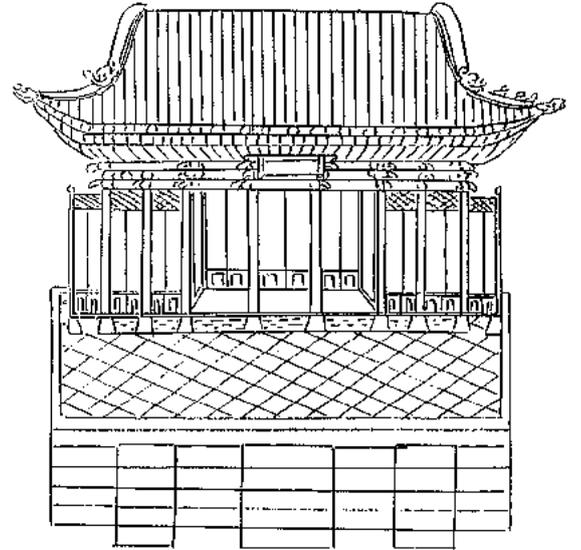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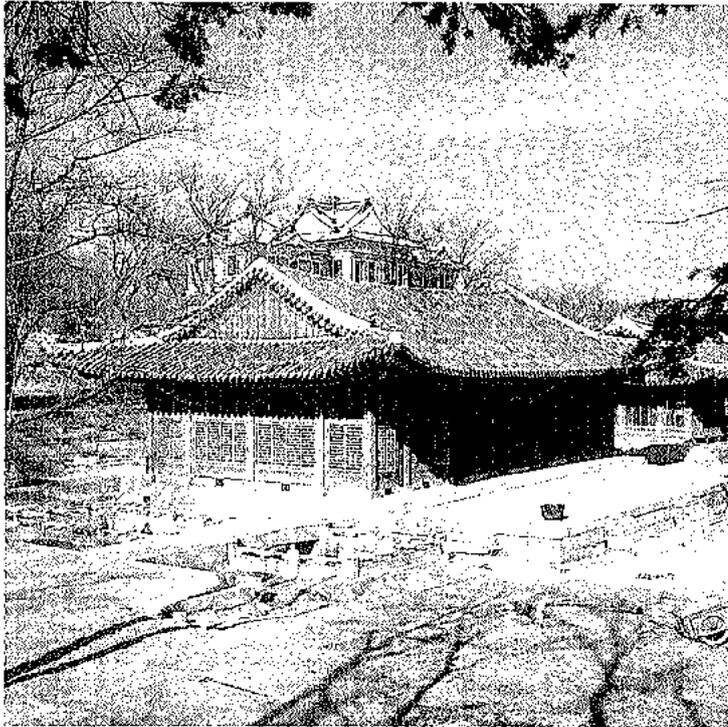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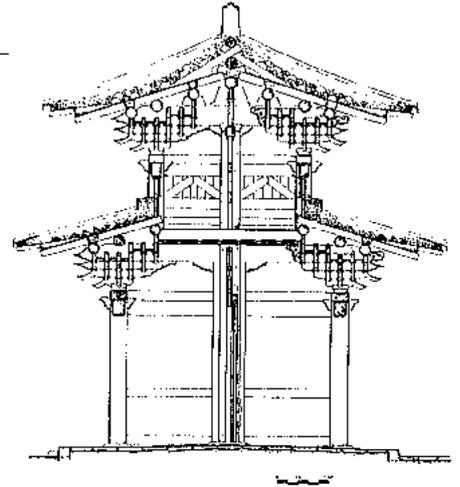
⑧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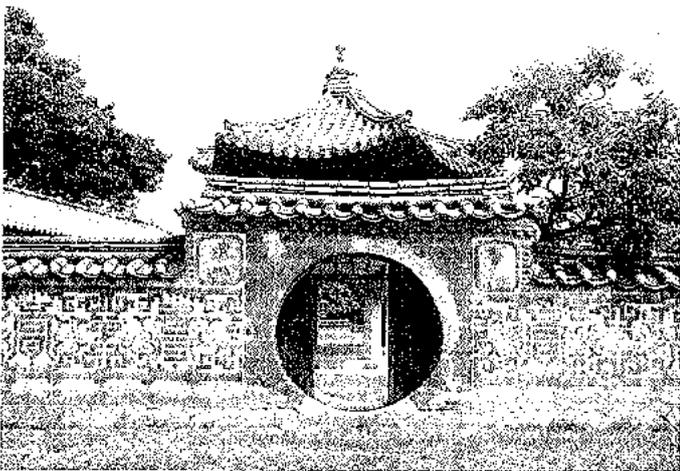


- ㉑ 明政門 正面
- ㉒ 正面圖
- ㉓ 平面圖
- ㉔ 弘化門 背面
- ㉕ 正面圖
- ㉖ 1층平面圖
- ㉗ 明政門 전면공포
- ㉘ 通明殿 全景
- ㉙ 弘化門 縱断面圖
- ㉚ 通明殿 正面圖(昌慶宮 修理部監儀軌에서 전지)
- ㉛ 平面圖
- ㉜ 正面圖
- ㉝ 縱断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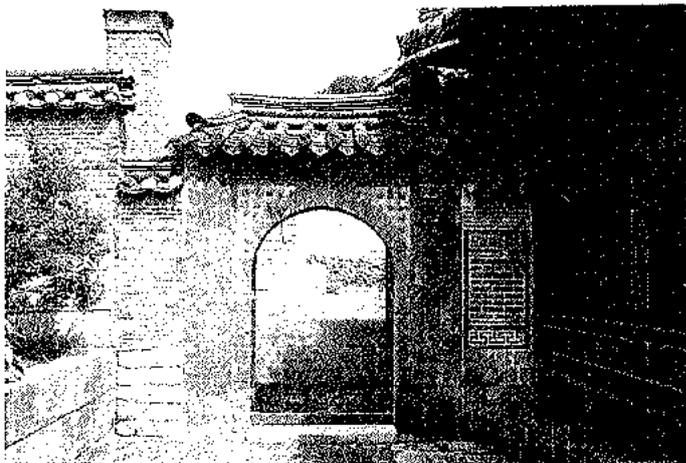




21



2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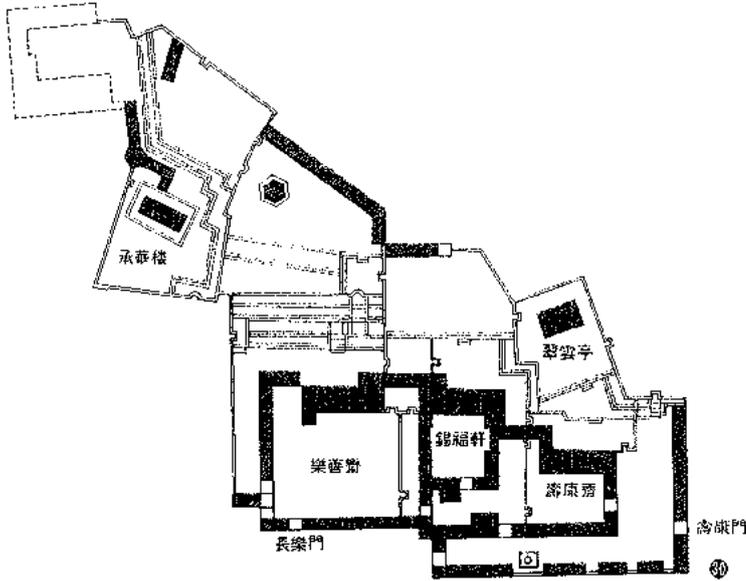
쥐었다.

월대 남쪽 양모서리 위에는 청동제 드무를 놓고 그 북쪽에 외벌대 기단 한 단을 놓아 건물을 세웠다. 통명전은 정면이 7칸이고 측면이 4칸인 翼工系 팔각 지붕집인데 지붕용마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건물내부 바닥은 발굴조사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면으로 보아 양측 2칸씩은 방을 꾸미고 중앙 3칸은 마루를 깔았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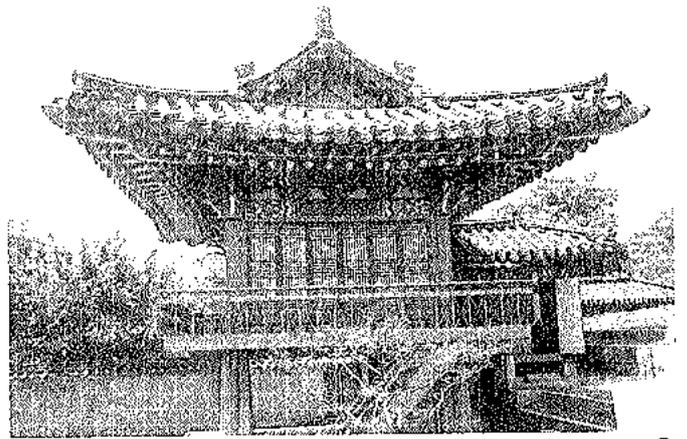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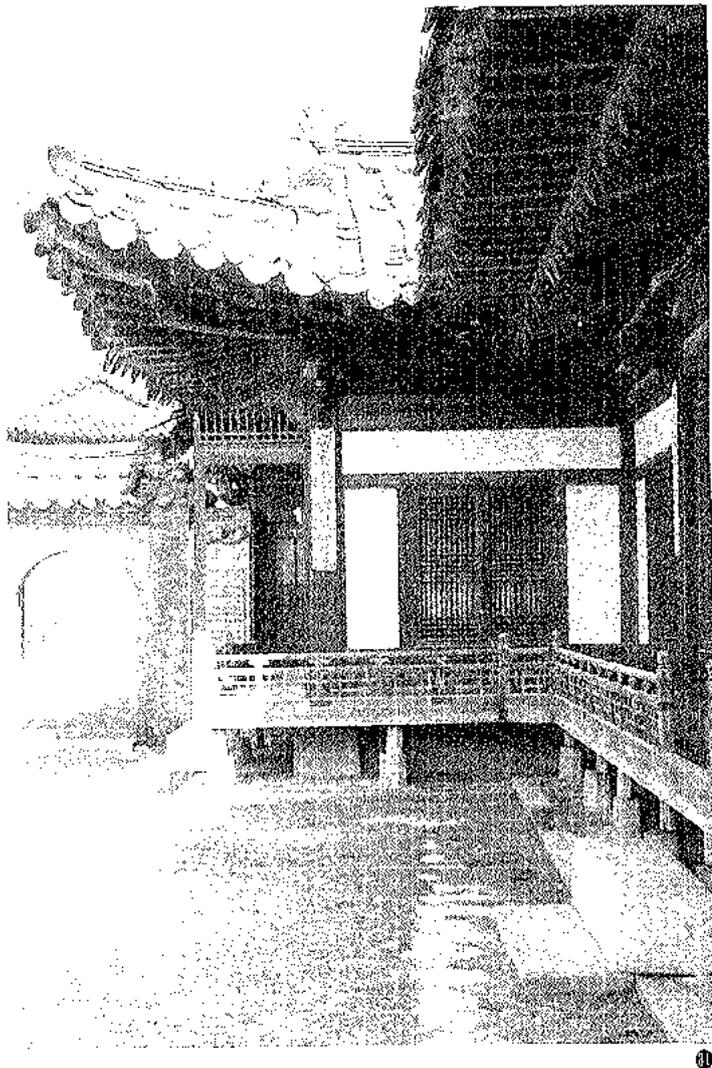
또 건물의 사방외벽은 세살문을 달고 그 윗부분에는 교창을 달았다. 건물의 전·후면에는 퇴칸을 두어 내진 고주에서 뒷보를 밖으로 달아낸 형식이며 전면 중앙3칸은 퇴를 개방하여 內陣에 창을 달았다. 架構는 내진 고주와 外陣평주를 배열하여 전·후 뒷보를 걸치고 평주 위에는 주두와 창방 그리고 뒷보를 결구한 출목없는 2익공의 공포를 짜았다. 또 창방 위에는

당초문을 양각한 花盤을 배열하였는데 柱間에 따라 1개~3개를 두었다. 내진 부분에는 우물반자를 짜고 퇴칸 위에는 종이 반자를 하였다. 지붕은 용마루 없이 기와골이 마루를 그대로 넘어가게 하였고 합각마루와 추녀마루에는 양성을 쌓고 용두와 잠상을 두었다.

지금의 창경궁 안에는 위에 기술한 건물외에 文政殿, 崇文堂, 涵仁亭, 迎春軒,



- ㉑ 樂善齋 全景
- ㉒ 후측의 원형 出入門
- ㉓ 후측의 아치형 出入門
- ㉔ 配置圖(朝鮮末 東國圖形을 기본으로함)
- ㉕ 樂善齋 후측
- ㉖ 承華樓 側面
- ㉗ 上涼亭 全景



集福軒, 觀德亭, 月勤門, 宣仁門, 賓陽門 등이 있고 玉川橋, 觀天臺, 風旗臺 등의 시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다음 낙선재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5. 樂善齋

낙선재는 지금 창덕궁 境域에 있지만 「宮闈誌」에 의하면 창경궁에 속한 內闈이다. 낙선재는 조선후기(1846년)에 세운 건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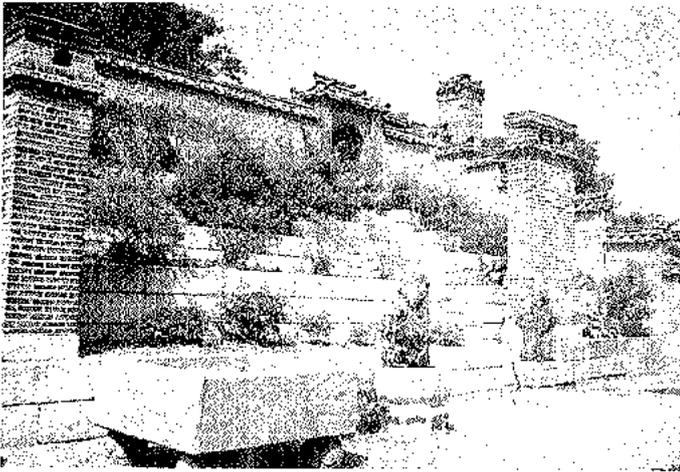
마치 양반집의 평면과 기풍을 느끼게 하는 건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대에 세련된 여러 종류의 장살무늬와 난간의 꾸밈 등 건축의장적인 섬세한 美的 배려를 한 건물이다. 이 건물앞 행랑채에 長樂門이란 正門을 두어 이 문을 들어서면 평면이 'T'자로 되어 서쪽에 누마루를 돌출시키고 동쪽에는 대청과 방 등을 두었다. 정면6칸 측면 2칸 팔작지붕 익공계의 집이다. 동측에

담장 한편에 있는 일각문을 통하여 錫福軒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석복헌은 평면으로 보아 '口'자 집처럼 보이나 본체는 '一'자 집이고 동·서 행랑이 연결되어 있다. 이 건물에는 덧퇴를 두고 이 덧마루 앞에는 난간을 두어 장식을 하였다. 낙선재가 사랑채라면 이 집은 안채와 같은 배치와 품격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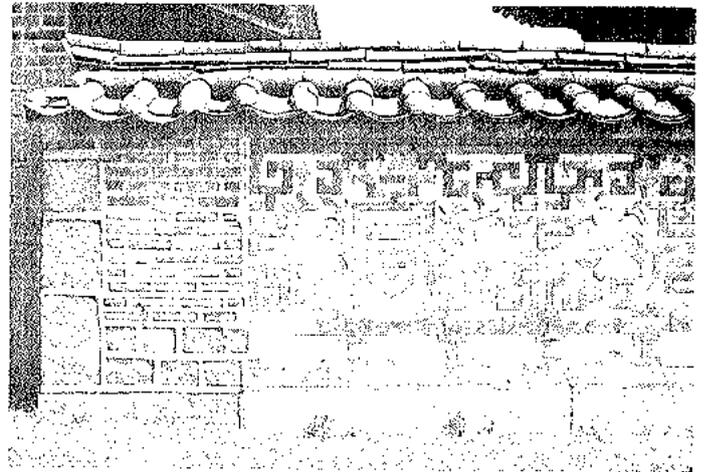
석복헌 동쪽에는 다시 壽康齋가 놓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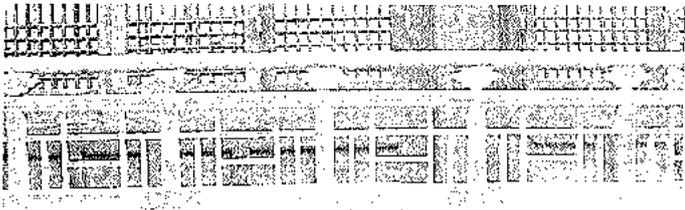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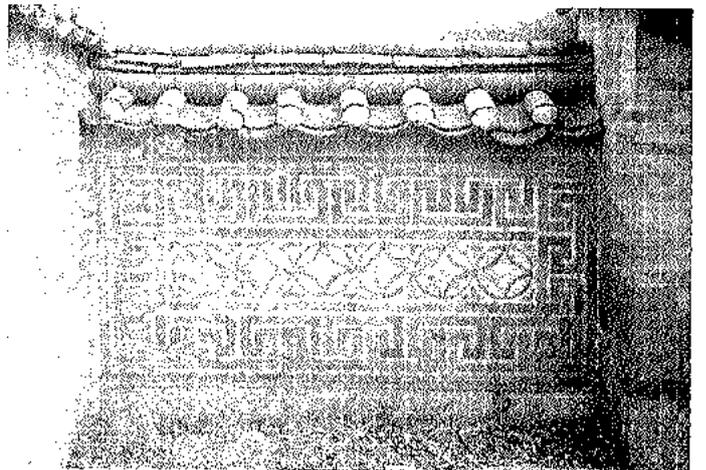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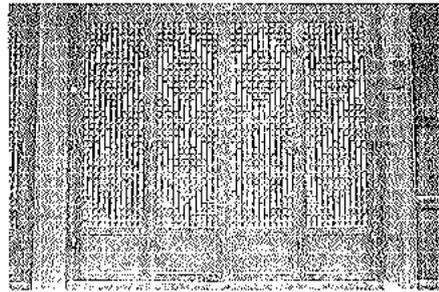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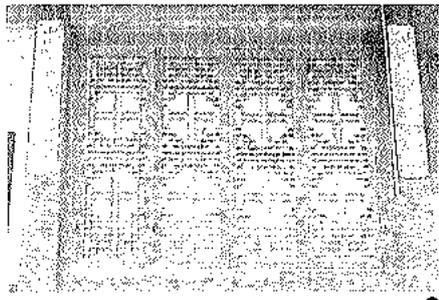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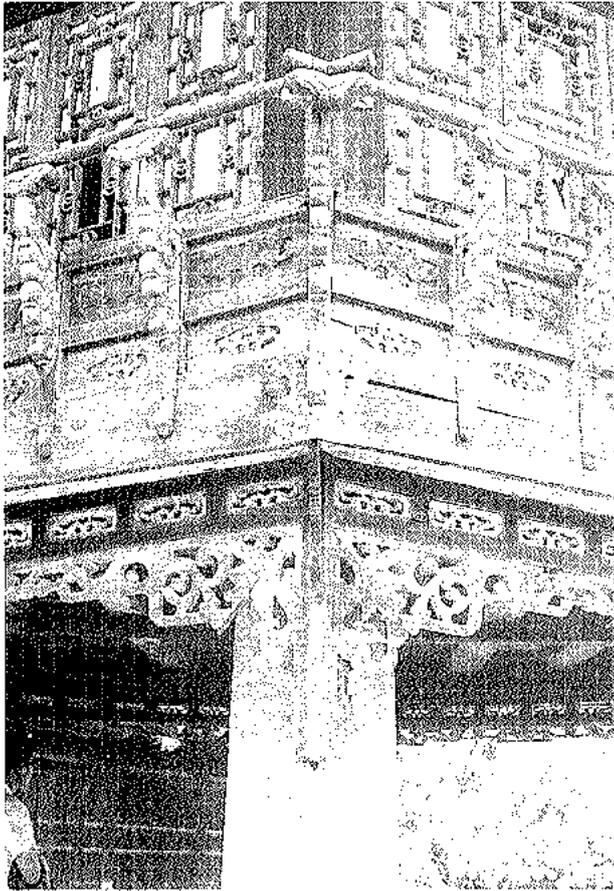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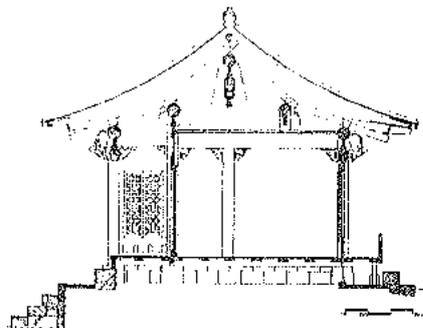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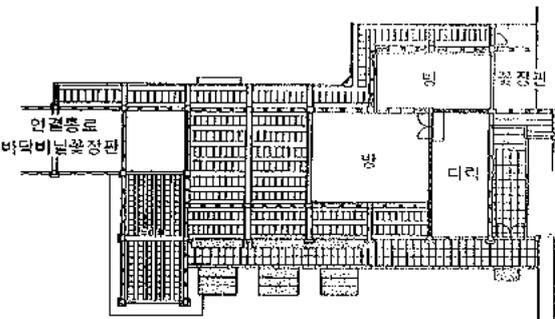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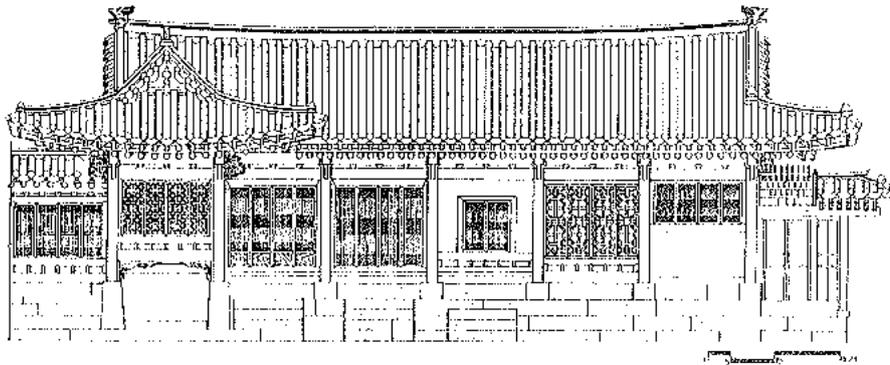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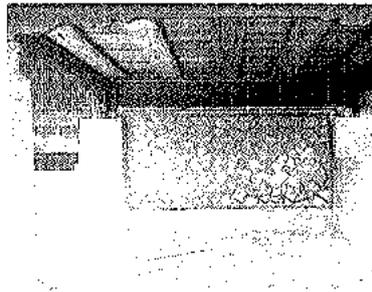
37



38



- ㉑ 閑靜堂 全景
- ㉒ 樂善齋 후측의 花階
- ㉓ 樂善齋 후측의 꽃담(承花樓쪽)
- ㉔ 錦福軒 난간상세
- ㉕ 樂善齋 후측의 꽃담(上涼亭쪽)
- ㉖ 上涼亭 난간상세
- ㉗ 樂善齋 窓戶
- ㉘ 樂善齋 橫窓 窓戶
- ㉙ 누마루밑의 防火壁
- ㉚ 正面圖
- ㉛ 平面圖
- ㉜ 縱斷面圖



별당과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 평면은 ‘ㄱ’자
판직지붕의 민도리 집이다. 앞의 건물들과는
달리 집의 꾸밈은 소박하게 하였다.

낙선자의 後苑에는 5단으로 된 花階를
꾸미어 화초를 심고 花담을 쌓아 籠巾紋,
雲紋, 포도문, 格字紋 등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아울러 여러 형태의 협문과 처장
공작을 세워 분위기를 더 알층 흥겹게 한다.
또 方形의 石池와 怪石이 배치되었는데
‘小蘇州’라고 새겨진 石盆 위에 세워놓은
괴석도 있어 마치 神仙사상의 三神山을
상징하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이 화계로
꾸민 高臺 위에는 上涼亭, 翠雲亭, 閑靜堂
등 情趣를 즐길 수 있는 집들이 있다.

註)

1) 「明政殿 十五間 內七包外五包
柱長十而尺 樑通二間十三尺式 前退九尺
道果通三間十四尺式 左右退九尺式
後兩道六間 以南四角門即建福門
北月廊二間通二十間合四十間 內有永清門
海月廊二間通二十間合四十間
內有光政門前後行閣有」

都市街路景觀에서의

建築物 外部色彩 計劃方法에 關한 研究(II)

—Computer Simulation을 適用한 大邱地域의 建築物 外部色彩計劃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Method of Exterior Color Planning
of Building in the View of Urban Street*

4. 建築物 外部色彩 計劃過程과 主要問題

오늘날 도시환경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環境的 問題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環境的 問題 가운데 視覺的 混亂의 問題는 인간의 視知覺을 통한 心理的 側面과 關連되어 그 重要性이 부각되었다. 이에 關連된 연구는 건축물의 경우 주로 形態的 側面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外部色彩에 關한 연구는 相對的으로 기초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물의 外部色彩計劃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전제로 하여 그 과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요소들의 분류 및 정리, 整理와 關連된 문제들을 고찰했다.

1. 建築物 外部色彩計劃의 過程

일반적인 색채계획 (Color Planning) 의 개념은 視覺對象이 갖는 색채의 物理的, 心理的, 生理的 특성을 인간의 視知覺메카니즘에 적용함으로써 정신적 의욕과 생활에너지의 재생산을 촉진하고, 활동 및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보다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환경을 구성하는 視覺對象과 인간활동의 關連성은 그림 4.1과 같다.

도시가로공간의 건축물 외부색채를 계획하는 것은 그것과 인간 사이에

이제까지의
연구를 정리하여
색채계획의 개념을
외장색채의 기능, 역할
인간의 視知覺 메카니즘에
적용된 외부색채의 계획에
관한 연구의 과정 및 색채의 기능
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徐輔光

동성종합건축사사무소, 工學博士
by Suh, Bo-Kwang

내재하는 環境적 이미지에 근거하여 視知覺的 要求條件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일반적 색채계획과정의 골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現況 및 資料분석

건축물의 외부색채계획과 關連된 資料의 수집은 색채의 이론적 실험적 資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과 關連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現況분석은 도시가로 전체에 대한 色彩分布를 비롯한 색채별 이미지 등이 요구된다.

2) 色彩計劃의 目標 및 基準設定

도시가로경관에 있어서 색채계획의 목표는 現況분석을 통하여 계획대상 건축물이 유발할 수 있는 視覺的 混亂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 목표는 가로경관의 전체적인 시각적 이미지의 연속성을 전제로 각 건축물의 형태와 關連된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의 視知覺에 있어서 연속성과 아이덴티티는 相對的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부분적 요소의 아이덴티티를 체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視覺的 混亂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配色計劃

수집 또는 분석된 資料와 現況분석의 결과, 건축물의 특징적 이미지 등을 토대로 使用色彩의 範圍, 配色類型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精密性, 類似, 對比, 秩序, 비모호성의 원리와 같은 일반적인

색채조화의 원리가 적용된다.

4) 代案의 設定

배색계획의 결과에 근거하여 배색모형을 제작한다. 배색모형은 모형에 의한 것과 Computer에 의한 것이 있으며 후자가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색채계획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視覺對象이 갖는 색채는 그 전체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시각적 요소라는 것이다. 즉 視覺對象의 색채는 다른 시각적 요소들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2. 建築物 外部色彩計劃의 要素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 관련된 요소에 대한 분석은 도시가로공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색채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고 가로환경에 대한 인간적 요소와 그것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환경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1) 現況分析

도시가로공간의 건축물 외부색채현황에 대한 분석은 외부색채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色彩學 理論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前述한 두가지 표색방법 가운데 顯色系의 표색방법에 의하여 色知覺의 心理的 속성(색의 3속성)에 의하여 측색한다. 측색결과에 대한 분석은 건축물의 이미지, 사회문화적 특성 등이 파악되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서 사용되는 색채의 범위가 1차적으로 한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人間的 要素

색채계획뿐만 아니라 건축실제 전반에 걸쳐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인간적 요소이다. 색채계획의 경우 색채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반응이 특성에 기인하여 더욱 그러하다. 인간적 요소는 환경의 주체로서 인간의 제특성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적용되지만 건축물 외부색채계획의 경우 도시가로공간의 사회적 公共性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環境的 要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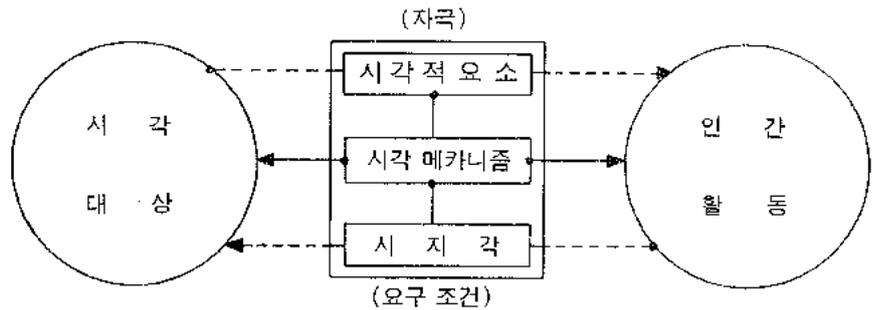
환경적 요소들은 색채계획의 과정에서 인간-환경(도시가로공간, 건축물 외부색채)의 관련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서 도시가로공간의 아이덴티티와 구조를 형성하는 시각적 요소들과 관련되며, 인간적 요소들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具體的

分析이 가능한 건축물의 형태와 Mass, 외관 데테일, 기존 건축물의 配色類型 등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요소들 외에도 외부색채의 계획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材料(色), 관련법규 등이 있다. 재료는 빛의 반사율과 관련된 표면처리, 질감 등에 따라서 색채의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색채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통제수단으로서 관련법규는 도시계획의 미관지구 지정에 의한 미관심의 등의 규정이 있으나 건축물 외부색채계획의 지침이 될만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도시가로공간에 있어서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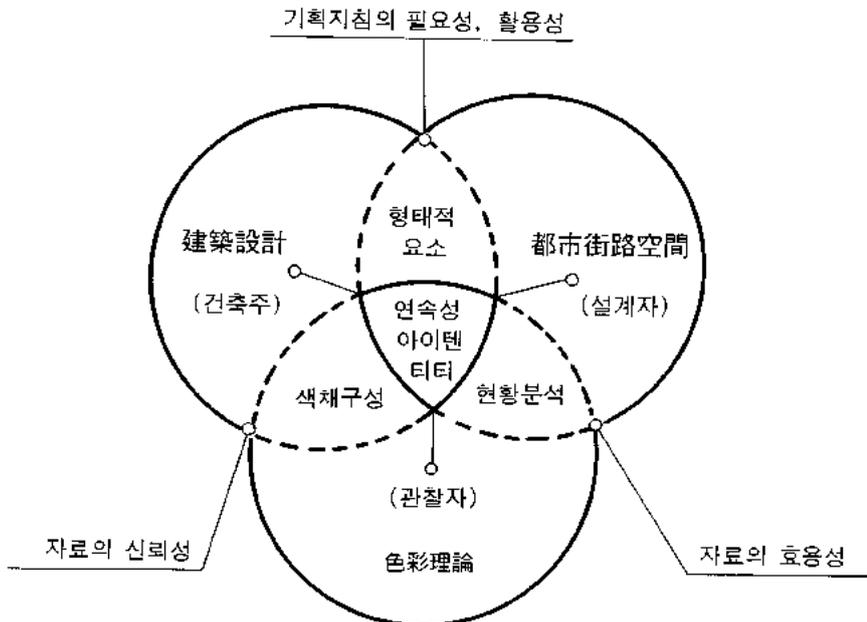
외부색채계획의 목표는 가로공간의 시각적 이미지의 연속성과 아이덴티티로 前述하였다. 이러한 색채계획에 있어서 意思決定의 주요분제는 계획기준의 설정과 色彩選定 및 配色類型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색채선정과 배색유형은 색채계획의 결과이지만 계획기준에 의하여 긍정적 평가가 되었을 때 최적안의 결과가 되고, 그러한 계획기준은 지역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가변성을 갖는다. 또한 도시가로공간에 있어서 건축물 외부색채계획을 그 原理的 側面에서 기존의 색채이론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과정과 관련요소들은 도시가로공간의 환경적



(그림4-1) 視覺對象과 人間活動과의 關聯性

	자료 및 현황분석	색채계획의 목표 및 기준설정	색채계획		대인설정 평가
			색채 선정	배색 유형	
색채이론	색채의 실험적 자료 색채의 심리적 효과	색채의 상징성 색채 조화	색채 3속성에 따른 변화 색채조질 주조색, 보조색, 액센트색	색채 구성	모델에 대한 평가
가로 환경	색채현황 (전체, 용도별, 재료별) 가로환경 색채에 대한 관련 법규 가로 경관의 시각적 요소에 관한 색채 현황	가로경관의 연속성 사회 문화적 특성 환경적 이미지	기존 색채의 사용 범위 건축물의 시각적 특성	기존 색채의 배색 유형	Computer Simulation에 의한 평가
건축실제	인간적 요구 설계자의 의도 건축물 형태상의 특성 건축물의 입지적 조건 건축주의 요구조건	건축물의 아이덴티티	건축물의 형태 재료의 특성	건축물의 매스 경제성	

(표 4-1) 建築物 外部色彩 計劃過程에 따른 요소들의 分類



[그림4-2] 關聯分野別 相關圖

계획권 일관성의 측면에서 계획도시와 비계획 도시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정책 제언을 진다. 인간의 입맛과 건강을 위한 색채계획 YDCA, 계획의 성장이 곧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측면, 건축설계의 측면, 색채이론의 측면에서 표 4.1과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建築物 外部色彩計劃의 主要問題

前述한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정을 계획의 개념적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계획」이란 인간(개인 또는 단체)이 현실적 문제 또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具體的 問題를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내거나 예상되는 문제 등을 미리 따져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은 合理性의 추구에서 비롯되지만 理論的 最適狀態와 실제결과와는 흔히 차이점을 갖는다. 인간의 眞理探究能力은 한계성을 지니고, 계획의 설정이 곧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정에 있어서 意思決定은 색채 및 배색유형의 선정을 구체적 목표로 하여 건축물 외부색채가 갖는 사회성에 비추어 사회적 가치관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1) 建築物 外部色彩計劃의 主要問題推論

도시가로공간에 있어서 건축물 외부색채계획의 주요문제는 前述한 관련분야별 요소들에 대한 특성과 그들 사이의 관련성을 고찰함으로써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2참조)

각 관련분야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색채이론과 관련된 요소들은 색채에 관한 학문적, 실험적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건축물 외부색채 관찰자의 관점에 의한 意思決定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전환되어야 한다.

○ 도시가로공간의 환경적 측면과 관련된 요소들은 주로 현황분석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계획과정 전반에 걸쳐 가로공간의 이미지와 관련된 設計者의 意思決定에 영향을 준다.

○ 건축설계와 관련된 요소들은 일반적인 건축설계과정에서 검토되어 온 것들로서 건축주의 意思決定이 우선되며, 건축물의 형태적 요소가 중요시되고 분석에 따르는 별도의 시간적, 경제적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분야별 특성에 따른 상호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면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의 체계적 접근을 위한 주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추론 할 수 있다.

○ 建築設計 - 都市街路空間의 環境的 側面: 도시가로공간에 있어서 건축물 외부색채는 현행 제도상으로 그 규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색채의 使用範圍, 配色類型 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적절한 범위의 구속력을 갖는 제도상의 동체수단과 함께 구체적인 計劃指針이 요구된다.

○ 都市街路空間의 環境的 側面 - 色彩理論: 색채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기존의 현황분석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되며 그것은 분석의 기법 체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다.

○ 建築設計 - 色彩理論: 기존의 다양한 색채이론들은 건축물 외부색채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過多한 자료에 의한 계획과정의 혼란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자료의 효용성을 고려한 자료의 선택과 분석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정의 주요문제는 計劃指針의 必要性和 活用性的 問題, 자료의 信賴性, 效用性的 問題로 요약할 수 있다.

2) 建築物 外部色彩 計劃過程의 主要問題 解決方向

前述한 주요문제의 해결은 건축물 외부색채계획에 대한 보다 체계적 접근의 전제조건으로서 각 관련분야의 상호관련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計劃指針의 必要性和 活用性의 問題 : 우리나라의 경우 통제수단의 측면에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물 외부색체에 대하여 주변의 환경색채와 유사한 색채를 사용하라는 「유사의 원리」에 의한 색채조화를 제시하고 있다. 색채반응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건축물 외부색체에 대한 개인적, 주관적 반응을 객관적 차원에서 일반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규는 설계자에게 주어지는 제한적 요소이면서 설계자가 색채계획 과정에서 사용색채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한정할 수 있는 指針으로 활용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資料의 信賴性의 問題 : 건축물 외부색채계획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는 크게 현황분석 및 색채반응조사의 결과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색채현황분석은 지역별·용도별·재료별 등으로 구분되나 단순한 색채분포현황이 아니라 건축물의 개구부 및 외관 디테일과 관련된 色彩構成的 側面的 配色類型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색채반응조사는 일반적으로 사회조사방법론의 근거하겠지만 조사대상 설정에 보다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는 그 활용성을 고려할 때 건축물 외부의 표준색 또는 사용색채의 범위설정과 직접 관련되므로 상당한 수준의 객관성이 요구되므로 個人的 次元에서보다는 公共的 次元의 연구가 바람직할 것이다.

○資料의 效用性의 問題 : 색채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색채이론의 학술적 자료들은 실현적 차원을 초월하여 환경색채의 실용적 목적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정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색채에 대한 심리적, 감정적 반응의 실험적 자료들 뿐만이 아니라 건축물의 主調色에 따른 補調色, 액센트색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는 效用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小結)

3장에서 고찰한 건축물 외부색채의

중요성과 특성을 건축 및 도시를 비롯한 환경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색채계획과정과 그속에서 전개되는 요소들의 개념 및 그들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으며, 건축물 외부색채계획의 보다 체계적 접근을 전제로 한 意思決定的 側面에서 주요문제를 추론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요문제들은 색채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심리적 효과, 선호경향 등을 건축실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색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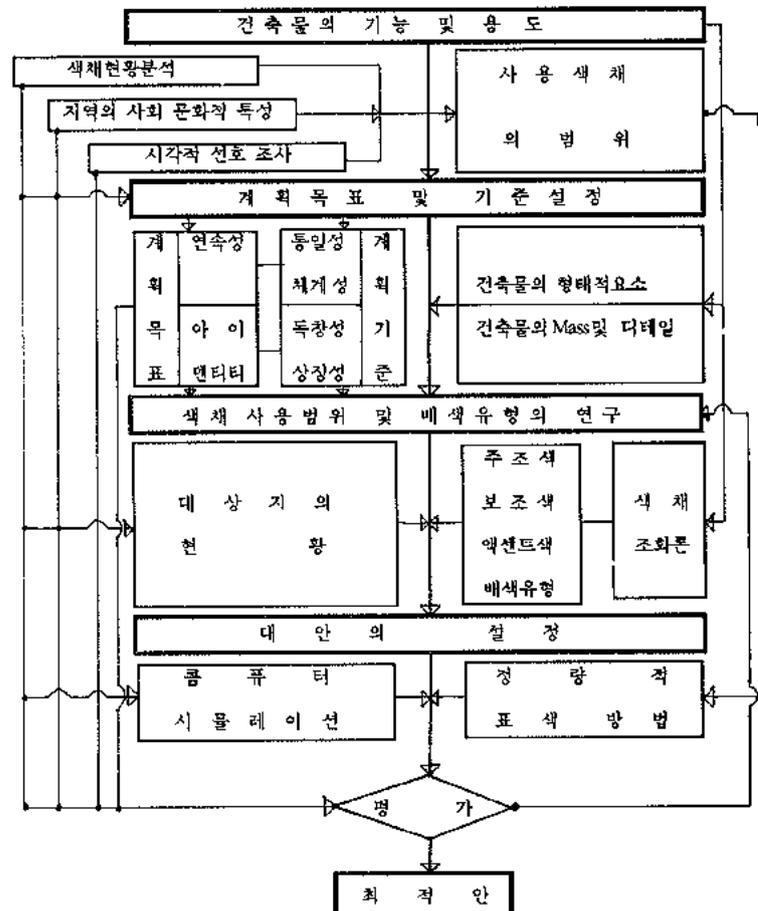
방향을 어느정도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설계자의 주관과 직관에 의존하기 쉬운 의사결정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색채계획과정에서 전개되는 요소들 사이에 체계적인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색채계획과정의 모델을 설정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建築物 外部色彩 計劃過程의 모델 設定

일반적인 색채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외부색채계획에서도 설계자의

기 준	분 석 방 법
색 상	멘셀의 기본색상(5가지), 적(R), 황(G), 청(B), 자(P)에다 그 보색인 청록(BG), 청자(PB), 적자(RP), 주황(YR), 황록(GY)과 무채색(N)을 추가.
명 도	V ₁ ~V ₉ 의 10의 단계로 표시.
채 도	저채도 색상에 대한 색상 및 채도 판단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2, 1/3, ... 1/4의 14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편의상 C ₁ , C ₂ , C ₃ , C ₄ ... C ₁₄ 로 표시하였다.

[표 5-1] 色彩 現況 分析의 基準



[그림 5-1] 建築物 外部色彩 計劃過程의 모델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왔다. 건축물의 형태설계에 비하여 외부색채는 4장에서 언급한 계획과정상의 문제에 기인하여 전시대적인 예술적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4장에서 언급한 주요문제들의 해결을 전제로 하고 색채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 사이의 관련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정의 모델을 설정하고자 한다.

1.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정 모델설정.

건축설계과정에서 건축물 외부색채가 갖는 이미지는 건축물의 형태에 비하여 설계자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설계과정을 거쳐 건축물의 형태·입면 등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外裝材料가 선정되면서 외부색채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지만 실시설계에 이르러 공사의 경제성, 재료의 시공방법 등에 의한 색채의 변경 가능성이 높다. 이와같이 외부색채는 건축물의 형태에 비하여 비합리적으로 계획되는 것은 도시가로경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외부색채도 건축설계과정에서 건축물의 형태와 같이 합리적으로 접근되어야하므로 4장에서 전술한 외부색채 계획과정의 요소들 사이에 체계적인 질서를 부여하여 그림 5.1과 같은 모델을 설정하였다.

2. 計劃目標와 基準의 設定

계획과정에 있어서 계획의 기준은 설정된 目標指向의 意思決定의 중요한 要因이 된다. 도시가로공간에 있어서 건축물 외부색채계획의 목표는 건축물의 아이덴티티와 가로경관의 연속성이라고 하였다. 아이덴티티는 원래의 개념대로 주위의 다른 건물들과 구별되는 독창성 건축물 자체의 기능 및 용도와 관련된 상징성을 의미하며, 연속성은 가로경관의 시각적 통일성과 그것에 따른 확실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사이의 관련성은 각 건축물의 지나친 아이덴티티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가로경관의 시각적 혼란을 관찰자의 공간적 이동에 따른 연속성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연속성은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제한적 관련성을 갖는다. 이와같은 계획기준은 계획목표에 따른 대안의 평가에 있어서 최적인을 찾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3. 現況分析

도시가로경관의 건축물 외부색채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나라 工業規格(KSA 0062-71)으로 제정되고 교육용(문교부 고시 제 312호)으로 선정된 먼셀의 표색(Munsell Renotation System)을 채택하였으며 색의 3속성에 따라서 표 5.1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대상지는 대구시 一次 循環線內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가로중 노후된 저층건물이 밀집되거나 도시의 기능적 측면에서 재개발이 요구되거나 고시된 가로는 제외하고 도시의 물리적 기능이 집중되면서 도시가로로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가로들을 선정하였다.

대구시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구시는 三國時代부터 정치·군사상의 요지로서 이 지방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고, 특히 조선시대 이후 영남지방의 사회문화·정치·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관료적 농업사회와 유교적 가족제도의 영향으로 強直性과 眞實性의 의식이 내재되어 있고 보수·권위·형식·배타적 폐쇄주의 등의 의식이 두드러진다. 대구시의 발전과정은 일제식민지하에서 가로망, 토지구획

용도	가로표본		중양로		동신로		서신로		합 계	
	표본수	%	표본수	%	표본수	%	표본수	%	표본수	%
사무건물	4	9.8	7	16.3	10	23.3	21	16.5		
상업건물	17	41.5	5	11.6	7	16.3	29	22.8		
의 원	11	26.8	24	55.8	21	48.8	56	44.1		
은 행	6	14.6	2	4.7	3	7.0	11	8.7		
호 텔	1	14.6	·	·	2	4.6	3	2.4		
극 장	2	4.9	1	2.3	·	·	3	2.4		
기 타	·	·	4	9.3	·	·	4	3.1		
합 계	41		43		43		127			

[표5-2] 대상 건축물의 가로별, 용도별 표본수

가 로 별	색상빈도순위	평 도					재 도			특 성	
		1	2	3	4	5	적	중	고		
중양로	주조색	Y	N	R	G	B					· 난색계와 무색계의 빈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보조색	N	Y	R	YR	G					
	액센트색	N	RP	BG	Y	YR	R				
동신로	주조색	Y	YR	N	R	G					· 주조색의 난색계열과 보조, 액센트색의 무색계열의 분포가 두드러진다.
	보조색	N	Y	YR	R	RP					
	액센트색	N	G	R	YR						
서신로	주조색	YR	N	Y	R	G					· 주조·보조색 배열의 유사성을 나타내며 한색계(C)의 분포를 나타낸다.
	보조색	YR	N	R	Y	G					
	액센트색	R	N	YR							

[표5-3] 街路別 頻度分布結果

수용인구 등의 물리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시행되어졌으며, 해방후 영남지방의 행정·문화·교육·경제의 중심지로서 1965년 건설부 고시 1078호에 의하여 7개의 방사선 가로 3개의 순환가로를 설치하는 가로계획을 비롯한 근대적인 도시계획이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현재의 중앙로를 중심으로 시가지를 남북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1969년 개정비 계획으로 인하여 중구를 중심으로 시가지를 동서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상가로의 선정은 대구시의 C.B.D 를 둘러싼 一次循環線을 '田'字形으로 가로지르는 가로로서 東新路 西新路 中央路를 선정하였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그림 5.2 참조)

○東新路 : 대상가로의 구간은 미도빌딩에서 중앙 주유소까지의 6차선 가로이며, 가로변에는 주로 3~5층 정도의 건물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西新路 : 대상구간은 로얄호텔에서 금호호텔까지이며 대상가로중 고층건물이 가장 많은 가로이다. 東新路와 거의 직선으로 연결되며 가로의 중간부분에는 비교적 저층건물이 밀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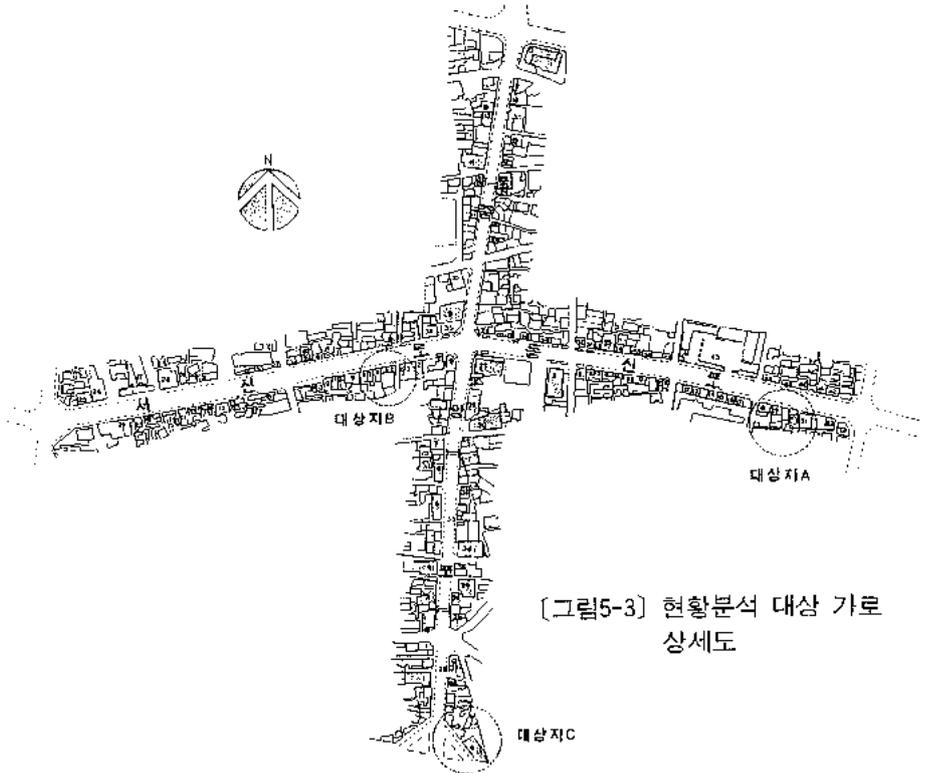
○中央路 : 대구시의 남북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4차선으로 도심가로로서 매우 협소하다. 東·西新路와의 교차점에 고층건물이 있고 그 북쪽으로 노후된 저층건물이 밀집되어 있다.

이상의 3개 대상가로에 있어서 소규모 2층이하의 노후된 건축물을 제외하되 2층이하일지라도 그 높이가 높거나 가로에 접한 前面길이가 긴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그림 5.3 표 5.2참조). 대상건축물을 가로별로 분류하고 건축물의 용도별로 분류하여 색채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재료에 대한 색채현황 분석 및 기존 건축물 외부색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대상건축물의 외부색채에 대한 특색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태양광선의 간섭을 받지 않는 맑은 날에 하고 KSA 0065 표면색 비교방법을 기준으로 육안으로 외부색채를 관측하고 현장에서 색표본을 작성한 다음 맨셀 표색계와 비교하여 동일



[그림5-2] 연구 대상 가로의 안내도



[그림5-3] 현황분석 대상 가로 상세도

또는 유사한 색채를 분류하였다. 동일한 건물에 2개 이상의 색채에 이상이 사용되었을 경우 主調色, 補調色, 액센트색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건물의 정면과 시야가 트인 측면을 합한 외벽면의 면적을 100%로 보고 ○主調色 : 40% 이상 면적비

○補調色 : 10~40%의 면적비
○액센트 색 : 10% 미만의 면적비를 가진 색으로 主·補調色 중의 하나 또는 둘과 명도차, 채도차를 합하여 4이상인 색($\Delta v > 3, \Delta C > 3, \Delta v + \Delta c > 4$), 색상차에 관계없이 명·채도차가 크면 액센트색이 될 수 있고

용도별	색상빈도순위					빈도					비율									
	1	2	3	4	5	1	2	3	4	5										
사무	주조색	Y	YR	N	R	G														주조색 보조색의 빈도가 높고, 보조색의 색도가 저, 중색도에 현중.
	보조색	YR	N	Y	G	RP														액센트색의 중, 고명도까지, 보조색의 분포 비율이 높다.
	액센트색	N	R	Y	YR	RP														
상업	주조색	Y	N	YR	G	R														주조색의 명, 채도는 전체적인 경향과 동일하다.
	보조색	YR	N	Y	G	PB														보조색, 액센트색의 차명도 비율이 높다.
	액센트색	N	G	NR	R	Y														
학원	주조색	Y	YR	N	G	RP														주조색의 명, 채도는 전체적인 경향과 동일하다.
	보조색	N	YR	R	Y	PB														액센트색의 저명도 비율이 상당히 높다.
	액센트색	N	Y	G	R	YR														
주택	주조색	Y	N	NR	R	G														주조색의 명, 채도는 전체적인 경향과 동일하다.
	보조색	N	GY	Y	BG	YR														보조색의 중, 저명도 비율이 높고, 액센트색의 분포 비율이 고르다.
	액센트색	R	YR	N	G	BG														
호텔	주조색	Y	R	YR	GY	N														보조색, 액센트색의 중용가 한정적이다.
	보조색	Y	R	YR																보조색은 고명도, 저채도의 비율이 액센트색은 저명도, 저채도의 비율이 매우 높다.
	액센트색	R	YR	N																
극장	주조색	Y	G	N																색채의 사용이 극히 한정적이다.
	보조색																			
	액센트색																			
기타	주조색	Y	N	R	G	BG														주조색의 명, 채도는 전체적인 경향과 동일하다.
	보조색	N	R	YR	Y	BG														보조색의 저명도, 저채도의 비율이 높다.
	액센트색	G	N	R	YR															

[표5-4] 용도별 頻度分布 分析結果

재료명	빈도						계	
	주조색		보조색		액센트색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MA (대리석, 석재)	8	5.8	27	26.7	34	46	69	22
G (유리)	6	4.4	28	27.7	2	2.7	36	11.5
WP (수성페인트)	28	20.3	7	6.9	8	10.8	43	13.7
CT (분타일)	9	6.5	6	5.9	4	5.4	19	6.1
T (외장티일)	73	52.9	14	13.9	8	10.8	95	30.4
BR (벽돌)	4	2.9	6	5.9	6	8.1	16	5.1
GR (화강석)	1	0.7	4	4	0	0	5	1.6
STS (스테인리스스틸)	1	0.7	0	0	10	13.5	11	3.5
AL (알루미늄)	3	2.2	5	5	0	0	8	2.6
기타	5	3.6	4	4	2	2.7	11	3.5
계	138	100%	101	100%	74	100%	313	100%

[표5-5] 대상건축물 색채의 재료별 구성

순 위	등신로		서신로		중앙로	
	건물번호	빈도	건물번호	빈도	건물번호	빈도
1	18	107	26	100	17	103
2	21	50	24	85	32	53
3	13	35	22	66	41	43
4	31	35	32	40	8	40
5	1	35	35	35	9	27

[표5-6] 建築物 全體의 이미지에 대한 選好度 調査 結果

가로명/순위	건물번호	빈도	주조색	보조색	액센트색
동신로	1	31	90	5YR 6/8	
	2	5	55	5YR 8/4	5R 4/10
	3	21	50	5YR 8/4	
	4	18	35	10R 2/8	10YR 2/8
	5	38	30	N9	5R 2/8
서신로	1	24	98	5YR 6/10	10R 2/8
	2	26	67	5Y 8/7	5Y 7/5
	3	22	47	N9	N3
	4	32	45	10YR 8/5	5R 2/8
	5	3	34	5GY 8/7	10YR 7/7
중앙로	1	17	92	10YR 8/3	N9
	2	32	62	N9	N5
	3	41	54	10R 7/4	5R 2/8
	4	8	30	N7	
	5	27	29	5R 2/8	10R 2/8

[표5-7] 建築物 外形色彩에 대한 選好度 調査 結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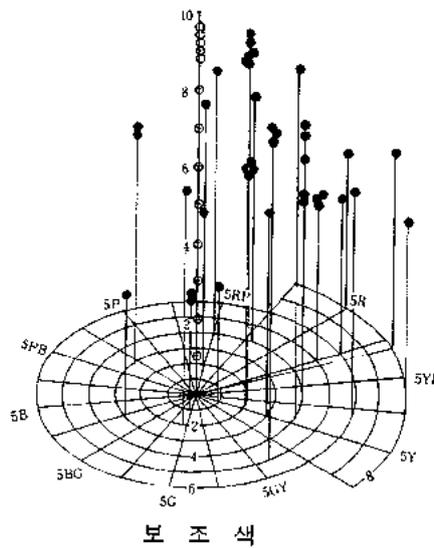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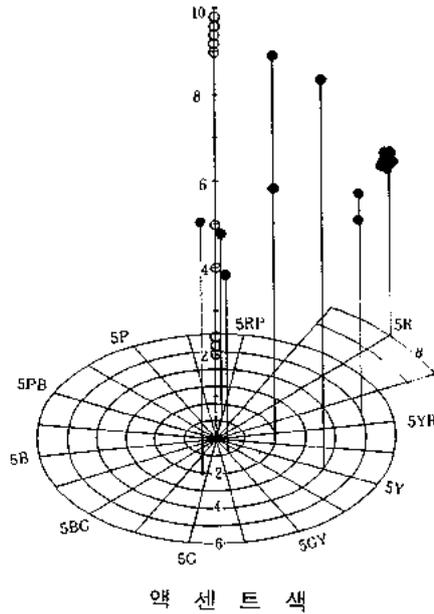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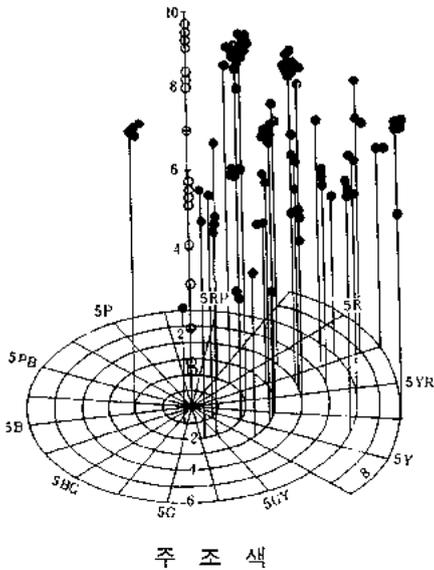
작으면 되지 않는다.

면적비가 10%미만 이면서 명·채도차가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同和色이라고 하여 배색효과에 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측색에서 제외하였다. 동일한 건물에서 면적비가 비슷한 경우 2개 이상의 주조·보조·액센트 색이 나올 수도 있으며 면적비는 정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 외장색의 인상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점검하였다. 또한 측색을 위한 색지견본의 면적크기와 건축물에 채색된 면적의 크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면적이 클 경우 채도가 저하되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다.

1) 全體의 分析結果

대상가로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그림 5-4) 對象街路 전체에 대한 면색공간分布圖

면색공간 분포도에 주조·보조·액센트 색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그림 5.4참조).

주조색의 경우 색상은 무채색과 R, YR, Y 계열이 주조를 이루고 G, GY 계열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명도는 고명도, 채도는 저채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무채색의 경우는 고명도가 절대적이다. 보조색은 일반적으로 주조색의 분포와 비슷하지만 색상의 종류가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액센트 색은 그 빈도가 많지 않아서 일반화 하기는 어려우나 주·보조색과는 달리 고채도의 비율이 높고 저명도의 색채가 드물게 사용되었다.

2) 街路別 分析結果

색의 3속성에 따른 가로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用途別 分析結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4 용도별 빈도분석 결과

4) 材料別 分析

건축물의 색채는 일반적으로 형태와 재료에 종속된다. 心理學에서는 시각대상에 대한 시인성 등에 있어서 색채는 형태보다 우선하거나 대등하다고 하지만 건축설계에 있어서는 공간의 형태를 결정하고 재료와 색채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의 외장에 있어서 재료의 색채는 재료의

광택·질감·모양과 패턴 등과 함께 고려되어지는 것으로 설계자는 경우에 따라서 자연 또는 인공재료를 사용하는데 자연재료는 색채가 한정되어 있고 인공색채는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대상 건축물의 외장재료별 색채현황은 다음과 같다.

5) 建築物 外部色彩에 대한 選好度 調査

이상과 같은 건축물 외부색채에 대한 현황분석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대상가로에 주거하는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대상가로변의 기존 건축물 외부색채에 대한 設問調査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그 결과를 현황분석에 근거한 使用色彩 範圍의 타당성 검증으로 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도시가로 환경과 건축물 및 그 외부색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였다.

○도시가로의 환경적 요소 가운데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건축물의 형태 외부색채, 기타 시설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대상가로변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 느낌과 다른 가로시설물에 대한 느낌을 美的 측면의 긍정·보통·부정으로 질문하였다.

○대상가로변 건축물에 있어서 전체적 이미지를 선호하는 건축물과 외부색채를 선호하는 건축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가로의 환경적 요소 가운데 건축물의 형태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부색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환경색채의 개념이 오래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건축물 외관 및 가로시설물에 대한 느낌은 공통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건축물의 전체적 이미지에 대한 선호와 외부색채에 대한 선호가 동일한 건축물에 일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호하는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중고명도의 무채색과 R, YR 계열의 유채색으로 나타났다(표 5.6, 5.7참조)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외부 색채계획의 모델을 설정하고 그것을 전개하기 위한 실험적 자료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된 모델에 따라서 사용색채의 범위를 설정하고 색채계획의 대안을 만들고자 한다.



토오쿄오의 소규모 상업건축 Small Commercial Buildings in Tokyo

1. 일본 · 토오쿄오 · 소규모 건축물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슈마하는 말했지만, 소규모 건축물을 작다는 측면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것이 도시라는 총체를 이루는 구성인자라는 점에서 그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은 대규모 건축물에 비해 건축가의 가치관과 사상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쉽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하고 개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80년대에 돌이와 국내 소규모 건축물의 형태적 다양성과 개성화 현상은 괄목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공간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심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자인해야 할 것이다.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설계상의 요구—임대면적의 최대화, 주차장 등 건축법규의 문제 기능의 효율화와 형태적 개성화, 공간적 구성의 변화, 경제성, 건축주의 입장반영이라는 제 문제들—가 최소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건축가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며 아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국내현실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국내상황에서도 약전고투한 결과물을 우리는 서울 거리에서 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일본에서 소규모 건축물은 비록 그것이 소규모이긴 하지만, 건축가의 역량과 철학을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임을 깨달은 많은 건축가들이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에 혼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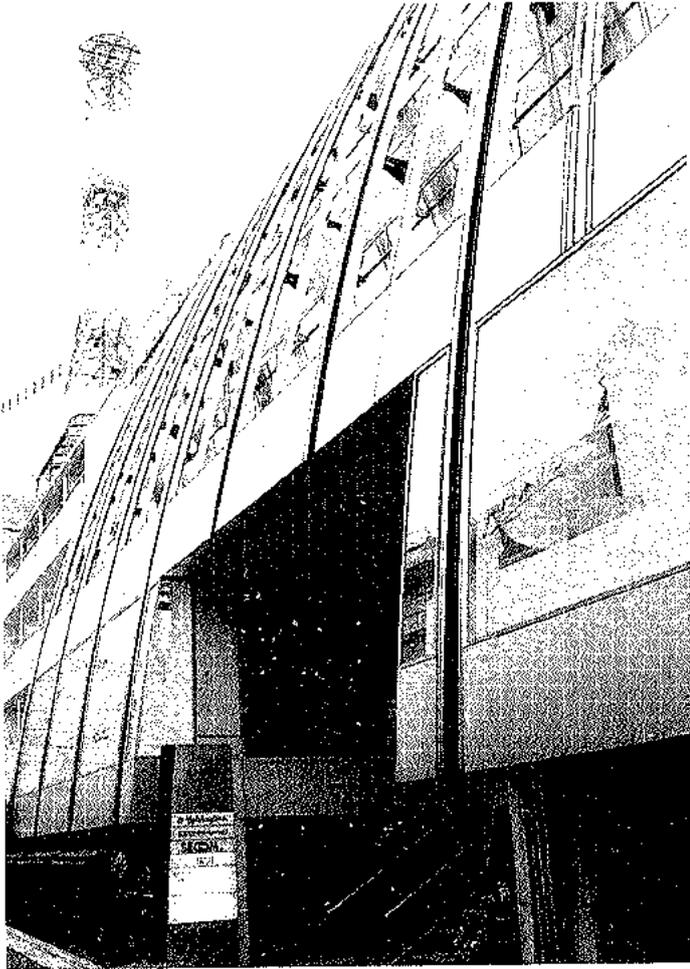
그러나 현실의 도시는 현재 극히
다이나믹하게 생성된다. 하나 하나의
세포는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려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총체로서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려고 한다.

— 마쯔나가 야스미쯔(松永 安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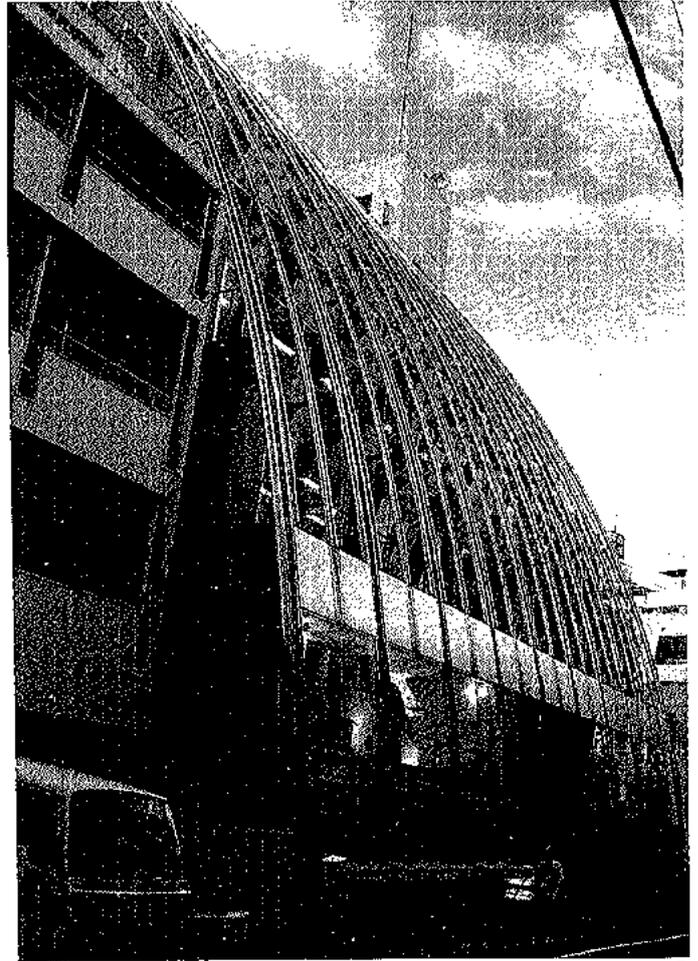
金文德

동양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교수

by, Kim Moon-Duck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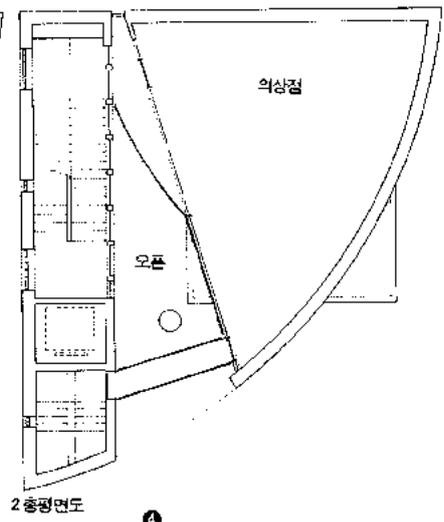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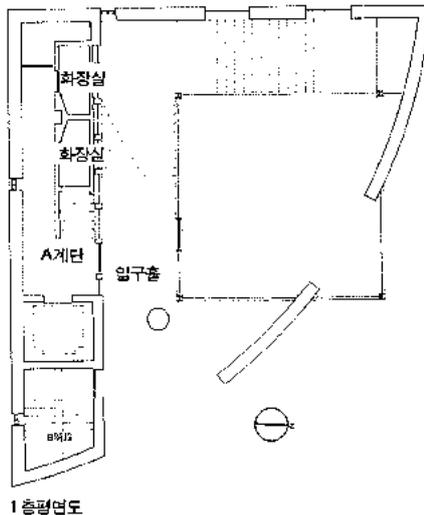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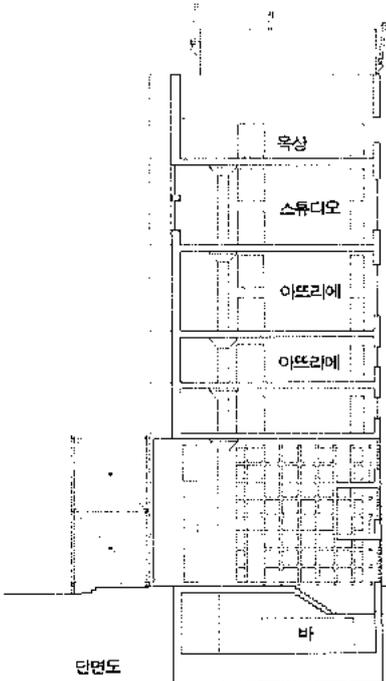


3

- ① 측면에서 본 라이베스트 아오아마 빌딩
- ② 입구부분
1,2층은 투명피막으로 3층어상은 투과된 구조로 되어있다.

- ③ 사선제한을 2차곡면의 이미지로 형상화시킨 라이베스트 아오아마 H형강을 적색으로 마감하여 2차곡면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단면 및 평면도





노력을 경주한 사례를 많이 보게 되었다.
 도쿄도에서 조우한 다카마쓰 신(高松伸) 설계의 워크(Week : 1984~86)를 비롯한 일련의 건축물군과 오사카 미나미에 산재한 안도 다나오(安藤忠雄)의 건축물군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도쿄도에서도 몇 개의 인상적인 소규모 건축물들을 조우할 수 있었다.

시부야(渋谷)에 위치한 사카꾸라(坂倉)건축연구소 동경사부국설계의 라이브스트 아오야마(Livest 青山 : 1989)와 고미야마 아끼라(小宮山 昭)+유니테설계·계획의 리·엠(RE / M: 1988) 그리고 마나토구(港区)에 위치한 다케야마 기요시 세이(竹山 聖)+아몰프설계의 OXY 노기자카(及木坂 : 1987)를 거론하고 싶다.

도쿄도에서 중소규모 건축물의 다양한 상황은 이미 필자의 "일본 현대건축과 해체적 경향"(90년 6월)이란 어 연재의 일부에서도 그 단편을 접했겠지만, 한마디로 국내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소개할 건축물들은 해체와는 또 다른 다양성의 징후를 표출하는 건축물로 일본 소규모 건축물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줄 것이다.

일본에서 소규모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은 국내와 그 상황이 비슷한 점도 또 다른 점도 있겠지만, 건축가 마쓰바라 쭈사쿠(松原 充策)의 소규모 건축물 설계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한 충고는 일본의 상황을 더 명확히 알려줄 것이다.

그는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는 법규와의 투쟁이다. •법규상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면적을 취하라. •디자인은 사선제한에 굴복해서는 않된다. •디테일의 질은 건물의 질을 결정한다. •석재 금속의 줄눈은 가늘게 한다. •개구부-배연창의 위치선정에 주의하라. •유리의 연속성을 고집하라. •외장재로서 반사유리의 가능성을 주목하라. •인테리어 디자인을 소홀히 해서는 않된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클수록 좋다. •유일한 수직공간인 계단디자인에 주력하라. •화장실의 질은 그 건물의 이미지를 높인다." 여기서 열거한 항목들을 보면, 비록 제한된 경우마다에 대한 충고와 조언이고 절대적일 수 없는

말들이지만 국내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된다.

비록 일본의 경우도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훨씬 호조건이지만 역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겪는 것같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2. 라이브스트 아오야마 (LIVEST 青山)

아오야마와 하라주쿠(原宿)는 토오요오에서도 유명한 패션의 거리이다. 하라주쿠가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의 패션 쇼핑가라면 아오야마는 유행을 따르면서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성인들의 거리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세 건축물은 아오야마를 중심으로 반경 1km내에 위치하고 있다.

즉 보다 소프트한 셀터의 역할을 하는 의상의 유행일번지에 위치한 이 건물들은 하드한 셀터의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란 측면에서 아오야마근처에서 위치해 있는 것만으로도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건축물이란 역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라이베스트 아오야마는 시부야지하철역에서 동측으로 500m쯤 떨어진 아오야마대학 근처의 근린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도로에 의한 사선 제한때문에 건물들이 대부분 셋백한 구성을 취하고 있고 특히 이 점포와 사무실기능의 6층건물인 라이브스트 아오야마는 이 법적 제한인 사선 제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즉 도로의 사선 제한은 이 건축물의 형태, 구조, 표현에 용해되어 마치 사선 제한과는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계획된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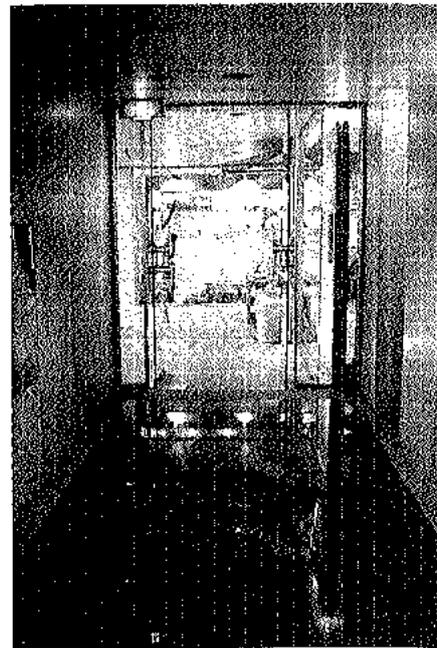
사선 제한에 의한 2차곡면의 이미지가 이 건축물의 디자인에 집중되어 125mm 두께를 지닌 피막이 1·2층 점포부분에서는 스텐레스 바이브레이션 마감

관벌+새시+곡면유리의 투명한 피막으로, 3층이상의 사무소 부분에서는 스텐레스 헤어라인 마감의

원형파이프+편칭메탈+각파이프에 의한 띠가 연속되어 투과된 피막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2차곡면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피막을 지지시키는 H형강에 선명하게 인지되는 적색도료로 마감하고 있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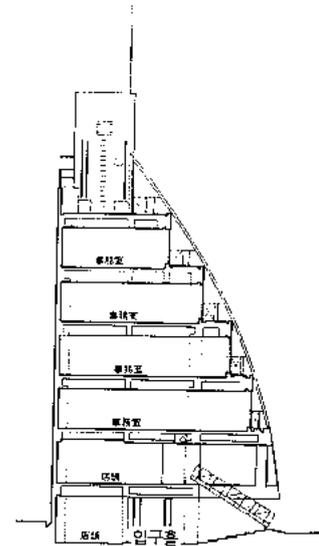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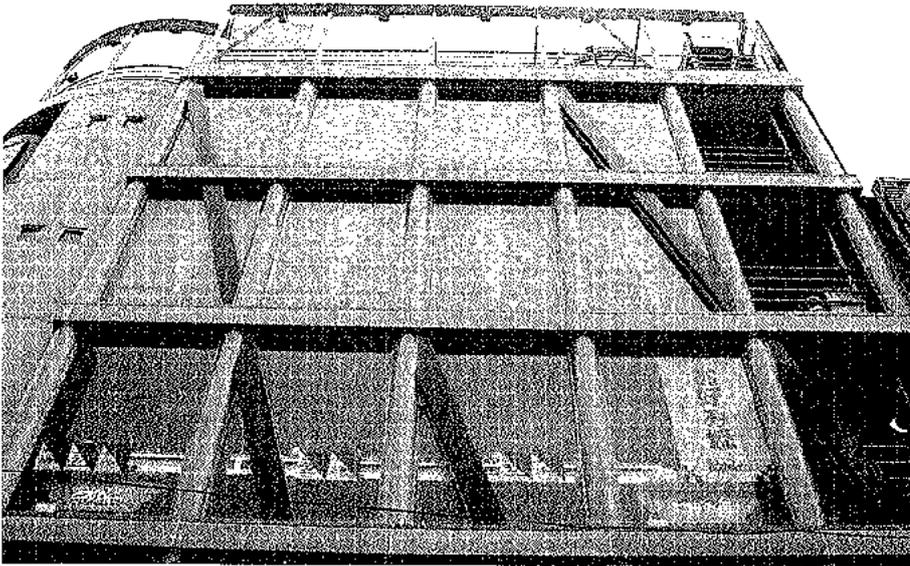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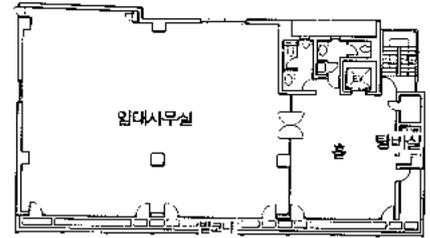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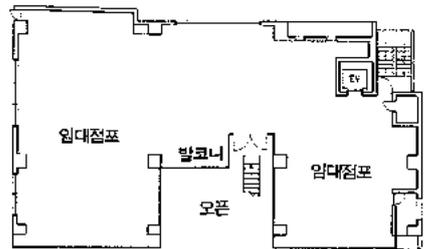
- ⑤ 1,2층을 스킵후로어로 구성, 2층은 외부계단으로 진입할 수 있게 처리하고 있다.
- ⑥ 건물의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시킨 입간판
- ⑦ 쇼윈도 부분
- ⑧ 엘리베이터홀에서 바라본 쇼윈도
- ⑨ 엘리베이터홀에서 바라본 외부 스킵후로어로 진입하는 형식이 보이고 손잡이도 건물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형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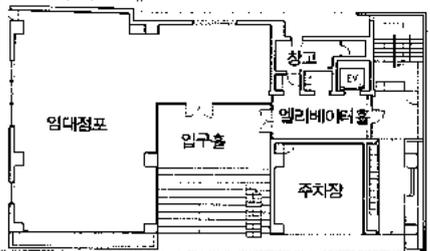
단면도



3층평면도



2층평면



1층평면

그러나 2차곡면 형태를 지닌 이 건축물은 형태상으로는 나름대로 해결되었지만 기능과 임대면적비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쩔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계단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샤프트 등 코어를 사선제한에서 최대한 영향을 적게 받는 후면에 위치시켰고 단면에서는 1층과 2층점포의 접근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스킨후로어 형식으로 구성, 2층을 외부계단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상업공간에서 2층부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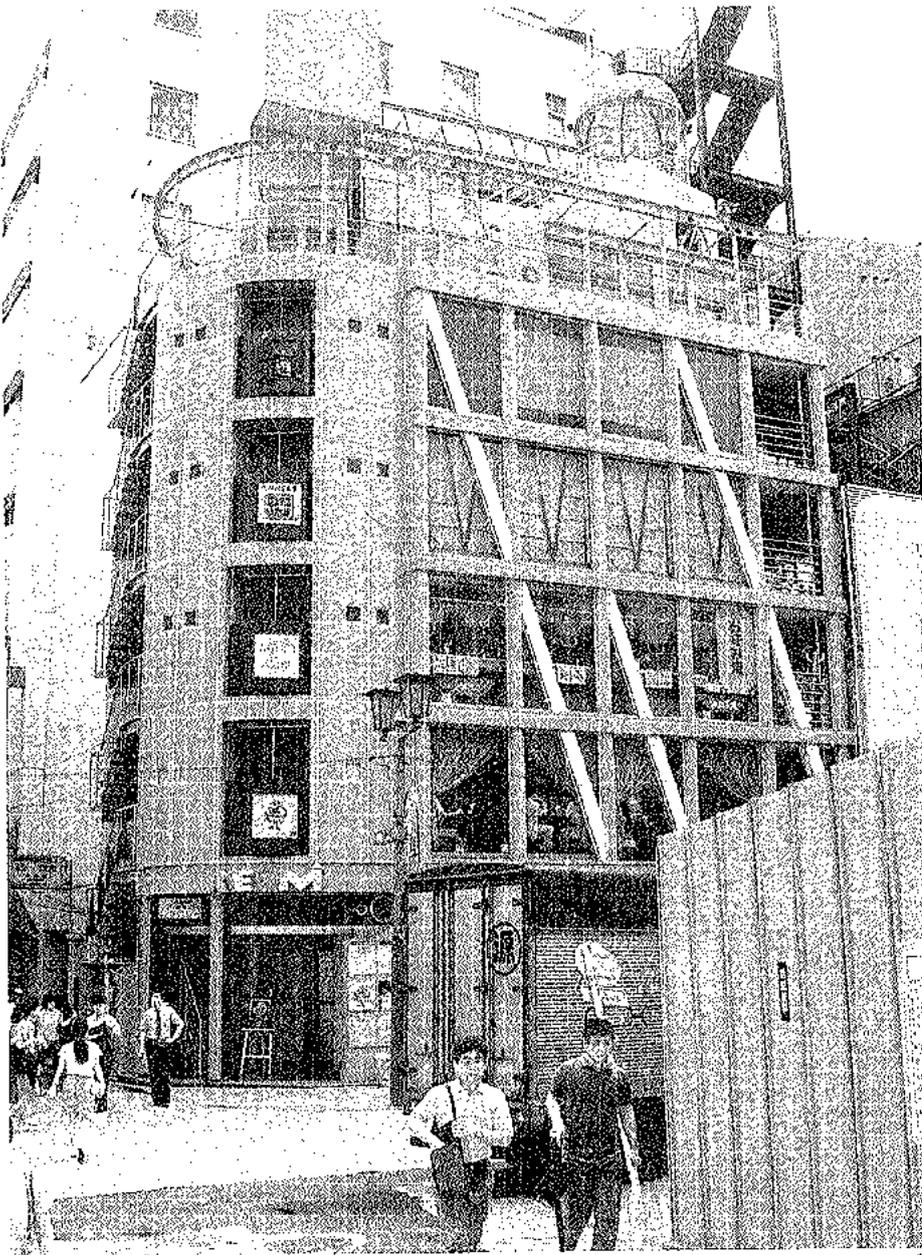
외부계단이나 심지어는 에스카레이터로 접근시키는 방법은 일본의 경우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리한 칼처럼 도시적 차가움을 표현하고 있는 이 건축물은 이외수의 소설 “칼”의 한 귀절을 상기시킨다. “칼이 역사를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써 존재했던 시대를 보면 각 나라들마다 대표적인 형태의 칼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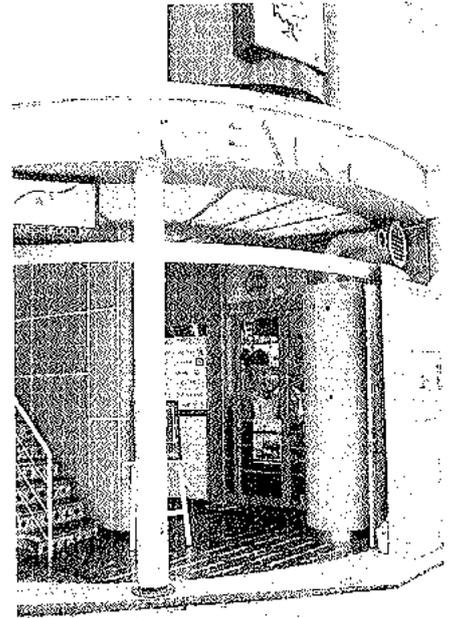
라이베스트 아오야마는 죽음의 미학으로 대표되는 사무라이의 칼처럼 혼돈된 도시공간속에서 햇빛이 예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첨연한다면 이 건축물에서의 연관된 형태적 표현은 주목할 만 하였다. 건물앞에 서있는 입간판, 강화유리문에 부착된 손잡이 등에 이르기까지 이 2차곡면의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국내의 경우 건물외형에서는 그럴듯 한데 실내공간이나 계단실의 핸드레일 등 디테일에 이르면 실망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한 것처럼 과연 민족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설계비나 설계기간 등 악조건이 문제인가? 여러가지로 생각해 하는 바가 많은 가운데



- ⑩ 리·엠빌딩의 상부
오렌지색으로 도색된 사산의 구조용
가새가 인상적이다.
외부는 내구성 강판 마감의 표면재료와
유리로 이루어져 있다.
- ⑪ 리·엠 하부에 위치한 카페 전경
- ⑫ 단면도 및 평면도
- ⑬ 건축이기보다는 장치로 계획하였다는
리·엠빌딩전경
- ⑭ 모서리 입구부분



RE/M으로 향했다.

3. 리·엠(RE/M)

리·엠은 시부야지하철역 서측
세이브(西武)백화점 근처에 위치한 지하2층
시상6층의 레스토랑, 카페 등으로 이루어진
상업건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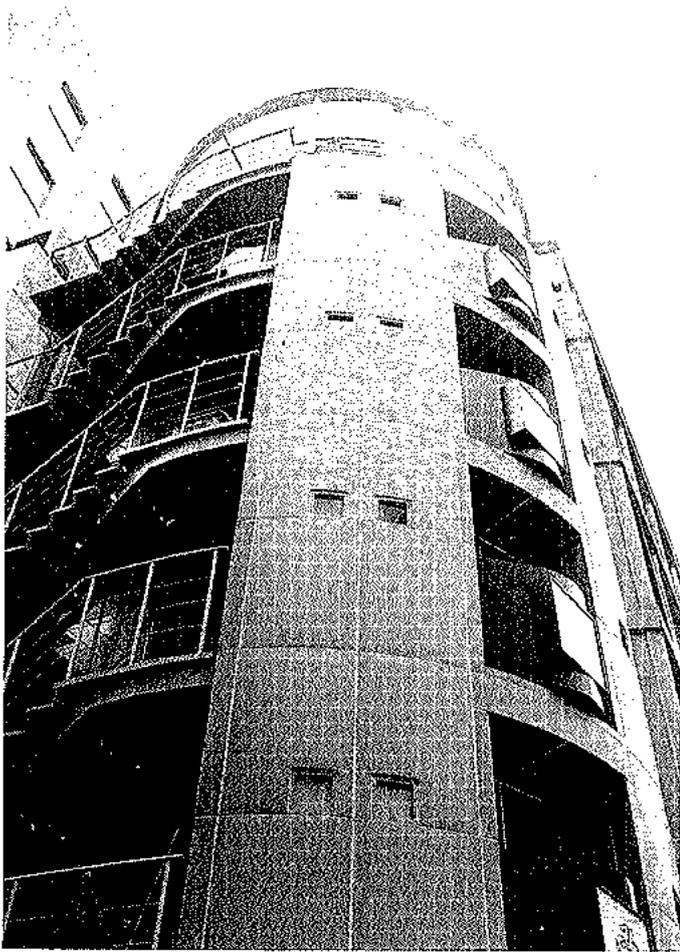
리·엠과 해계주의형 건축으로 소개하였던
라이즈(RISE)는 5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도겐자카(道玄坂)의 패션관계 건물인
시부야 109에 인접해 있다.

건축가 고미야마 아끼라는 이 리·엠을
“건축이기보다는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철제 골조와 재설비, 엘리베이터,
피난계단과 피난발코니 등 최소한 필요한
건축적 실체를 제외한다면, 남는 것은
유리와 금속의 피마, 위장된 금속주의적
생략 등으로 표현되는 콜라주된 도시에서
테콜라주(Decollage)된 건축—즉
박리(剝離)된 채로 봉인된 건축이라고 이
리·엠을 정의하고 있다.

이 리·엠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낮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약간은

하이테크한 분위기가 표출되는 내후성
강판마감의 표면과 의도적으로 노출시킨듯한
옥외계단 그리고 철골조를 사전으로
미스듯히 연결하는 오렌지색의 구조용 가새.
옥탑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냉각탑을 장치로 형상화한 돛형 정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비록 건축가가 도시의 복합적 요소를
부가시키는 콜라주적 방법이 아닌 오히려
부가된 껍질을 벗겨버리는 테콜라주적
방법을 취한 건축이라고 이 리·엠을
설명하고 있으나, 껍질을 박리시킨 상태



10



11

역시 외부를 막리시키면 뼈대와 혈관 등이 드러나 듯이 또 다른 복합적이고 혼성적 단면을 노출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극과 극은 통한다는, 즉 근대를 탈피하려는 포스트 모던의 장식적 양상과 근대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려는 하이테크의 설비와 구조를 장식적으로 노출시키는 양상은 비록 극과 극이지만, 현대적 복합성을 상징적으로 표출한다는 점에서는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리·엠을 통해서 드는 것이다.

“일본건축의 신경향”의 저자 보톤드 보그나(Botond Bogнар)가 AD지의 일본특집에서 “단편화된 풍경의 고고학”이란 논문을 발표했던 것처럼, 일본 그중에서도 토오쿄오의 소규모 건축물은 이 메트로 폴리스화된 도시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단편을 극대화시켜 표출하고 있는 느낌이다. 토오쿄오에 있어 소규모 건축물 상호간에는

이미 도시문맥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어떤 건축적 충격요법에 의해 시각적 돌출을 성취할 수 있는가만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점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소규모 건축물로 이루어진 도시는 유기성을 상실한 채 부정적 혼란함을 노출시키고 있고, 이 혼란스러움과 다양함으로 이루어진 개성이 일본 현대건축의 한 단면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 현상은 긍정적 시각으로 본다면 일본의 건축가 개개인들이 극히 개성적인 사고를 갖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면 이로 인해 도시공간의 유기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리·엠의 형태에 있어서 시각적 액센트로 작용하는 것중 하나가 오렌지색으로 도색된 사선구성의 가새이고 이 형태적 특징은 리·엠이라는 건물명의 영문(RE/M)에서도 시각화되고 있다.

해의 유명건축물들을 방문할 때마다 건축물의 형태나 평면 등을 로고나 심볼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그만큼 건축이 일상적으로 생활에 침투해있는 사실로 받아 들여졌다.

인간의 행위를 위한 무대장치로 계획하였다는 리·엠을 돌아보면서, 건축가의 설명이 머리에 떠올랐다. “유리와 보로 구성된 입면을 사진으로 횡단하는 오렌지색 구조가세는 데콜라주의 기울어진 흔적. 철골계단과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데콜라주의 상승하는 벡터. 옥탑의 금속망의 등은 데콜라주의 도달점의 화석”

4. OXY 노기자까(乃木坂)

아몰프(Amorphé)는 OXY 노기자까를 설계한 일본의 젊은 건축가들로 구성된 아프리에이다. “아몰프는 동료들이다.



17

교감의 장이다. 위계를 지나지 않는다. 고독한 사람이 아니다. 폐쇄되지 않는다. 형태가 아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다.”로 그들의 모임을 정의한 아몰프는 다케야마 기요시 세이가 주로 주재하지만, 기본입장은 말 그대로 무조직적이고 부정형적 태도를 지니는 젊은 그룹이다. 아몰프의 일원인 다케야마 세이 기요시나 에노모토 히로유키(榎本 弘之)는 각각 54년생과 55년생이다. 지금은 36, 35살이지만 도시주택 85년 7월호 특집 “파트너쉽의 가능성. 아몰프와 워크숍”에 등장할 때만해도 30살 전후였으며 그 당시 벌써 고카(古河)의 치과병원+주택이나 다카오(高尾)의 치과병원+주택 등의 건축물로 SD 리뷰에서 입상자로 거론되었다.

일본건축계의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할까? OXY 노기자카란 소규모 건축물을 거론하기 이전에 설계한 이 젊은 집단을 소개하는 것은 일본건축계의 잠재적인 에너지의 단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국내 건축계도 요즘 젊은 건축가들의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대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건축계의 경우 병역 등의 문제로 인해 일본보다는 늦게 건축계에 데뷔하는 것을 보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적으로 미숙한 젊은 건축가들이 어떻게 그 미숙함을 딛고



18

18 모서리 부분

우측에는 각 층의 기능을 명시하는 간판이, 좌측에는 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19 옥탑부의 기계실이나 냉각탑등을 전자로 형상화 시키는 모습

17 1층에 위치한 카페

18 세이브백화점 근처에 위치한 리·엠빌딩

19 외부계단과 2층 입구부분

외부계단은 철골로 이루어져 일부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표출한다.

소규모

건축물은 대규모

건축물과 비교 건축가의

가치관과 사상을 식별적으로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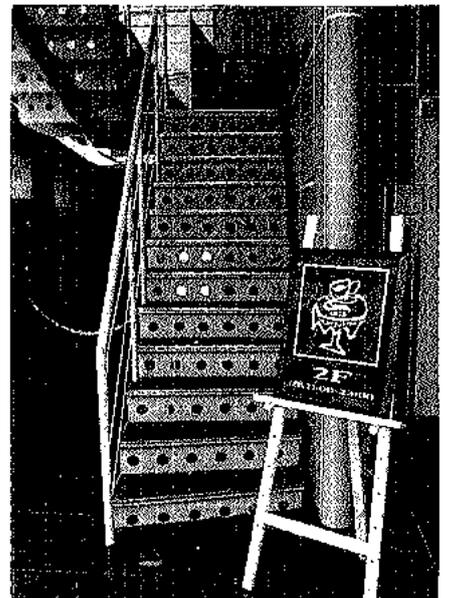
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하고

개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건축이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아몰프 그룹이 79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80년에 실시된 프로젝트를 하였다든 그들의 경력은 시사하는 바가 많고, 특히 85년에 잡지에서 본 작품들과 89년 오오사키에서 방문했던 D 호텔 오오사키(1987~1989) 사이에서는



19

좀 더 발전한 아몰프의 작업성과를 대할 수 있었다.

국내 젊은 건축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본론인 OXY 노기자카로 돌아가자. OXY 노기자카라는 국내에서도 잘 알려졌던 “신세대의 한국건축3인전”이 개최되었던 갤러리 마와 인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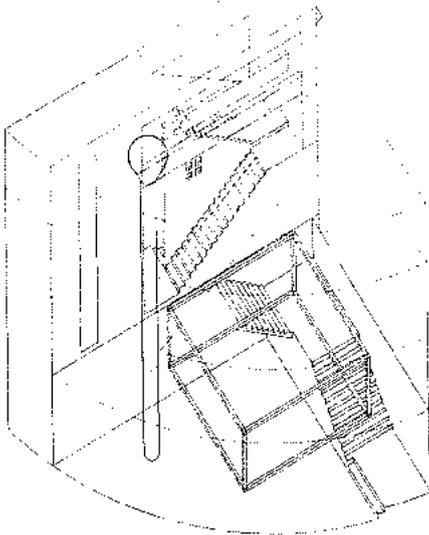
또한 갤러리 마에서는 89년 9~10월 “불연속도시-다케야마 세이 기요시와 동료들”이란 타이틀의 전시회도 개최되었기 때문에 더욱 두 건축물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비나또구의 노기자카에 위치한 카페. 의상점·아뜨리에 및 스튜디오로 구성된 지하1층, 지상8층의 이 소규모 건축물은 앞서 거론한 건축물들이 보다 수사적이고 과장적인데 비해 폐쇄적이고 침묵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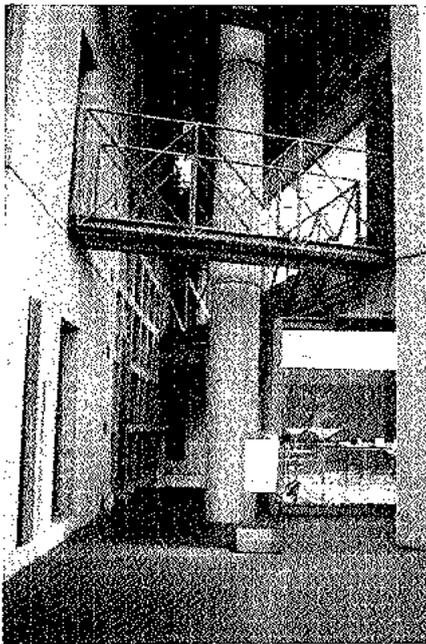
도시에 소규모 건축물이 기존 환경과 대응하는 방식에는 형태자체를 과장하면서 과시하는 개방적 접근방식과 문맥을 고려하며 기존 환경을 건축물 그 자체와 융해시키는 도시맥락적 접근방식, 도시의 불협화음적 구성에 폐쇄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체완결적 구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기자카빌딩 역시 오보제적 입장이긴 하나 브랑쿠시류의 폐쇄적이고 자체완결적 입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 건축물에서 느껴지는 것은 폐쇄적인 벽체로 구성된 건축영역이고 저층의 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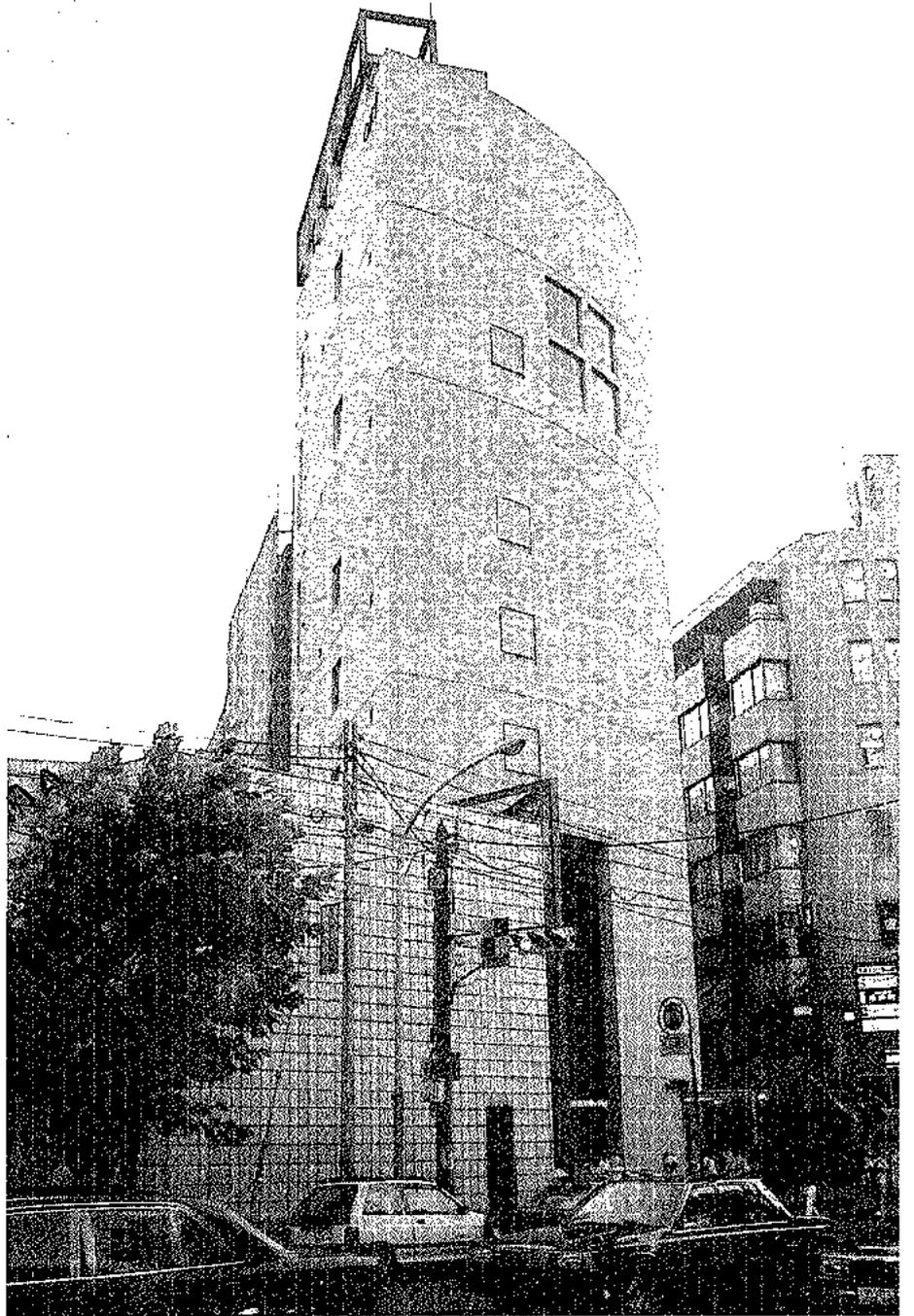


20



21

이런 건축물이 이루어진 도시는
유기성을 상실한 채 무분부적
순환성을 노출시키고 있고, 이
혼란스러움과 다양함으로 이루어진
개성이 일본 현대 건축의 한 단면으로
떠올라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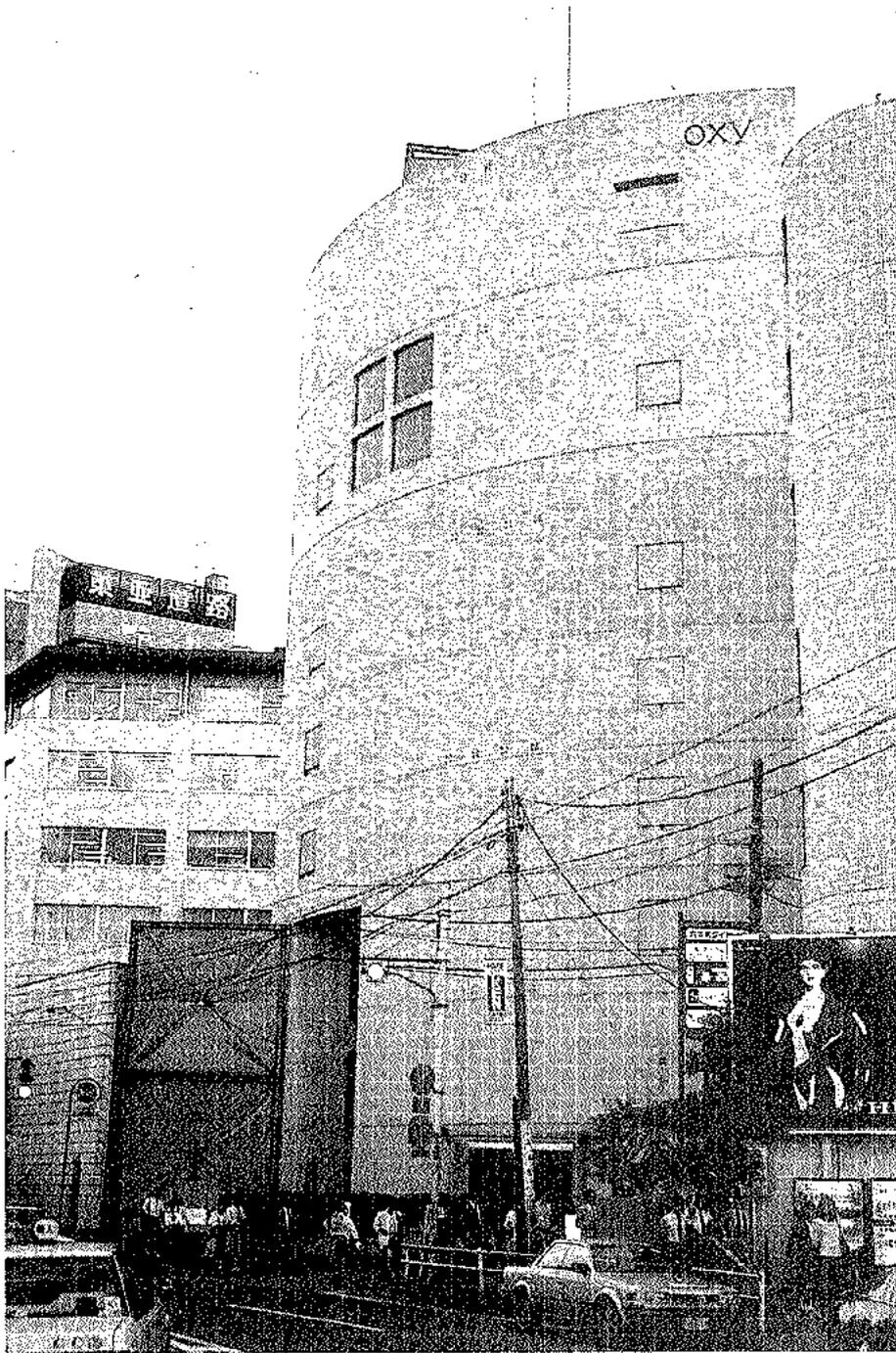
22

군데의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침묵적 입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젊은이들의 패쇄적 성향을 이
건축물이 표현하고 있다고나 할까? 또한
OXY 노기자카와 형태 및 구성에 있어
동일선상에 놓여있는 건축물이 D호텔
오오사카이며 건축가는 OXY 노기자카가
남자라면 D호텔 오오사카는 여자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노기자카는 남성의 패션점이고 정보의

발신지자이고 토요일요 거리의 결절점에
위치해 있다. D호텔 오오사카는 호텔이고
정보의 수신지자이고 오오사카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건축가는 말하고 있다. 그가
이 건축물을 설명하면서 특히 이탈리아
신합리주의 건축가 알도 로시(Aldo
Rossi)가 이 건축물의 현장과 완성된 상태를
보며 말한 것을 의도적으로 서술한 것을
보면, 건축가는 로시의 건축에 공감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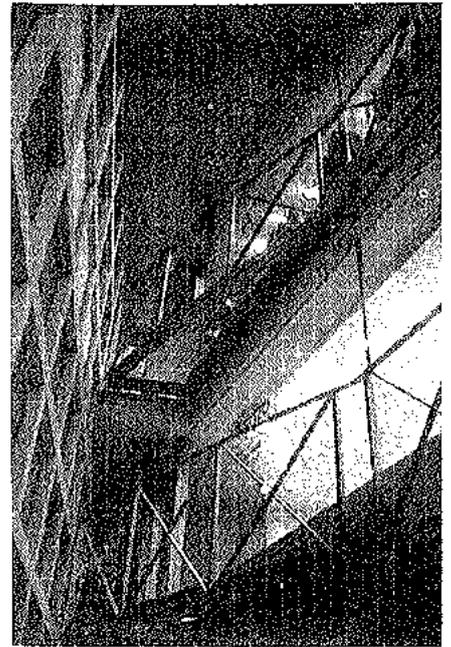
㉔ 동산개념 엑스노메트릭

㉕ OXY 노기자카 빌딩의 저층부 입구부분 입구홀에서 원형기둥이 실내로 유도하고 있었고, 우측에는 카페가 상부 오픈부에는 계단과 의상점이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다.

㉖ 갤러리와 인접해 있는 OXY 노기자카 빌딩

㉗ 정면에서 바라본 전경 노출콘크리트 마감의 곡면벽이 패시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㉘ 3층까지 오픈공간에 걸려있는 브릿지



주경과 침묵의 건축가 알도 로시는 일본의 젊은 건축가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그는 그 영향을 자기방식대로 해석하여 독자적 형식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평면을 노출콘크리트 마감의 미니만한 오브제적 살펴보면, 1/4원 구성의 평면에 코어부를 좌측으로 집약시킨 형을 취하고 있으며, 1층에서는 OXY 스페이스라는 카페의 정사각형 공간이 이 구성에서 돌출하여 변화를 부여하고 있다. 멀리서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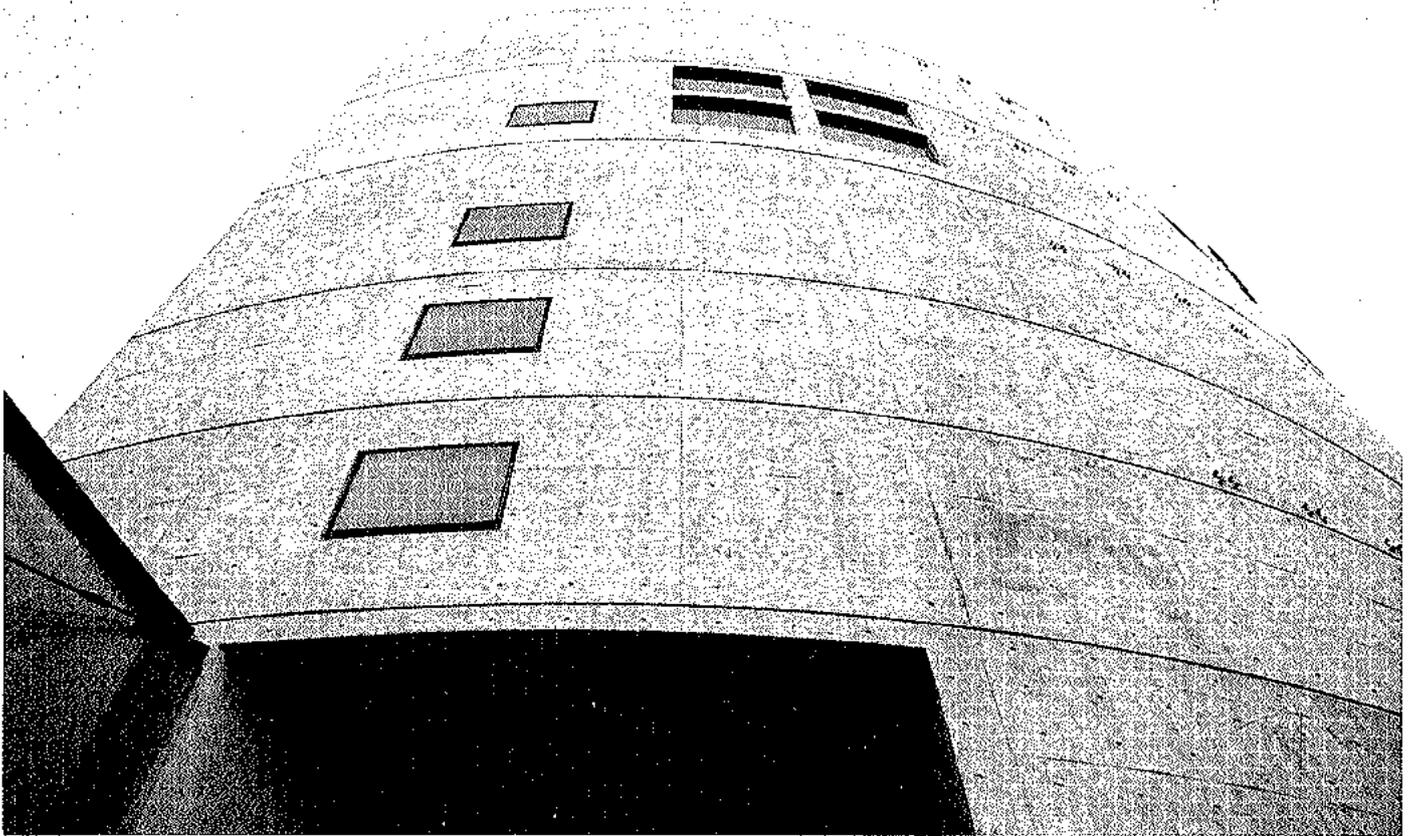
형태가 노기자카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서있고, 서서히 접근하면 곡선으로 이루어진 저층부의 벽체 일부가 절단되어 입구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입구부 좌측에는 철골로 구성된 대형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으며 우측에는 OXY 스페이스라는 카페가 곡면벽 사이로 일부 돌출해있다.

카페 바닥은 조명이 내장된 격자형 빛받 강화유리로 마감되어 마치 카페공간 자체가

부유하는 듯한 심비한 느낌을 부여하고 있었다.

입구홀로 접근하면 1~3층까지는 일부가 오픈되어 있고 2·3층에서는 계단과 의상점들이 오픈된 공간사이를 브릿지로 연결하여 접근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입구홀에 서있는 주두가 버섯형으로 이루어진 원형기둥은 입구로 유도시키는 시각적 장치와 구조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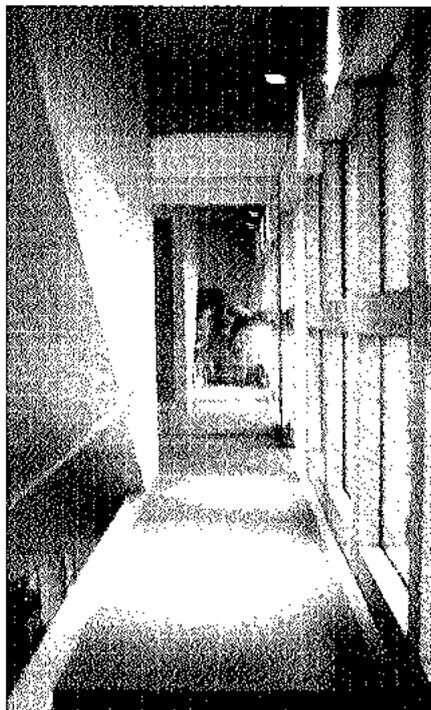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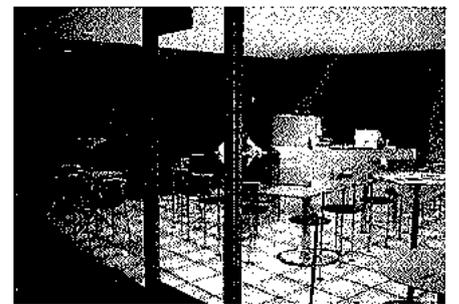
3층의 브릿지에 서있으면 비록 외형에서는 폐쇄적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변화감있는 공간을 체험시키려는 건축가의 의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

“건축이란 형태장치의 차원에서 공간장치로 성숙시킬때 만이 조각의 차원을 탈피할 수 있다.”고 건축가는 무언으로 필자에게 말하는 것만 같다.

이제부터는 소규모 건축물을 형태적 조각의 단계에서 공간적 조각의 단계로 발전시켜야 할 단계임을 인식하면서 차츰 어두움이 깔리는 토요일오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26



27

註)

1. “中小ビルの 設計動向”: 松原忠策 (新建築 1987. 10), p. 240~245.
2. “칼” 이외수(소설문학사, 1982), p. 323
3. “Amorphic Statement”: (都市住宅 1985. 7), p.16

25 아래에서 올라다 본 OXY 노기자카 빌딩의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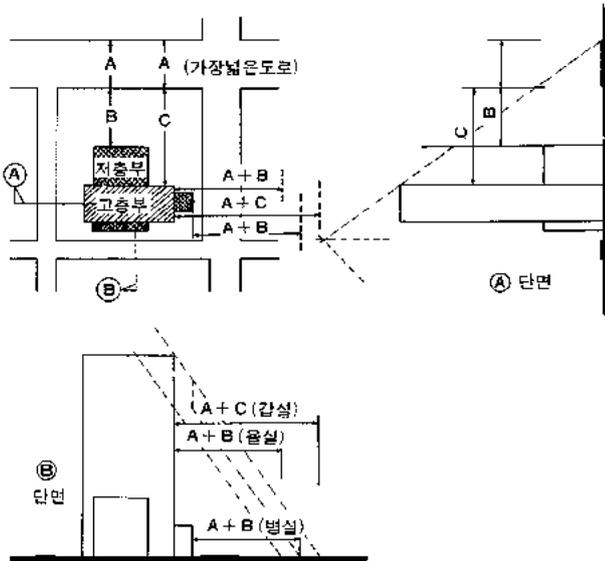
26 실내 복도에서 바라본 모습

27 바닥이 조명이 내장된 젯빛 강화유리로 마감되어 부유한 듯한 공간으로 구성된 1층카페

◎ 건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의 적용방법은?

□ 질의요지

단일건물이 다음과 같이 저층부와 고층부로 되어 있는 경우, 이면도로에 의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도로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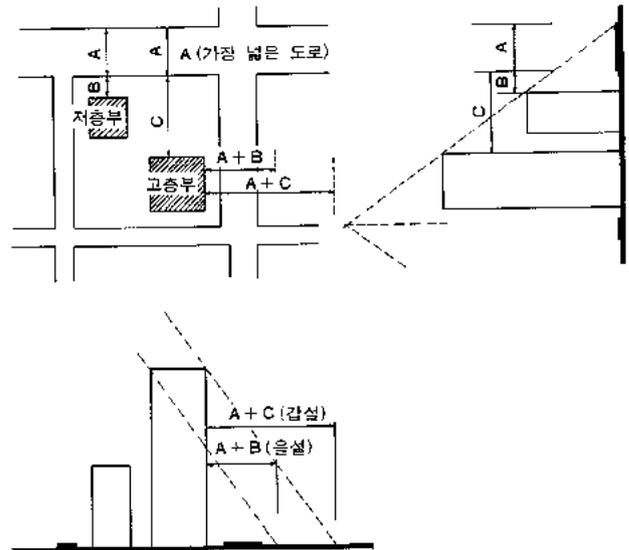
- 甲說 : 가장 넓은 A도로폭과 건축물이 후퇴한 고층부 C쪽을 합한 폭을 이면도로에 적용한다. (즉 이면도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폭은 "A+C")
- 乙說 : 가장 넓은 A도로폭과 건축물이 후퇴한 저층부 B쪽을 합한 폭을 이면도로에 적용한다. (즉 이면도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폭은 "A+B")
- 丙說 : 단일건물이더라도 고층부의 이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은 甲說과 같고 저층부의 사선제한은 乙說과 같이 별도로 해석한다.

□ 회신내용

고층부의 사선제한을 받는 이면도로의 폭은 건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넓은 도로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인 A+B(귀 질의의 乙說)임.

□ 질의요지

단일대지내에 다음과 같이 저층건물과 고층건물의 2동을 건축하는 경우, 이면도로에 의한 고층건물의 도로사선제한을 위한 도로폭은?



- 甲說 : 가장 넓은 A도로폭과 건축물이 후퇴한 고층부 C쪽을 합한 폭을 이면도로에 적용한다. (즉 이면도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폭은 "A+C")
- 乙說 : 가장 넓은 A도로폭과 건축물이 후퇴한 저층부 B쪽을 합한 폭을 이면도로에 적용한다. (즉 이면도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폭은 "A+B")

□ 회신내용

단일대지내에 고층부와 저층부의 2개의 건물이 있을 경우 사선제한을 받는 명확한 법령조항은 없으나, 도로사선제한의 법 취지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과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장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저층부와 고층부가 접치지 아니하고 저층부와 고층부 사이의 통로가 3이상일 경우 고층부의 사선제한은 A+C(귀 질의의 甲說)가 되며, 그렇지 않을 때는 A+B(귀 질의의 乙說)가 됨.

韓國 傳統家屋의 再照明

Review of the Traditional House



머릿말 - 述而不作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징적인 사실의 하나가 우리의 것을 올바르게 알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자는 움직임이다. 항상 오천년의 찬란한 전통을 앞세우고 문화민족임을 자랑하며 전세계인의 잔치인 올림픽까지 치룬 우리나라가 이제는 조용히 우리의 것에 대한 올바른 정리도 꼭 필요하리라고 본다.

지나간 것의 재정리는 우리의 현대생활 속에서 창작의 밑거름이 되고 그것을 조형의 기원으로 하여 현대건축이 이루어지고 후세들이 이것을 계승하여 그들이 살고있는 현재성을 발견하여 이어갈 것으로 볼 때 무한으로 이어지는 연결성이 곧 전통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명수단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로 되어지는 마당에 우리의 것만을 주장하는 것을 국수주의나 민족주의로 오인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자기나라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민족주의라고는 할 수 없으며 민족의 역사상황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당연한 상황이라면 민족이 없는 세계를 생각하는 이들의 존재도 또 다른 이유에서 나온 잘못된 사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건축을 이제 겨우 벗어난 정리를 하면서 점차 건축의 공간과 배경에 관한 실존적 파악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우리의 것을 재창조 할 수 있는 미학적, 발전적인 선도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실정이다.

우리가 우리의 건축역사에 관한 과거의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의 선조들이 건축에 관한한 별반의 자료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1차적인 자료의

李王基

국립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朴明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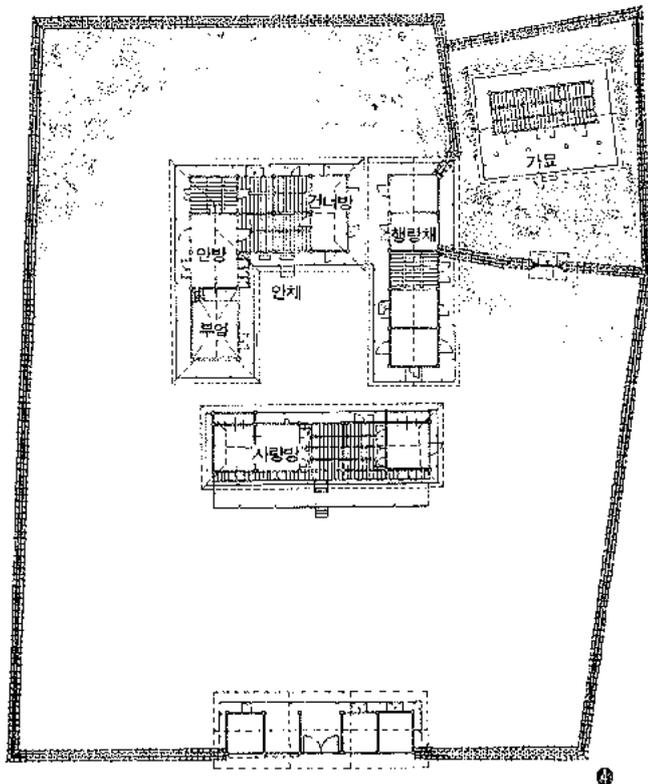
동양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by Lee, Wang-Kee &

Park, Myoung-Duck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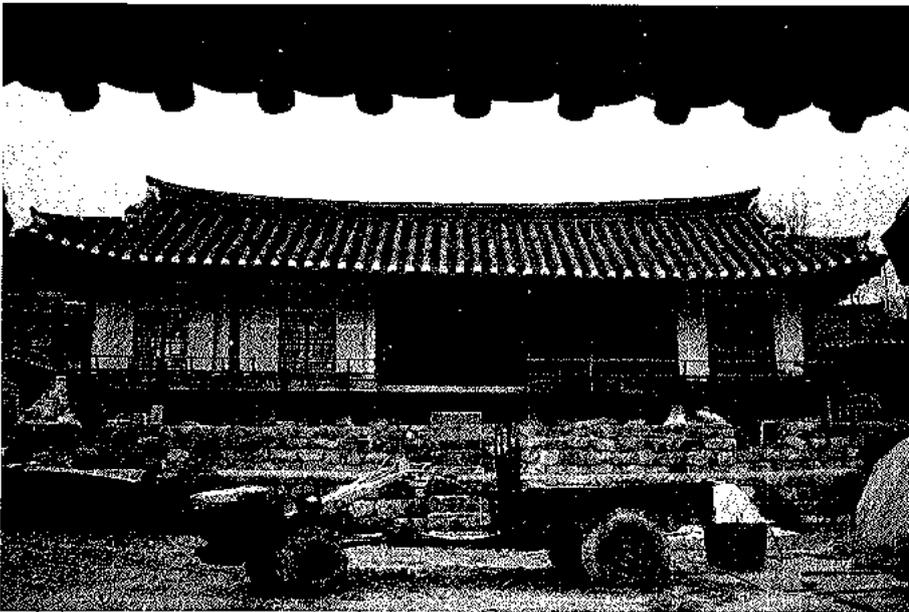
- ① 우복종가 전경
- ② 우산마을 전경
좌측부분이 종가이고 우측의
대산루 후면이 도존당이다.
- ③ 우복종가의 대문
- ④ 우복종가 평면도



6



6



7

빈곤과 일제이후 20세기초 몇몇 일본인의 보고서와 연구논문 또는 저작물등에서 읽을 수 있는 문화적 침략에 관한 것과 우리의 건축에 대한 왜곡의 문제이다.

민족사학자 臚 申采浩는 우리의 역사 왜곡에 관하여, 우리 민족사 왜곡의 역사는 벌리 金富軾의 삼국사기에 소급된다고 보고 그 원인을 역사의 기록만 있고 역사의 연구가 없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번개된 사료를 바로잡는 다섯가지 방법을 첫째가 類證이요 둘째가 互證, 셋째가 追證이요 넷째가 反證, 다섯째는 辨證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에 있어서의 상황은 우리의 선조들이 건축에 관한 연구는커녕 역사의 기록조차도 별반

남기지 않았다는 문제이다.

우리의 건축에 대한 관심은 18세기부터 실학사상을 가진 당시의 몇몇 선각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당시 중국의 문물을 지극히 숭상하고 무조건 도덕만을 강요하는 사상에 비판을 가하며 것처럼 도덕윤리적 생활실현에 전제가 된다고 보는 이용후생사상과 명나라에 대한 명분론을 버리고 청나라로부터 제반 선진생산기술을 도입하여 백성에게 도움을 주는자는 새로운 文運의 發興 그것은 곧 실학파들 특히 그중에서도 북학파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조선초기부터 그때까지의 모든 정치, 문화의 기본 이념이 되었던 도학은 본래의 기운을 잃고, 각박한 그 당시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공리공론과 탁상공론을 배격하고 청나라에서 들어온 새로운 학풍인 考證學에 입각한 새로운 비판정신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대부분이 주자학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의 중점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서양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虛에 대한 實의 학문에 연구를 정진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실용지식을 기초로 한 중국의 진보기술 그중에서도 건축관계기록은 비록 당사의 국내건축상황에 대한 비판과 구상은 높이 살만하지만 우리자체의 고유성을 인식치 못하였다. 중국의 건축기술을 도입함에는 지금까지는 한국건축의 형성에 내재된 사상과 기술을 중국 것과 비교하여 그 가능성을 찾는 지혜가 부족하였고, 중국건축 기술의 비판없는 무조건적인 도입수용을 주장했으며, 한국의 건축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사대성과 전반적인 건축기술도입 체계와 구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세 문물에 대한 소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북학파들의 당시 상황은 어디까지나 봉건적인 테두리 속에서 상리학적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 사상과 가치관에 입각하여, 더구나 건축에 관한 문외한으로서 파악한 중국건축의 기록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후 한국의 건축역사를 서구의 근대적인 방법으로 시작한 것은 일본인들에 의해서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침략목적내지는 한국이 일본의 문화적 속국이라는 동식을 증명하기 위한 그들의

연구가 내심 못마땅한 것은 말할 바도 없거니와 그나마도 그것조차 생각못한 우리들에게도 울분을 느낀다.

그들의 침략성과 무지함은 일찍 우리의 선조들이 글로써 남겼는데 靑泉 申維翰은 1719년에 통신사의 일행중 製述官이란 직책을 가지고 일본에 갔다와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은 사부라이 사회로서 무사가 제일 높은 신분이며 그 다음이 농민, 공장, 상인의 차례이다. 즉 兵, 農, 工, 商의 사회로 선비는 四民의 서열에서 밀려나 있다. 즉 사부라이 사회에서의 문화는 칼의 문화라 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士, 農, 工, 商의 사회요 붓의 문화였던데 비하여 엄청나게 다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임란때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姜沆(1567~1618)이란 선비는 그동안의 고초를 적어 「看羊錄」을 남겼는데 거기에서도 일본의 침략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兵, 食, 信중에서 兵에다 가장 큰 가치를 두어 信을 가치기준의 제일 우위에 두는 우리의 사상과 큰 차이를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자학은 正德을 제일로 꼽고 이융후생을 그 다음으로 보았으며 兵은 최하의 가치로 여겼다. 이런 일본인에 의해 씌여진 한국의 건축역사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밖에 될 수 없었다는 필연성과 한계성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식민사학은 동화주의와 적절통치를 원칙으로 한 그들의 지배체제에 없어서는 안될 문교정책이었다. 일제부서의

한국건축에 대한 역사서술은 서구적인 방법론을 토대로 수행되어 왔으나 이는 우리 것에 대한 정리작업과 이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어서 이제는 점점 없어져가고 또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건축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우리의 땅에서 조상대부터 역사의 숨결을 이어온 우리에게 생소한 서구문화에 의하여 개화되면서 생활의 변천과 동요가 날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기상실의 혼란과 희생은 너무나 큰 것이었다. 역사의 객관성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기록하여 우리의 건축이 한말의 “東道西器論”이나 “中體西用”의 이론에 합당한가를 역사가들이 증명할 수 있도록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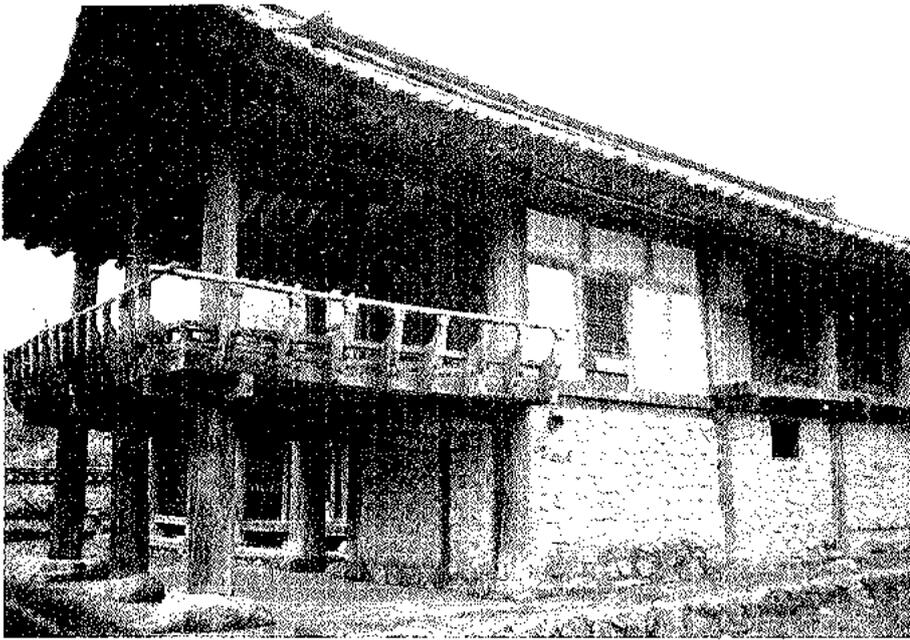


②



⑩

- ⑤ 우복종가 사랑채에서 안채로 연결되는 출입부분
- ⑥ 우복종가의 행랑채
안채의 북쪽부분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 ⑦ 우복종가의 사랑채
2칸의 높은 기단위에 있다.
- ⑧ 우복종가의 안채
훈집과 겹집의 형태를 동시에 하고 있다.
- ⑨ 우복종가의 우복선생을 모신 가묘
- ⑩ 대신루 전경



많은 사료를 채집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우선 가까운 것들로부터, 孔子가 말했던 “述而不作”(기록은 하되 다른 사실을 만들지는 않는다)의 원칙을 가지고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1. 愚山洞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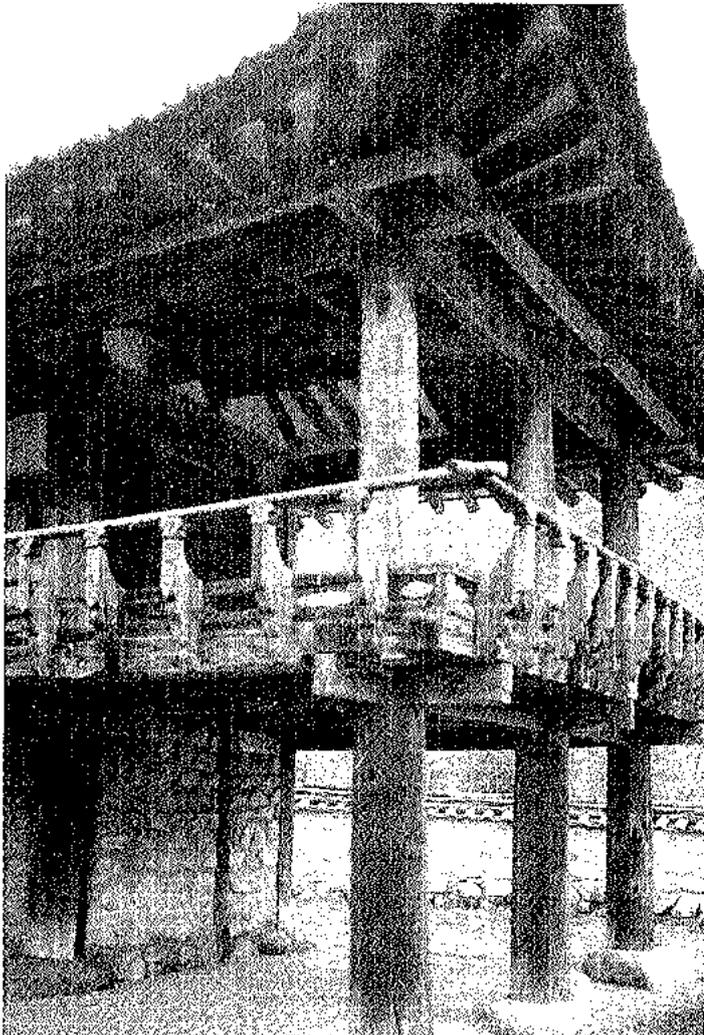
愚山은 조선시대의 유학자 愚伏 鄭經世의 후손인 진양정씨의 마을로 경북상주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우복종가를 비롯하여 당시의 서실인 對山樓 우복이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였던 溪亭, 우복의 후학들이 그의 학덕을 기려 세워 우산서원의 강당으로 사용되었던 道存堂 등의 건물을 비롯한 이 일대의 승경을 일컬어 우산동천이라고 불리는데 이곳은 선생이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한 공로로 나라에서 하사한 것이다. 원래는 남북 10리, 동서 5리의 작은 산간협곡으로 우복은 벼슬을 버리고 산수가 좋은 곳을 찾아 이곳에 우복산장을 낸 것이 선조 38년(1600)으로 이곳주위에 경승지 20개소에 이름을 지어 시를 읊었는데 이것이 바로 「七里江山二十景」이다.

실학자인 徐有渠는 「林園十六志」의 서문이 되는 例信에서 무릇 사람이 사는데 出(出世)하고 處(隱居)하는 두가지 길이 있다고 하였다. 出하여서는 세상을 건지어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요, 處하여서는 노력으로 먹고살며 志趣를 수양해야 한다. 세상을 건지는데는 정치, 교화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志趣修養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치, 교화에 관한 서적은 많으나 한가로이 머물면서 지취를 수양하는데 관한 글은 편집하는 이가 적다고 하였는데 우복은 이곳에 머물면서 많은 저술뿐만 아니라 주민의 교육과 의료활동등에까지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이곳은 속리산의 지류가 몇어 산을 이룬 곳으로 마을 뒷산인 愚伏山(당시 지명은 于北山)이 높이 솟아 이 곳 일대를 안고 들고 있으며 그 앞에 王母峰이 있고 속리산에서 발원한 큰 내는 북으로 흘러 앞산인 國士峰 사이로 빠져나가 愚山川이 되며 서남에서 흘러 이 마을 앞을 지난다.

옛부터 터를 잠을 때에는 산과 돌이 만나 이루는 터의 형국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는데 형국론은 우주 만물만상이
 有理有氣하며 有形有像하기 때문에 그
 형상에 기상과 기운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관념을 원리로 삼은 것이다. 산과 물이
 결부하면 많은 象과 物形의 모습을 띄게
 되는데 이 물형과 상은 각각 그에 상응한
 理氣와 象運이 내재된 것으로 보았다.
 풍수설에 있어서는 保局形勢와 山穴形體에
 따라 이에 상응한 정기가 그 땅에 응축된
 것으로 보았으며 국면이 어떠한 형국을
 갖는가 하는 것은 길흉판단의 중요한 지표로
 보기 때문에 터를 고를 때 터를 감싸고 있는
 산의 모습과 물의 흐름을 중히 여는 것이다.
 息山 李萬敷는 「尙州贊辭」에서
 『山高松離 岳水潤洛東江 山水擅名區
 先賢蜚出地』라 하여 이곳이 산수가 뛰어난
 곳이며 많은 유학자가 배출 된 곳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2. 愚伏宗家

옆으로 펼쳐진 골짜기에 우산전을 앞으로
 끼고 나지막한 뒷 둔덕을 진산으로 앞산인
 시루봉(天馬山)을 조산으로 하여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터가 좁아 더 이상의 집이
 들어설 수가 없어 중순을 제외한 나머지
 자순은 외지나 맞은편으로 좀 떨어진
 下愚山에 자리를 잡고 있다. 전체적인
 좌향은 酉坐卯形을 하고 있으며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가 툇구자형태를 하고 있고
 그의 우복선생을 비롯한 5대의 신위를 모신
 가묘와 대문채를 합해 한 울타리에 배치되어
 있으며 입채선생을 모신 사당이 집 밖 남편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적인 대지의 형태는
 산지에 위치한 관계로 사랑마당과 안마당을
 제외한 중간의 출입통로는 경사를 보이고
 있으며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의 형태는
 전후로 층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칸의
 소슬대문채를 지나 만나는 사랑채는 정면
 5칸의 전퇴집이다. 3자에 달하는 2층기단
 위에 3량집 납도리를 쓴 팔작지붕 형태로 2칸
 대청을 사이에 두고 우측으로는 2칸의
 사랑방을, 그리고 좌측으로도 1칸의 방을
 두고 있는데 이 집 앞으로 보이는 풍경을
 사랑채에서 즐기기 위해 이렇게 기단을
 높였으리라 생각된다.

기둥머리는 보머리 밑은 수직으로 바로
 바로고 보 밑의 보아지는 사절된 일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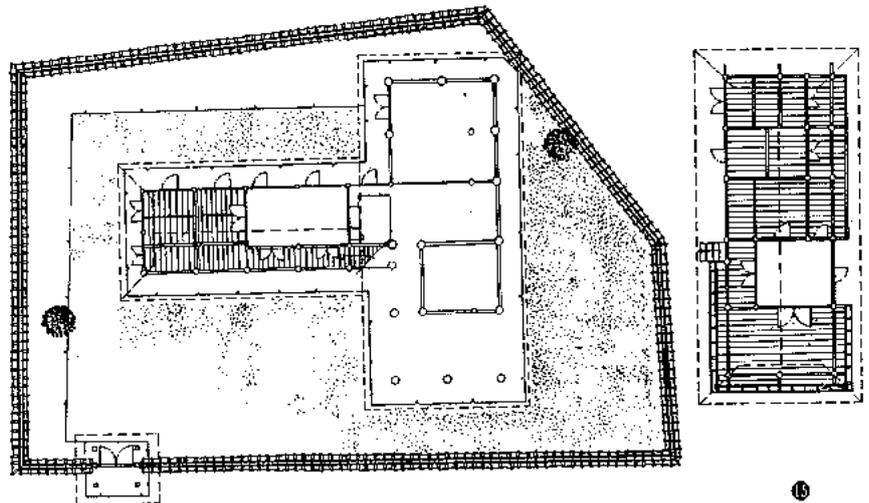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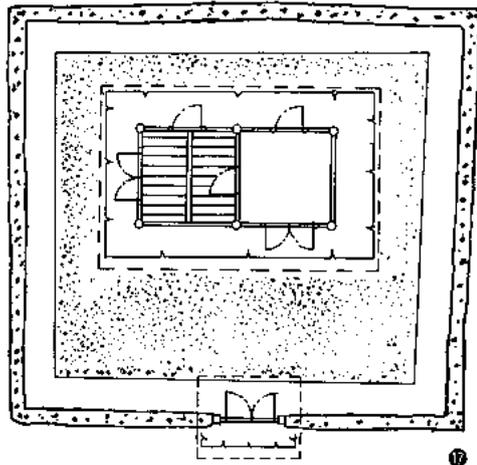
- ① 대산루 측면— 환기공이 보인다.
- ② 2층 누마루 부분
- ③ 대산루전경
- ④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돌계단
- ⑤ 평면도



18



- ⑬ 계정
대산루 옆에 위치하고 있다.
- ⑭ 계정 평면도
- ⑮ 도존당
원래 우산서원의 강당이였다.
- ⑯ 도존당 평면도



형태를 하고 있다. 두 방 모두 방의 뒤쪽으로 처마 밑에는 수납공간인 장방을 설치하였는데 이와같이 방의 뒤부분을 골방 혹은 장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대부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사랑마루의 뒷벽은 막아 문을 달았으며 전면은 개방하였다. 사랑채 전면으로 방과 대청 앞에는 전퇴를 두어 출입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퇴가 좁은 관계로 출입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난간을 둘렀다. 난간은 걸거나 움직이는 동선위주의 공간에는 평난간을 주로 쓰며 계자난간은 공간의 연속, 시각의 연속을 요구하는 정적인 공간에서 안정보호를 위한 시설을 부과한 형태이며 특히 안동지방의 반가에서 주로 보이고 있다. 대청위에는 「山水軒」이란 현판이 걸려있다. 이 집의 대지형태가 뒤로

약간 경사가 되어있고 사랑채의 2중기단이 높은 관계로 대문채를 지나 만나는 사랑채는 자칫 출입자에게 인간적 척도를 넘는 관계로 대문채와 사랑채의 거리는 길게 두었다.

안채는 T자형으로 2칸대청의 우측으로 한칸의 마루방과 안방 부엌이 돌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방은 마루가 2칸으로 앞뒤로 깊은 관계로 현재 부엌으로 쓰고있는 1칸의 마루방을 두고 내려와 배치하고 이 방을 전퇴로 연결한 실리성과 정면성을 강조한 반면 실제의 채광은 안방의 후면을 이용하고 있다. 안채는 곁집과 홀집의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서 보이는 사랑채는 이곳의 지형 때문에 매우 낮게 보인다. 옆의 행랑채는 1칸의 마루를 사이에 두고 2칸의 고방과 2칸의 행랑방이 동서측으로 배치되어 있어 안채의 북측을 막아주는 역할과 이

채들이 만나 이루는 공간은 안마당으로서의 전용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 집도 영남의 반가로서 안팎을 엄격히 구분해 그 공간들을 분리한 조선시대의 유가적 정신을 함축하고 있으며 농축된 절제와 도덕이 돋보이는 사대부의 집이다.

3. 對山樓

우복의 독서강학 및 우산서원의 서실로 사용되던 건물로 경상도 읍지에 보면 대산루에 대해 『在州 西愚伏山 文莊公鄭經世 所建其孫掌令宗魯 又建講堂名之日 修契所母與 多士講論于此』라는 기록으로 보아 우복이 공부하던 이곳을 그의 6대손인 立齊 鄭宗魯가 다시지어 이름을 붙인 곳으로 종가의 북측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1자의 막돌 허튼층 기단과 자연석 주초 위에 원주를 쓴 팔작기와집으로 단층에 연결하여 2층누각으로 세운 T자형 건물이다. 단층집은 정면 4칸 측면이 2칸인데 남쪽 2칸은 대청이며 내동주가 없고 북쪽 2칸은 방인데 퇴를 통해서 돌계단으로 누각에 오르게 했으며 전면에는 원주를, 나머지는 방주를 사용하였다.

이 채는 대청과 별도로 누마루가 있는 이 누마루는 이 집에서의 중심적 역할과 기능을 가진 상징적 성질을 갖는 고급공간이다. 그 누마루에서 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은 물론 밖에서 이곳을 보는 사람도 건축적 연출과 누마루가 어우러져 세속을 떠나 일상주거와 격리된 자연과 동화된 공간이며 비록 세속에 살더라도 맑고 깨끗한 마음을 원하는 차원높은 철학과 이상이 깃드는 곳이다. 누각은 2층에 온돌을 시설한 방 1칸과 누마루가 있는데 3면을 청판에 풍혈을 장식한 계자난간으로 둘렀으며 후면에도 3칸의 마루방이 온돌방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다. 아래층은 단층의 남쪽방과 상층 온돌방의 난방을 위한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층의 난방을 위한 아궁이는 지반에서 4자 정도의 높이에 있고 북측에는 환기공이 있으며 벽은 火防을 위하여 상층부의 벽은 토벽 위에 강회를 쓴 분벽의 형태인데 비하여 막돌을 넣은 온담을 쌓고 있다. 이 집은 하층부에 부엌장치를 하고 위층은 온돌과 누마루가 공존하는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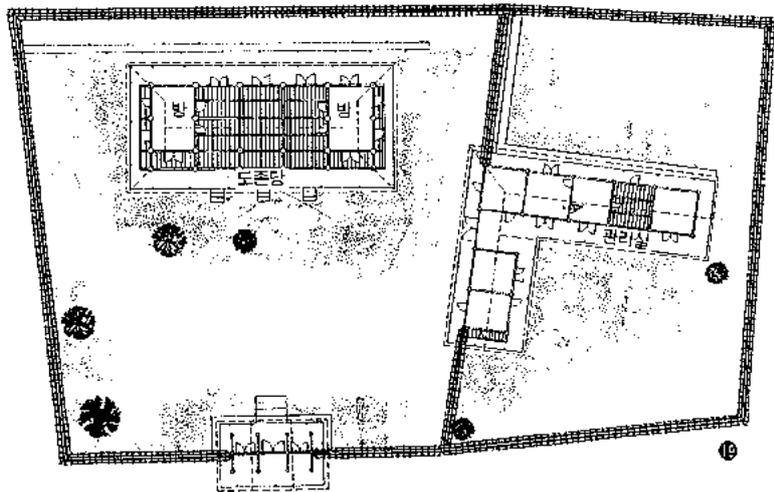
대청 한쪽벽에 「臺谷雜永二十絶」이라는 현판이 있는데 그 내용은 書室, 五峰塘, 五老臺, 山影潭 등의 주위 20경을 노래한 시구이다.

누상에는 鄭東教가 쓴 「대산루」란 초서현판이 걸려있으며 이런 詩가 전한다.

巖臺千尺拘瑤琴
詠歎黃虞坐暮陰
山遠水長人不到
兄應魚鳥是知音/右懷遠堂

日將影過雲垂地
風得聲來海撼空
最好世間三丈雪
萬株春色一洲中/右萬松洲

바위대 천척에 구슬 거문고 안고
황우 울고 탄식해 저문 그늘에 앉았노라
산은 멀고 물은 길어 사람은 이르지 않는데



다만 백백이 물고기가 새와 이 소리를 알도다

날은 그림자 지나는 것과 같이 구름이 땅에
들었는데
바람은 소리를 얻어 바다가 공중을 흔드네
가장 좋은 세상 세길 눈에
만주 봄 빛이 한물가 중간이다.

4. 溪亭

우복이 그의 나이 40을 전후하여
우복산중에 은거하며 독서를 즐겼던 곳으로
1603년에 세운 聽濤亭의 별명이며 대산루의
남쪽에 나란히 서있다.
정면 2칸 측면 1칸의 초가지붕의 형태로



1칸방과 1칸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루는 뒷면과 측면은 벽으로 막아 편문을 달았고 전면은 개방되어 있다. 방과 마루가 만나는 곳은 띠살부늬의 삼분합을 달았고 방의 전면문은 머름을 드린 띠살부늬의 분합문을 달았다.

5. 道存堂

원래는 입제선생 당시 향인들이 서당으로 세운 것을 점차 증축하여 뒤에 우산서원으로 승격하였는데 지금 남아있는 도존당은 우산서원의 강당이였다.

우산서원은 1796년 우산에 창건되었다가 대원군에 의해 1868년에 뜯겼으며 입향된 분은 鄭經世, 鄭宗魯이다.

이 채는 종가의 위편 산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이곳에서는 우산의 전체전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고 서당인 도존당과 옆으로 격담한 관리사가 ㄱ자형태를 하고 있다. 도존당 전면의 내삼문으로 출입토록 되어있으며 내삼문에는 「入道門」이란



현판이 달려있다.

도존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반의 팔작지붕형태로 전부 원주를 쓰고 있으며 외진주와 내진주가 만나는 마루면은 8cm의 단차를 두고 있다. 3칸의 대청을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2칸방을 들였는데 전면과 측면으로는 퇴를 두어 출입공간으로 쓰고 있다.

① 도존당 원경

전면에 있는 것이 이 집의 출입문인 내삼문

② 도존당 옆의 관리사

COMPETITION

서울 방화지구시영아파트 현상설계경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한 방화지구 아파트현상 공모 당선작이 지난 6월 15일 선정, 발표되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현상공모에는 총 13개 건축사 사무소가 응모안을 제출한 가운데 최종 심사결과 빗종합건축(민승렬)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작으로 한울건축(이성관)안이 가작으로 등남아·태건축(박원태)안이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 현상설계공모에는 기존의 현상설계에 대한 건축계의 인식을 전환키 위해 엄격한 심사기준(법규준수·공모지침준수·작품성)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심사위원으로 박윤성(고려대)교수를 비롯한 학계 및 설계실무자 8명, 관계 공무원 2명이 심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빗건축안은 기존의 획일적인 배치를 탈피하여 환경적 측면을 강조한 오픈스페이스의 활용이 돋보인다는 심사평을 들었다.

본지에서는 최우수작을 비롯한 수상작 작품을 게재한다.

설계지침

■ 공모대상

- 위치 : 강서구 방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 대지면적 : 54,200㎡
- 건립유형 : 영구, 장기임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단위규모 : 영구임대-전용면적 기준 7, 9, 12평형
장기임대-전용면적 기준 10, 12, 15평형

■ 설계지침

가. 건립규모

- 대지면적 : 56,721㎡
- 건립세대수 : 영구임대주택규모 1,400세대내외를 우선배치하고 나머지는 장기 임대주택규모로 배치하되 총세대수는 채택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내에서 가능한 많이 건설토록 계획
- 영구임대 : 7평형 : 75%
9평형 : 15%
12평형 : 10%
- 장기임대 : 10평형 : 30%
12평형 : 40%
15평형 : 30%

비고 : 영구임대 주택은 단지 남쪽부분에 집단배치나, 단위세대

- 각 평형별 면적은 전용면적을 말하며 지정된 평수의 5% 범위내에서 초과 계획 가능함(단, 12평형은 40㎡이상 초과계획 불가함)
- 각 평형 공회 침실은 2개이상으로 하되 15평형의 거실은 침실로 겸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이 경우 침실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각 세대별로 화장실 겸 욕실을 설치하되 7평형 화장실은 욕조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각 평형별로 1㎡이상의 수납공간을 확보한다.
- 각 평형별 규모에 따라 주방기구등 가구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7평, 9평, 10평, 12평형 임대주택은 확장형 및 병합형 설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평형끼리의 병합도 가능함(7+9평, 7+12평, 10+12평 등)
- 욕실 주방 및 다용도실의 위치계획시 적절한 핏트공간을 확보하여 공사비 절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각종 계량기함 및 운수 분배기의 위치를 감안하여 세대 평면계획을 하여야 한다.

다. 단지계획

- 열원공급, 급, 배수, 전력 및 통신회선의 공급, 제반조성등 단지기반시설 계획에 적합토록 하여야 한다.
- 단지내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1,500㎡) 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능한 중앙에 배치되도록 계획하고, 단지내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단지내 영구임대주택 세대수(1,400세대 내·외)에 의한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및 종합사회복지관 설치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기임대주택 세대수에 의한 관련 법규정에 적합토록 적정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관리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용면적의 최소화를 고려한 수직, 수평 동선계획이 되도록 하고 경비등 관리시설은 사후 관리비를 감안 적정규모 및 배치를 고려한다.
- 쾌적한 옥외공간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녹지면적을 증대시킨다.
- 주차시설은 관계법규의 규정에 적합토록 설치하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 한다.
- 단지내 지장물은 철거되는 것으로 보고 계획한다.
- 열원공급은 지역난방방식으로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효과 및 열량균등 분배를 고려하여야 함
- 집단 에너지 공급건설계획과 연계하여 단지 열원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
- 사후 유지관리등 효율적인 전력공급방안(고저압, 수배전방법, 변전실의 배치방법등)을 제시하여 단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라. 조경 계획

- 단지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고려하여 단지계획을 하여야 함
- 어린이놀이터는 이용자측면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함
- 휴게소는 이용자의 접근도를 감안하여 공공시설(노년정, 관리사무소, 상가, 유치원 등)주변이나 운동 또는 유희시설(어린이놀이터)의 연계로서 동반자의 휴식장소로 활용토록 계획하여야 함
- 녹지대는 건물외벽으로부터 2m, 이상을 확보하고 건물후편이나 단지 외곽 수림대는 산책로 또는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여야 함.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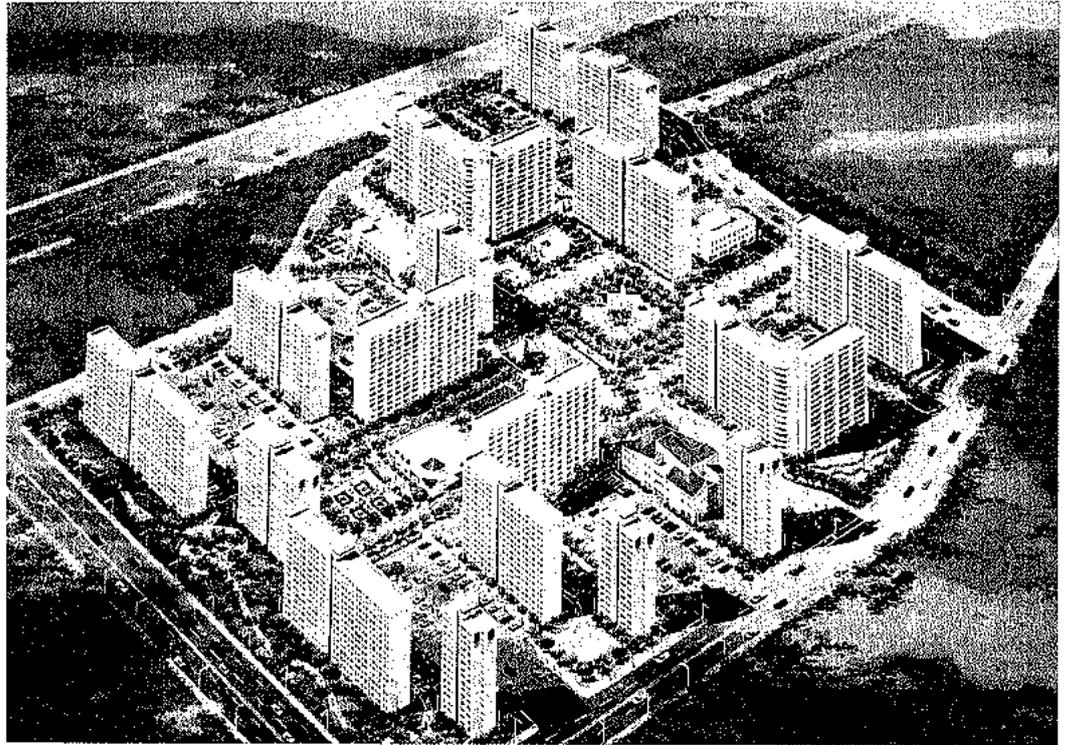
최우수작 빛 종합건축案 (대표 : 민승렬)

1. 설계개요

대지위치 : 강서구 방화지구 택지 개발 사업지구 내
 대지면적 : 54,200㎡
 건축면적 : 9,195.52㎡
 연면적 : 111,960.47㎡
 건폐율 : 16.97%
 용적율 : 195.16%
 층 수 : 아파트-지상15층 상가-지하1층, 지상3층 종합 복지관-지하1층, 지상3층, 유치원-지상1층 노인정, 관리실-지상1층
 구조 : 벽식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녹지율 : 41.3%
 주차대수 : 법정-485대 (40㎡이하는 250㎡당 1대, 40㎡이상은 세대당 0.4대)
 계획-520대 지상 453대 지하 67대
 부대시설 : 영구임대-종합사회복지관 (노인정, 관리실 등 포함) 상가, 유치원
 장기임대-상가, 유치원, 노인정+관리실

2. 계획개념

- 아파트 단지의 획일적이며 일 반적 개념을 배제하고 방화지구만이 갖는 개성있는 단지의 창출
- 각각의 기능을 갖는 옥외공간을 상호연계, 보완케하여 옥외공간의 확충과 개방적 공간감의 연출.
- 소형아파트의 예민한 치수개념을 감안한 공간구성
- 부대시설군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합리적 배치.
- 인접대지에서의 본 단지로의 조망에 대한 고려
- 고른 일조량 확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주거동의 남향배치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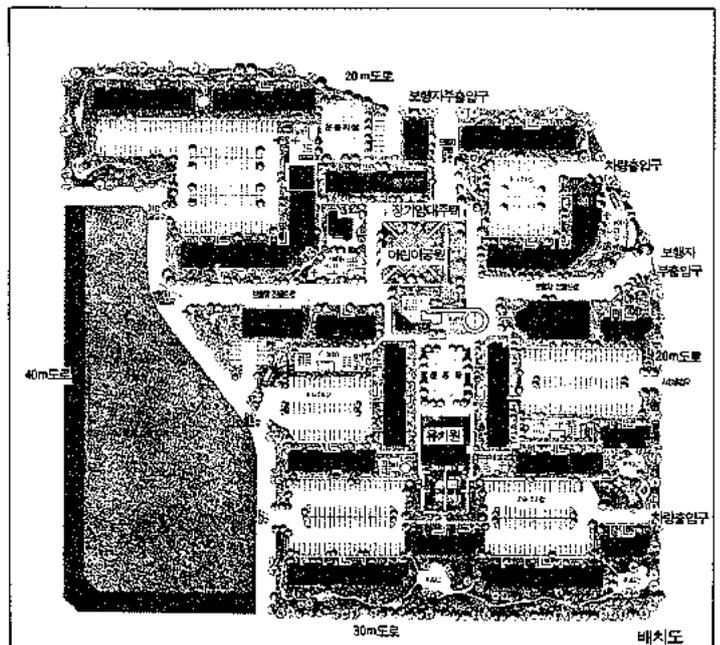
3.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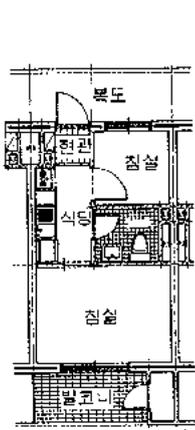
가) 토지이용 계획

- 전통적 동네개념 도입 및 개성있는 주동구성
 - 인간적 환경의 추구
 - 입주자의 인지도 고양
 - 동선의 혼재방지
 - 공간의 특성배가
- 옥외공간의 적극적 활성화
 - 단지내 보행로를 어린이공원, 휴게공원 등을 자연스레 지날 수 있도록 유도.
 - 로울러스케이팅장, 씨름터 등의 체육시설 및 놀이터, 산책로 등으로 연계되는 축의 형성
 - 시각적, 공간적 풍만감의 만끽
- 영구임대와 장기임대아파트의 배치상 분리
 - 단지내 분리가 요구되는 영구, 장기임대아파트를 어린이 공원을 매개체로 구성
 - 여유감 있는 보행로를 축으로 하여 공간적 일체감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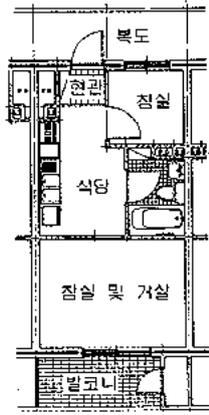
- 성할 수 있도록 고려
- 이웃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성의 부여
 - 동네개념을 주동구성에 철저히 적용
 - 휴게공간을 곳곳에 두어 내·외부공간을 보완할 수

- 있는 만남의 장소로 도모.
- 나) 교통계획
 - 단지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동선을 외곽간선도로에서 루프형으로 연결하여 단지배치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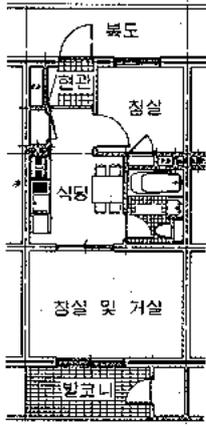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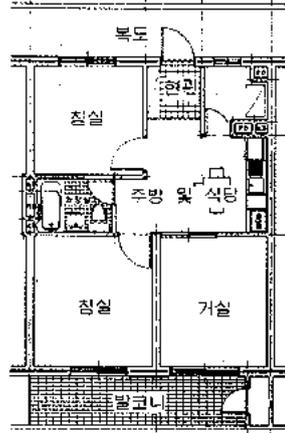
7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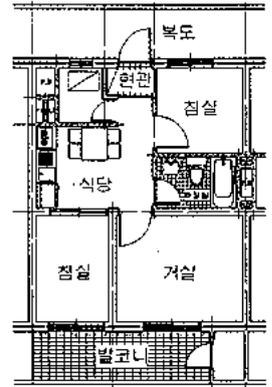
9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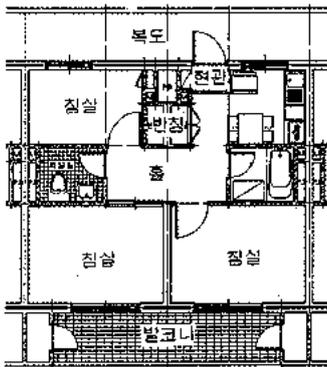
10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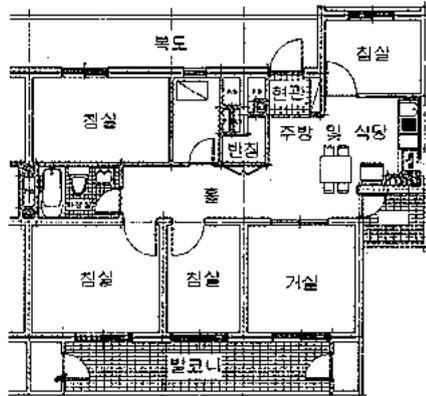
15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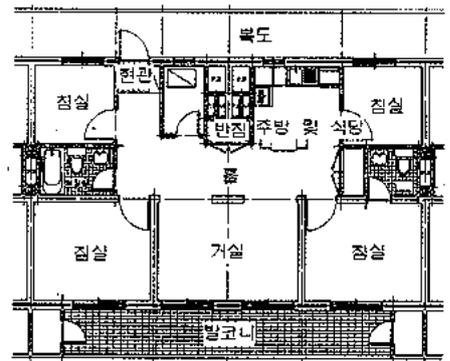
12평형



7+7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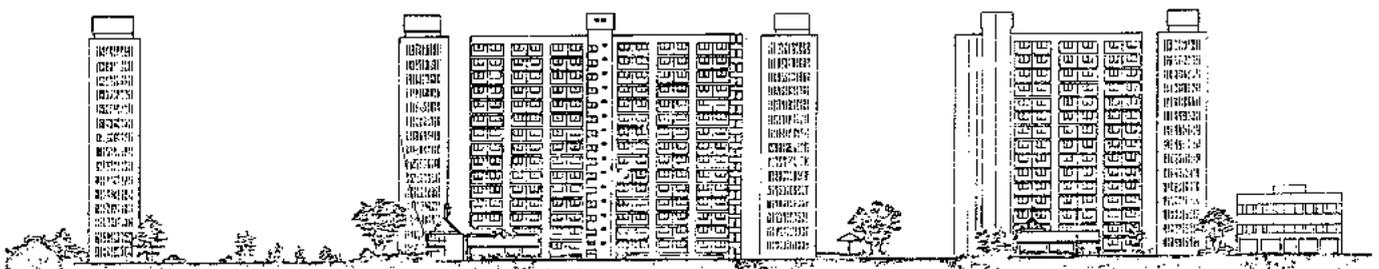
9+12평형



12+12평형



단지종단면도



단지횡단면도

COMPETITION

우수작 한울종합건축 案 (대표 : 이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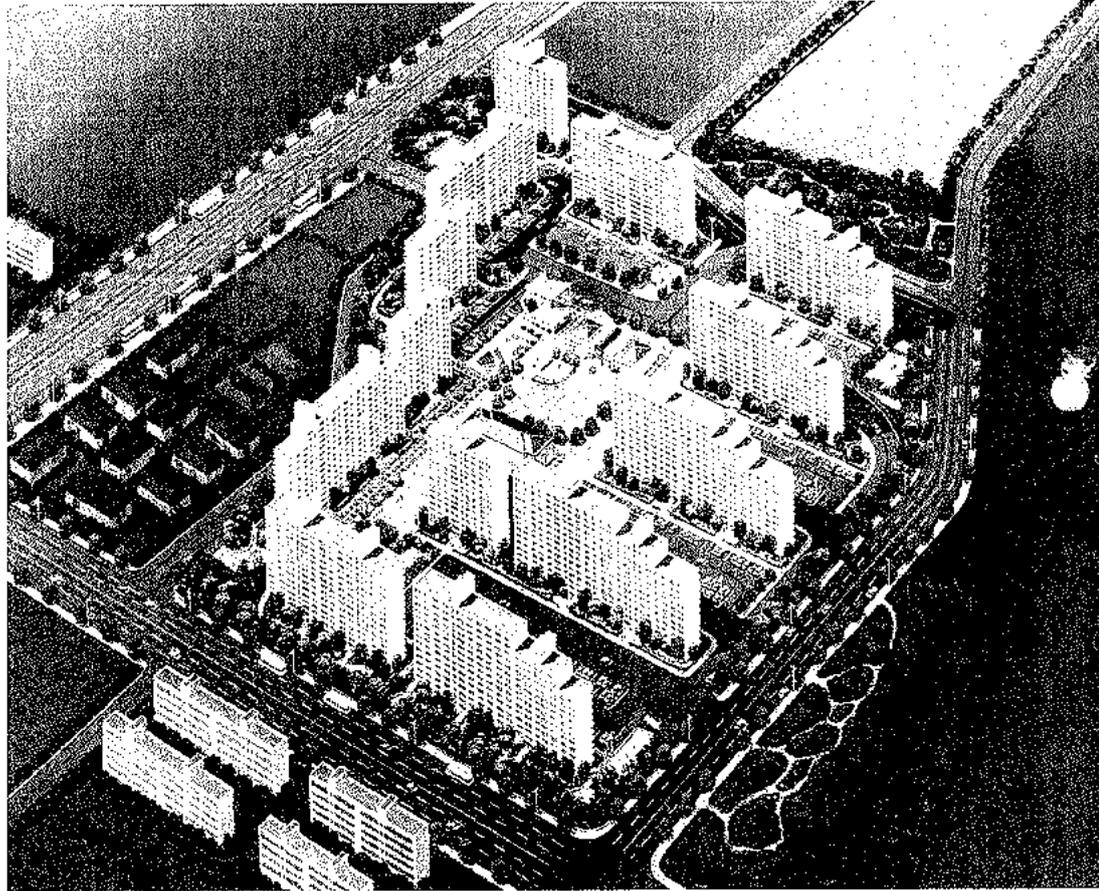
1. 설계개요

대지위치 : 강서구 방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대지면적 : 54,200㎡
건축면적 : 9,159.4㎡
연 면 적 : 115,428.94㎡
건 배 율 : 16.9%
용 적 율 : 191.7%
주차대수 : 490대(옥외 : 400, 옥내 :
90) 법정주차대수 : 473대
녹 지 율 : 21%

2. 단지배치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주거시설
 - 영구 및 장기 임대주택간의 조화 고려
 - 기존 인근 주거지와 연계성 고려
 - 단일 근린 분구 개념으로 계획
- 상가시설
 - 영구임대 상가와 장기임대 상가의 동일건물수용
 - 어린이광장 및 휴게공간과 연계되는 배치
- 부대시설
 - 단지내 부대시설의 집약적 이용가능한 배치
 - 부대시설간의 연계 및 어린이놀이터와 밀접한 연결 유지
- 공원 및 녹지
 - 기존 주거지와 마찰을 극소화하는 완충녹지 조성
 - 보행자 전용도로를 따라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유발하도록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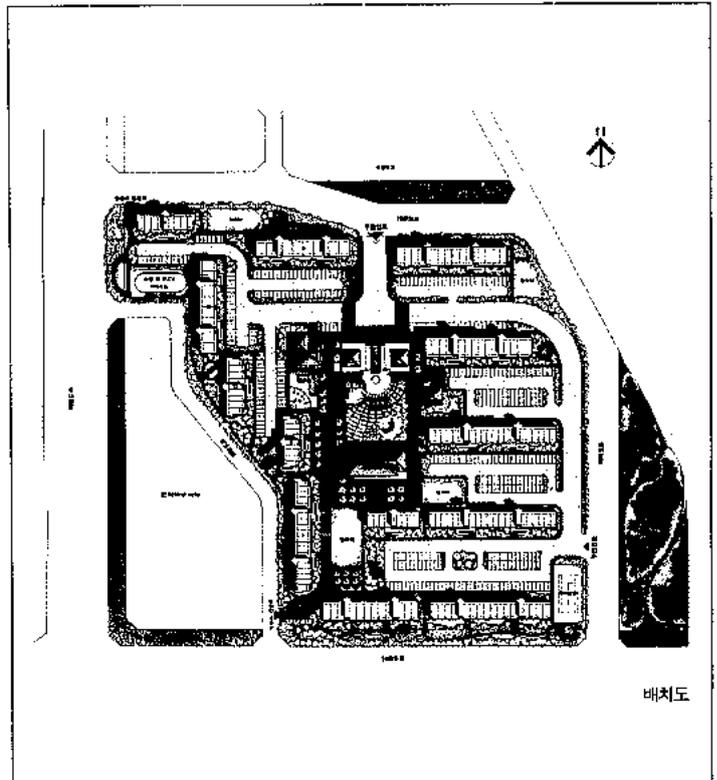
3.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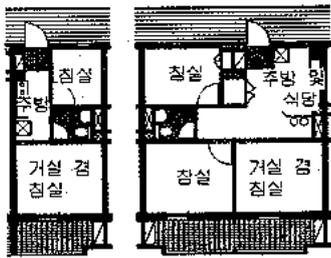
가. 입면계획

- 매스의 다단변화로 거대 매스의 위압감 해소
- 축벽세대의 후퇴로 입면의 변화 유도
- 층간의 변화를 둠으로써 고층 아파트에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대한 척도를 인간적 척도로 유도

나. 단면계획

- 지하층 공용공간에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창고 설치
- 지하주차장과 주동 엘리베이터의 연계로 수직동선 체계화
- 층고 : 2.6m 난간 : 1.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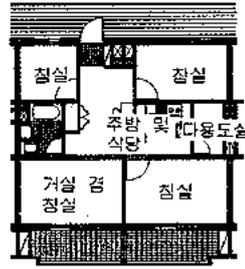


7평형

7+7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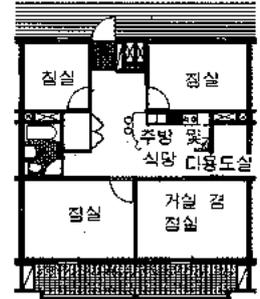
9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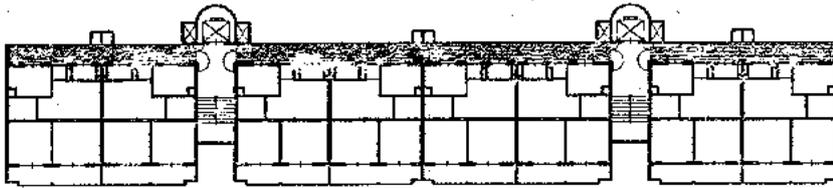
9+9평형



12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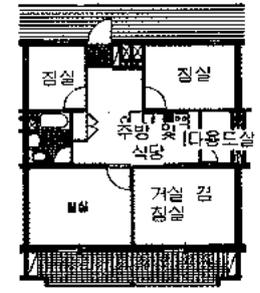
12+12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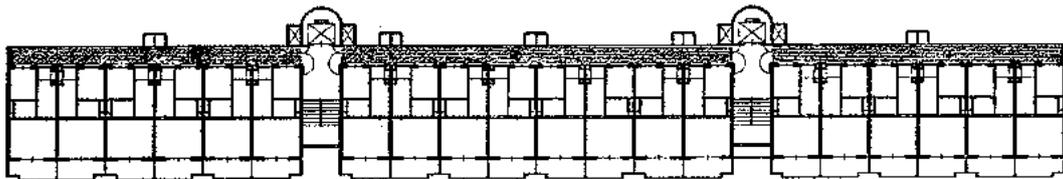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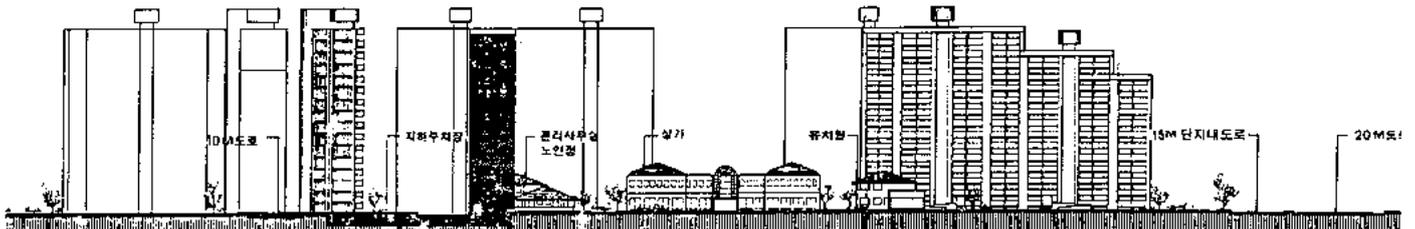
10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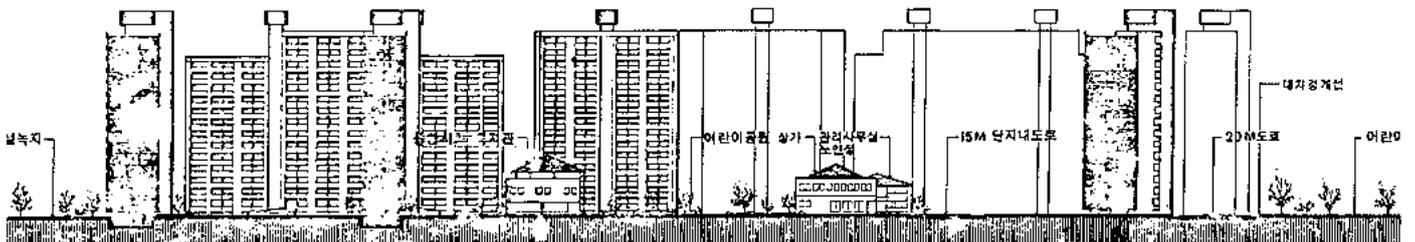
10+10평형



기준층 평면도



단지총단면도



단지중단면도

COMPETITION

가작

(주)동남아·태건축사사무소案 (대표 : 박원태)

1. 설계개요

건축면적 : 9,470㎡
 건 폐 율 : 17.5%
 연 면 적 : 120,645.32㎡
 용 적 륜 : 198%
 세 대 수 : 2,430세대
 주차대수(지하주차장포함) : 416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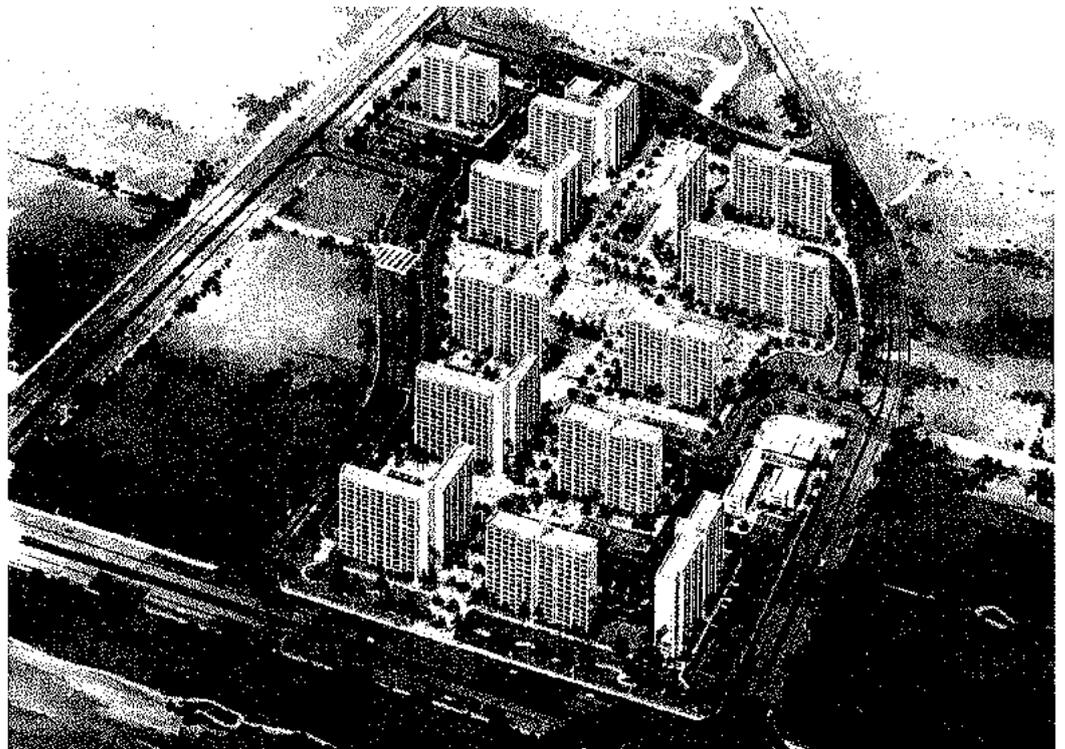
2. 계획의 개념

- 인간 집합적인 요구를 주거단지라는 범위 속에서 유기적 동일체로 조직화
- 가능한 많은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다양한 계층과 행동주체간의 이해상충을 해소
- 모든 행동주체간의 입지가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상호 효율적인 작용으로 주거단지 전체 환경이 질서가 잡혀있으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형태를 이룰수 있는 계획수립

3. 배치계획

차량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시키고, 오픈스페이스 녹지체계가 일원화 되도록 하며, 인근단지의 녹지체계 및 공원과 상호유기적 연결을 도모.

- 1) 동서간 오픈 스페이스 축 설정
- 2) 입지특성이 반영된 주거동 개발
- 3) 단지구조와 배치의 합리성 추구
- 4) 공간의 연계성 부여
- 5) 생활환경의 질적향상 및 남향 선호도를 수렴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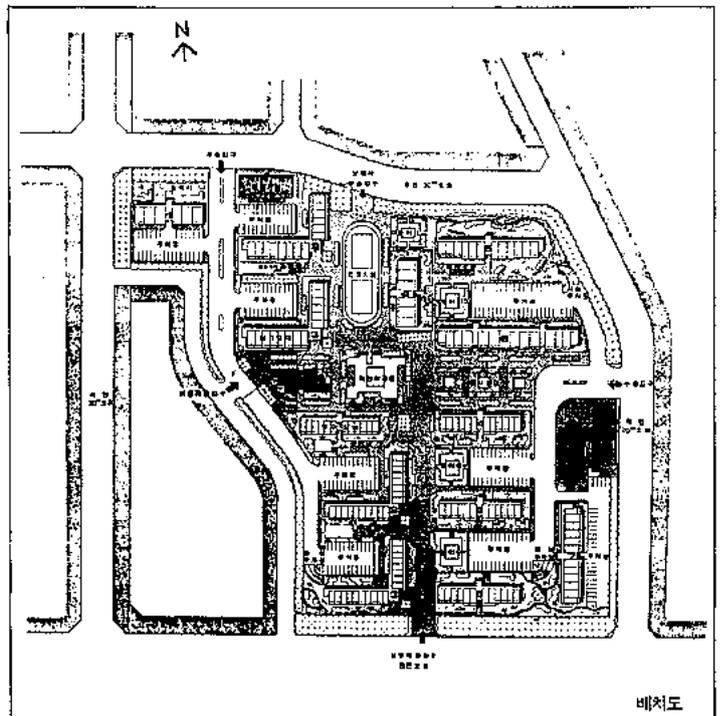
4. 건축계획

가. 계획개념

- 균등한 환경조건확보 위한 일조, 조망.
- 가장 평범한 단지속의 변화 추구
- 보·차도 분리에 의한 서비스 동선
- 명쾌한 색채
- 단순한 외관처리
- 공유면적 극소화

나. 단위 주도 계획

- 확장에 대비한 융통성 있는 평면구성
- 경제성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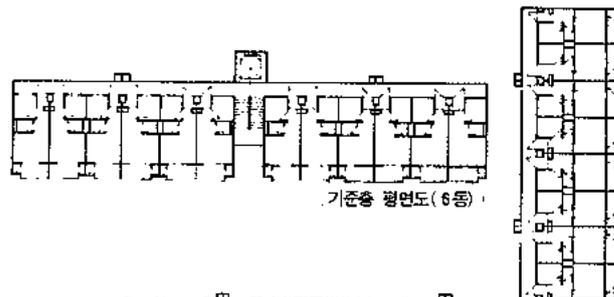
7평형



9평형



10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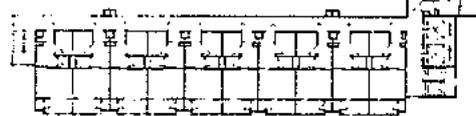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6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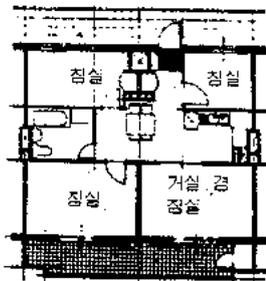
12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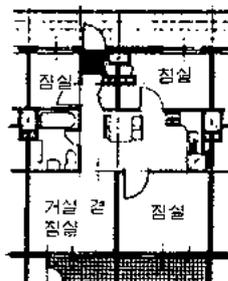
15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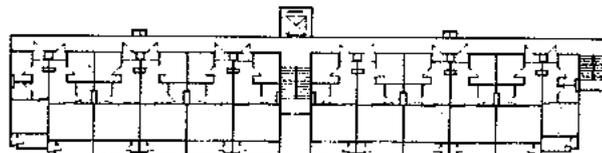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4·5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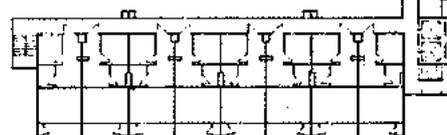
10+10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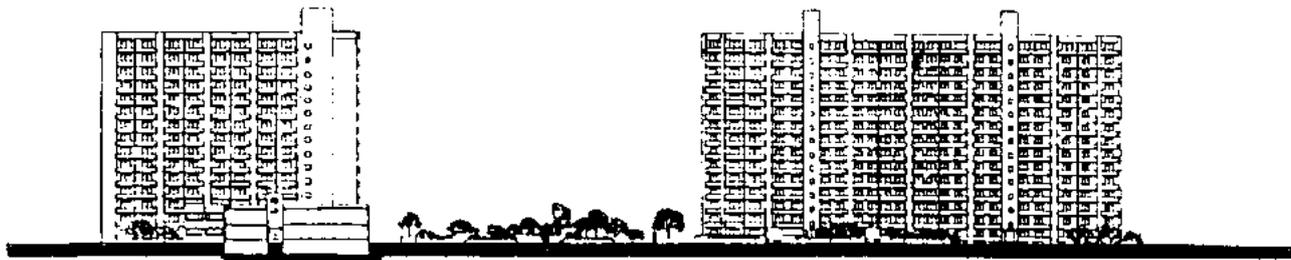
9+9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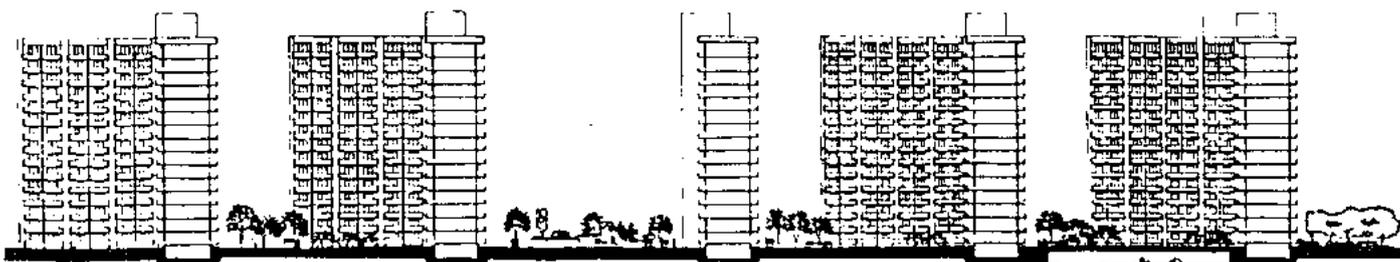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1동)



기준층 평면도 (2·3동)



대지 횡단면도



대지 종단면도



6월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 가. 전년동월비 전년 6월분 9백2만8천6백63㎡보다 50.52% (4백56만8백71㎡) 증가한 1천3백58만9천5백34㎡의 실적을 보였다.
-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6월 누계 4천9백6만7천8백7㎡보다 38.10% (1천8백69만2천9백25㎡) 증가한 6천7백76만7백32㎡의 실적을 보였다.
- 다. 전월비 5월분 1천1백60만9천8백73㎡보다 17.05% (1백97만9천6백61㎡) 증가한 1천3백58만9천5백34㎡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 (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89년도	1990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1,804,394	1,928,381	123,987	6.87%
	부산지부	519,393	1,173,045	653,652	125.85%
	대구지부	364,466	791,395	426,929	117.14%
	인천지부	1,011,747	1,480,854	469,107	46.37%
	대전지부	271,264	291,244	19,980	7.37%
	경기지부	1,241,209	2,819,088	1,577,879	127.12%
	충남지부	269,067	414,980	145,913	54.23%
	전북지부	407,510	443,044	35,534	8.72%
	전남지부	204,487	663,364	458,877	224.40%
	경북지부	841,970	1,325,875	483,905	57.47%
	경남지부	690,167	1,044,157	353,990	51.29%
	제주지부	128,147	143,315	15,168	11.84%
감소지역	광주지부	351,418	259,708	(91,710)	-26.10%
	강원지부	402,566	356,387	(46,179)	-11.47%
	충북지부	520,858	454,697	(66,161)	-12.70%
합계	9,028,663	13,589,534	4,560,871	50.52%	

全國圖書申告 概況 (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종별	5월분	6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1,670,736	1,360,885	(309,851)	-18.55%
다세대주택	579,272	852,733	273,461	47.21%
연립주택	136,141	172,873	36,732	26.98%
아파트	3,582,651	5,674,849	2,092,198	58.40%
근린생활시설	2,357,851	2,705,430	347,579	14.74%
종교시설	125,406	119,082	6,324	-5.04%
의료시설	7,272	41,372	34,100	468.92%
교육연구시설	397,392	224,022	(173,370)	-43.63%
업무시설	838,062	387,429	(450,633)	-53.77%
숙박시설	147,353	25,210	(122,143)	-82.89%
공장	1,036,190	1,317,618	281,428	27.16%
기타	731,547	708,031	(23,516)	-3.21%
계	11,609,873	13,589,534	1,979,661	17.05%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 (6月分)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3,299	3,398	1,875,067	120	123	53,314	0	0	0	3,419	3,521	1,928,381
부산지부	1,418	1,900	1,104,945	358	726	52,828	35	38	15,272	1,811	2,664	1,173,045
대구지부	873	936	702,393	630	648	75,512	37	37	13,490	1,540	1,621	791,395
인천지부	1,339	1,631	1,471,014	24	24	4,816	17	17	5,024	1,380	1,672	1,480,854
광주지부	400	429	204,972	129	136	49,705	11	11	5,031	540	576	259,708
대전지부	376	416	250,920	59	59	23,189	116	116	17,135	551	591	291,244
경기지부	3,218	3,652	2,652,076	237	252	123,296	66	67	43,716	3,521	3,971	2,819,088
강원지부	572	732	304,512	131	172	49,980	14	15	1,895	717	919	356,387
충북지부	629	712	256,647	131	157	130,363	63	63	68,687	823	932	454,697
충남지부	513	547	324,867	164	165	57,363	35	35	32,750	712	747	414,980
전북지부	433	519	412,426	127	140	27,566	16	16	3,052	576	675	443,044
전남지부	610	774	575,028	156	209	74,684	38	43	13,652	804	1,026	663,364
경북지부	857	1,091	913,162	217	249	122,394	23	23	8,601	1,097	1,363	1,044,157
경남지부	1,727	1,941	1,142,832	335	375	169,145	32	32	13,898	2,094	2,348	1,325,875
제주지부	219	272	129,485	60	63	13,830	0	0	0	279	335	143,315
합계	16,483	18,950	12,319,346	2,878	3,498	1,027,985	503	513	242,203	19,864	22,961	13,589,534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6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27,902	28,405	12,362,679	723	752	403,277	0	0	0	28,625	29,157	6,355,996
부산지부	7,612	9,367	5,820,167	1,839	2,388	325,502	293	310	210,327	9,744	12,065	3,142,680
대구지부	5,609	5,851	2,766,785	2,453	2,545	321,613	196	196	54,282	8,258	8,592	3,142,680
인천지부	5,223	6,137	4,144,173	292	392	126,923	126	157	51,429	5,641	6,686	4,322,525
광주지부	2,469	2,736	1,806,391	863	921	180,917	83	83	31,062	3,415	3,740	2,018,370
대전지부	2,576	2,791	2,161,143	325	326	94,316	509	513	114,345	3,410	3,630	2,369,804
경기지부	20,286	22,107	13,368,405	1,511	1,664	772,485	470	477	344,153	22,267	24,248	14,485,043
강원지부	3,155	3,764	2,017,352	777	915	265,493	100	107	22,431	4,032	4,786	2,305,276
충북지부	3,950	4,441	1,652,484	708	811	424,542	264	269	212,330	4,922	5,521	2,289,356
충남지부	2,943	3,109	1,885,259	704	711	276,954	152	152	57,190	3,799	3,972	2,219,403
전북지부	2,517	2,893	1,867,092	616	681	167,631	141	142	36,073	3,274	3,716	2,070,796
전남지부	3,329	3,926	2,329,990	995	1,166	298,417	136	141	53,284	4,460	5,233	2,681,691
경북지부	4,961	5,845	3,018,544	1,370	1,569	674,613	157	157	112,607	6,488	7,571	3,805,764
경남지부	8,720	9,878	5,542,915	2,137	2,390	685,820	211	214	140,832	11,068	12,482	6,369,567
제주지부	1,333	1,526	509,438	298	306	48,867	0	0	0	1,631	1,832	558,305
합 계	102,585	112,776	61,253,017	15,611	17,537	5,067,370	2,838	2,918	1,440,345	121,034	133,231	67,760,732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6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6,892	7,031	1,275,907	1,296	1,324	78,283	92	93	6,695	8,280	8,448	1,360,885
다 세 대 주 택	2,714	2,921	846,271	93	95	5,637	7	7	825	2,814	3,023	852,733
연 립 주 택	134	165	168,488	6	6	4,385	0	0	0	140	171	172,873
아 파 트	317	1,606	5,563,044	16	38	72,244	6	6	39,561	339	1,650	5,674,849
근린생활시설	4,674	4,806	2,504,854	641	1,000	129,144	239	243	71,432	5,554	6,049	2,705,430
종 교 시 설	127	145	86,711	69	73	30,076	8	8	2,295	204	226	119,082
의 료 시 설	11	11	11,537	15	16	21,357	10	10	8,478	36	37	41,372
교육연구시설	53	64	129,580	93	106	61,641	19	19	32,801	165	189	224,022
업 무 시 설	135	177	362,312	65	66	21,128	10	10	3,989	210	253	387,429
숙 박 시 설	14	15	13,352	12	13	10,637	5	5	1,221	31	33	25,210
공 장	520	838	829,856	273	426	436,508	57	58	51,254	850	1,322	1,317,618
기 타	892	1,171	527,434	299	335	156,945	50	54	23,652	1,241	1,560	708,031
합 계	16,483	18,950	12,319,346	2,878	3,498	1,027,985	503	513	242,203	19,864	22,961	13,589,534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6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52,905	53,721	9,509,233	7,460	7,659	524,326	374	375	28,198	60,739	61,755	10,061,757
다 세 대 주 택	11,425	12,137	3,287,855	662	671	47,963	33	33	2,737	12,120	12,841	3,338,555
연 립 주 택	565	780	901,036	19	21	10,056	4	4	2,156	588	805	913,248
아 파 트	1,366	5,816	22,014,303	78	124	243,500	18	19	75,447	1,462	5,959	22,333,250
근린생활시설	27,013	27,603	13,569,015	3,174	3,594	680,302	1,374	1,385	457,185	31,561	32,582	14,706,502
종 교 시 설	571	647	365,043	327	367	135,306	38	42	54,895	936	1,056	555,244
의 료 시 설	45	49	71,357	53	60	60,831	28	28	21,680	126	137	153,868
교육연구시설	220	321	693,289	356	424	509,559	148	157	87,807	724	902	1,290,655
업 무 시 설	1,087	1,176	3,277,423	319	329	233,048	58	58	42,556	1,464	1,563	3,553,027
숙 박 시 설	556	600	1,166,138	136	140	57,260	67	67	156,832	759	807	1,380,230
공 장	2,868	4,789	4,056,080	1,409	2,164	1,797,292	303	333	347,414	4,580	7,286	6,200,786
기 타	3,964	5,137	2,342,245	1,618	1,984	767,927	393	417	163,438	5,975	7,538	3,273,610
합 계	102,585	112,776	61,253,017	15,611	17,537	5,067,370	2,838	2,918	1,440,345	121,034	133,231	67,760,732

新入會員

NEWLY ADMITTED MEMBER



權寧球(56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전성·대진(종합)
서울 관악 봉천 1595-4
885-4620



韓京姬(59年)
부산공대 건축공
도감건축(종합)
부산 중구 중앙 84-15
463-2957, 2958



朴炳旭(57年)
한양대 건축, 서울대학원
공간구성(종합)
서울 동대문 장안 464-3
245-6813



趙植用(56年)
연세대 건축공
(주)진우사(종합)
서울 중구 무교 25-1
777-4311



李秉宣(55年)
한양대학원 건축공
(주)제 2건축
경기 부천 원미 74-8
62-3894, 4894



徐孝錫(55年)
광성공고 건축
나래건축
부산 북구 구포 1186-20
337-2539



金瓚漸(28年)
평양대 건축
(주)석우건축(종합)
서울 서초 방배 751-2
596-4623



趙吉衍(56年)
서울산업대 건축
범진·두손(종합)
서울 송파 신천 11-9
420-8901



李光培(57年)
고려대 건축공, 同대학원
세웅건축
서울 관악 봉천 1595-1
889-5861



尹錫秀(58年)
고려대 건축공
이호건축
서울 서초 방배 2104
596-0625



李雨璉(60年)
홍익대 건축과
踏家건축
서울 서대문 연희 188-2
335-7251~2



李武雄(44年)
한양대 건축
세웅건축
서울 관악 봉천 1595-1
889-5861



丁世鎭(52年)
건국대 건축공
(주)한주건축(종합)
서울 강남 삼성 9-21
546-2806



朴鍾昱(58年)
홍익대 건축
踏家건축
서울 서대문 연희 1882
335-7251~2



南相金(59年)
전남대 건축, 홍익대학원
대원·대현(종합)
서울 강남 역삼 661-25
552-8718



金錫桓(59年)
서일공전 건축공
(주)도시건축(종합)
서울 서초 반포 745
547-7722



李啓勳(60年)
한양대 건축공
기단건축
서울 강남 논현 115-3
514-3558



金南石(57年)
동아대 건축
창조·필·환(종합)
부산 동구 초량 1164-5
462-3314, 463-3314



徐海旭(59年)
경희대 건축
거반·상(종합)
서울 서초 방배 876-38
588-5405



金濟國(58年)
인하대 건축공
아미환경건축
서울 동작 사당 154-8
536-4304



許榮柱(60年)
건국대 건축, 연세대학원
천미건축
제주 서귀포 서귀 297-21
33-5501



朴利一(41年)
한양대
(주)大林엔지니어링
서울 영등포 여의도 17-5
783-0161



尹光植(54年)
부산공고 건축
동방건축(종합)
부산 동구 초량 1158-9
464-3931



金命雄(58年)
부산대 건축공
동방건축(종합)
부산 동구 초량 1158-9
464-3931



洪龍鎭(57年)
연세대 건축공
하건축
서울 성북 삼선 275-1
925-2530



林鍾聲(57年)
한양대 건축공
다보건축
서울 구로 구로 83-4
864-9738



金榮俊(54年)
대전공대 건축
미우건축
경기 시흥 신천 303-4
692-5985



金光宣(47年)
연세대 건축, 同대학원
삼진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101-21
514-5632



崔仁約(54年)
경남공진 건축
도남·유수(종합)
경남 김해 부원 615-11
32-2111



黃騰國(57年)
안양공전 토목
삼일건축
부천 중구 원미 66-5
611-3301-3



許成旭(57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삼진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101-21
514-5632



安京鎬(53年)
고려대 건축공
경남·유성·터(종합)
경남 창원 용호 73-47
61-7722



金完喆(54年)
인천공고 건축
완건축
부천 중구 원미 60-8
611-1551



趙亨浩(59年)
연세대 건축공
서해건축
충남 서산 동문 269-6
64-4200-2



裴俊斗(55年)
동아대 건축공
상지건축(종합)
부산 중구 남포 92
248-3458-9



李根坤(58年)
경북산업대 건축
한국건축(종합)
대구 중구 덕산 127-10
421-3930



金吉洙(60年)
성지공고 건축
진건축
부산 동구 초량 1163-9
45-3724



崔鍾天(62年)
한양대 건축
탐건축
충남 천안 대흥 299-11
568-0013-4



徐廷學(41年)
영남대 건축
한국건축(종합)
대구 중구 덕산 127-10
425-6328



柳亨濂(56年)
충남대학원 건축계획
농민건축
대전 중구 대흥 220
26-8113



金周奭(53年)
동국대 건축공
협차·승도(종합)
서울 서초 서초 1330-16
568-0004



金成國(54年)
조선대 건축, 고려대학원
세원·규성·나(종합)
광주 동구 학2동 649-25
224-0777



金鑰聲(53年)
고려대 건축공
(주)정일엔지니어링(종합)
서울 용산 서계 209
701-0941-3



金求躍(59年)
고려대 건축공, 同대학원
삼·원(종합)
서울 성동 구의 251-157
455-3208-9



沈相幸(47年)
조선대 건축공, 同대학원
세원·규성·나(종합)
광주 동구 학2동 649-45
225-2004



尹汝根(57年)
인천공고
운여근건축
경기 파주 금촌 768-16
944-3388-9



安貞昱(60年)
고려대 건축공, 同대학원
삼·원(종합)
서울 성동 구의 251-157
455-3208-9



河東奎(59年)
단국대 건축공, 연세대학원
진진건축
경기 안산 일동 92-11
401-0394



柳載壽(46年)
연세대 건축
환경·동인(종합)
서울 강남 역삼 823
566-1948, 566-2078-9



李丙述(55年)
인덕공전 건축
영산건축
서울 마포 동교 158-27
338-8012

'91예산편성위원회 개최

1991년도 本協會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편성위원회 회의가 朴成奎위원장을 비롯, 본부 및 각시도지부 위촉위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7월 11일 첫 회의를 가진 예산편성위원회는 익년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고 각시도지부별 회원 및 대위원들이 총회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9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검토를 거쳐 박성규위원장을 비롯한 김규태, 장성진, 강태석, 이영희, 한종언, 김정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세부지침 및 계수를 조정하였다.

이어 26일 개최된 제2차 예산편성위원회 본회위에서는 그동안 숙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91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여 理事會에 부의하였다.

이번 예산편성위원회에서 편성된 '91년도 본부 예산안 및 예산편성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일반회계 : 10억7천5백만원
- 월정회비 : (현행과 동일)

정회위원회비(월)-1만8천원
준회위원회비(월)-1만원(연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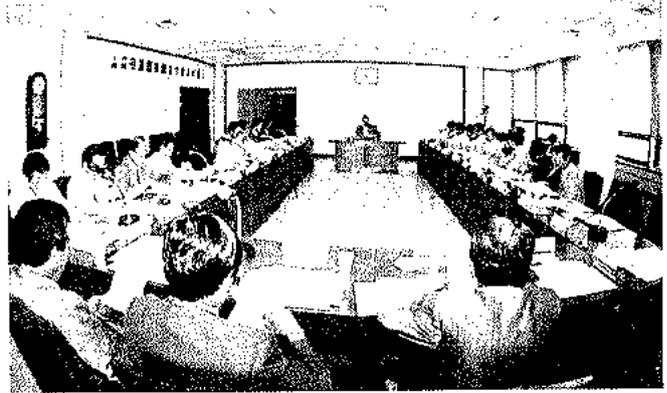
- ◆ 특별회계 : 13억4천만원
- 실적회비 : (현행과 동일)
- 설계보수액의 0.04%
- ◆ 건축법령연구소회계 : 1억9천만원
- ◆ 예산편성위원회 명단
- 위원장 : 박성규 이사
- 부위원장 : 박영희 이사
- 위 원 : 장성진, 강태석, 김정수(이상 본부이사)
- 이영희, 이세훈, 김인곤, 김영석, 이종만, 이춘상, 한종언(이상 서울지부)
- 김산재, 윤동수, 김규태(이상 부산지부)
- 장기웅, 이동근(대구지부)
- 고창영, 김일호(인천지부)
- 송양석, 조춘원(광주지부)
- 송승호, 원유택(대전지부)
- 우종선, 윤영재(경기지부)
- 민경수, 김길창(강원지부)
- 이용철, 최용목(충북지부)
- 이갑준, 신기현(충남지부)
- 유철갑, 최택운(전북지부)
- 김인모, 최상재(전남지부)
- 최종배, 손재수(경북지부)
- 김동준, 최봉형(경남지부)
- 이세환, 백형철(제주지부)

건축관련법규 및 제도개선 건의

本協會 宋基德회장과 鄭淳虎부회장, 任仁熾사무처장 등이 지난 19일 建設部를 방문, 건축법 입법 예고(안) 등 건축사 관련법규 및 제도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 자리에서 建設部측은 대형건축물의 사전예고제 도입은 사전검토제도로 변경하고 건축

사무소의 업무범위를 법제정당시로 환원하는 등의 본협회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건축사 특별전형제도 개선, 건축사업무장지 기준개선, 종합건설업 면허제 신설에 대한 설계·감리업무제외 방안등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 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7회 理事會개최

本協會 '91 제7회 理事會가 宋基德회장의 주재로 지난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91년도 예산안 승인등 주요 부의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날 理事會 주요안건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 ◆ '91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안) 승인
- 3차에 걸친 예산편성위원회에서 검토, 조정된 원안대로 승인함
- ◆ 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승인
- 도서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지부 이재철회원과 경기지부 광명분소회장 윤영호회원의 분쟁사항에 대하여 윤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재철회원에 대한 경고는 원안대로 승인하고 경기지부 광명분소회장에 대하여는 직무대만 및 소홀로 물의를 야기시킨 책임을 물어 광명분소회장의 직무를 1개월간('91.8.1~8.31) 정지키로 함.

- ◆ 월정회비 장기 미납자 정계 조치
-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월정회비를 6개월이상 미납한 서울지부소속 회원 31명에 대해 회비납부시까지 업무정지 조치함.
- ◆ 부산지부 직원 정원조정
- 7급직원 1명과 사환 1명을 증원키로 함

제 5회 支部會長會議 및 建築士年金運營委員會

'90년도 제5회 支部會長會議 및 建築士年金運營委員會가 지난 26일 개최되어 주요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주요안건에 대한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부회장회의 협의사항)

- ◆ '91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안) 협의 - (理事會 참조)
- (건축사운영위원회안건)
- ◆ 연금실적증서 개선(안)
- 연금실적회비 증서 발행에 따른 손실을 절약코자 대상자 명부를 각시도지부에 통보하여 회람토록 건축사연

금 규정을 개정키로 결의.
 ◆ '89기부연금회비 미달자의 회비 환불에 따른 이자역지급여부 - 건축사연금규정 개정시 기본

연금회비 미달자의 회비환불 요청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키로 결의.

종합건설업면허제도 및 우루과이라운드 대책회의 개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에 의한 개방시점에 편승하여 대형건설업체 부설 설계사무소 및 연구소등을 합법화시키고, 국제진출 및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구실하에 국내건설시장의 독점으로 기업경영의 수단화하고, 또한 건축사가 재벌회사에 예속되어 창작 및 전문영역이 침범당할 소지가 있는 종합건설업면허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本協會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대처키로 하였다.

지난 27일 本協會는 협회 임원 및 대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종합건설업면허제도대책위원회(위원장 姜泰錫이사)와 우루과이라운드대책위원회(위원장 姜基世전이사)를 구성하여 세부대책을 강구키로 하여 지난 30일과 2일에 각각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2일에는 재경임원협의회를 통해 전회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숙의를 통해 종합건설업 면허제도에 대해서는

- 1) 설계감리와 시공분야는 현행 건축사법에 의한 고유업무 유지,
- 2) 설계의 해외 발주시 외국건축사의 업무범위를 계획설계에 국한하고 국내건축사(실시설계 및 감리, 행정업무등)와의 Part-

ner를 의무화,
 3) 설계보수를 현실화하고 외국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지불 창구를 일원화,
 4) 종합건설업체의 건축사가 Partner Ship을 연계토록 함(해외건설업에 한함)
 5) 해외진출 희망 건축사에게는 현행 건설업체에 국가가 지원하는 동등한 수준의 혜택 부여
 6) 현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기준을 강화, 보완하는 등 건축사의 권의 보호를 위한 기본 대응 방침을 협의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해서는 외국인 건축사에게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수 있도록 개방하였을 때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한편,

- 1) 설계비 및 공사비의 현실화,
- 2) 금융의 혜택,
- 3) 감리의 적극화,
- 4) 세율의 인하,
- 5) 건축사법을 국제화 조류에 맞도록 종합건축사사무실을 특수법인사무실화하며,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하고 건축사 연대책임제를 폐지하는 한편 양벌규정의 폐지,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추가, 특수법인 건축사 사무실에 혜택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토록하는 방안등을 협의하는 한편 전국 각 시도지부를 통한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特別市支部(會長 李永熙) 전투경찰대 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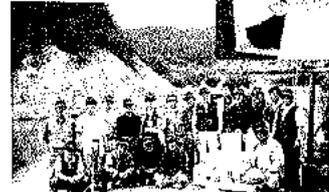
서울지부(회장 李永熙)는 지난 7월 3일 李世勳부회장 등이 전투경찰 제○기동대를 방문하여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에 노

고가 많은 대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서울지부 전투경찰대 위문

광주지부 건축관계공무원 간담회



경북지부 뉴시대회

光州直轄市支部(會長 宋良漸) 건축관계공무원 간담회 개최

光州지부(회장 宋良漸)는 지난 20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건축관계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관내 파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광주직할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는 한편 지부 예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慶尙北道支部(會長 崔種培) 회원취미활동 활발

慶北지부(회장 崔種培)는 90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각종 회원취미활동을 벌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지난 6월 7~8일 양일간 안동댐에서 개최된 뉴시대회에서는 김용준회원이 영광의 최우수상을 차지하였으며, 바둑대회(6월

16일개최)에서는 박찬권회원이 우승하였다. 또한 경주조선칸트리클럽에서 개최된 골프대회(6월14일 영남건축사골프대회와 병행 실시)에서는 지부회원 60명이 참석하여 도정기회원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建築實務 CAD 活用に 關한 세미나

日 時 : 1990. 9. 4(火) 午後 2時
場 所 : 大韓建築士協會 大講堂
主 催 : 大韓建築士協會
(業務電算委員會, 國際委員會)
演 士 : Aart Bijl
英國 Edinburgh 大學 教授
英國 Edinburgh CAD 研究所 所長
金正植
亮宇綜合建築士事務所 代表

■ 북경심포지엄 참가 안내 ■

금번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건축학회에서는 '스포츠 건축'에 관한 심포지엄을 제11차 북경아시아게임 장소인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중국건설성, 정부체육위원회 및 북경시의 후원하에 '스포츠 건축과 공동사회'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제11차 아시아게임 준비를 위하여 최근 3년동안 건립된 통신시설과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스포츠 시설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북경의 새로운 변모와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스포츠 시설물의 설계, 건축,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기술 및 그로인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 등이 토론되어질 것이며 연합행사로서 스포츠 건축, 엔지니어링 혁신, 신건축자재 및 컴퓨터 이용에 관한 전시회가 등 행사장에서 개최됩니다.

본 협회에서는 세계건축가협회(UIA)와 아시아건축사협회(ARCASIA)가 적극 후원하고 있는 동 심포지엄에 보다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근도시의 유명건축물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마련하였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 관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 여행기간 : '90. 11. 4~11. 14(10박 11일)
- 방문도시 : 홍콩, 북경, 서안, 항주, 소주, 상해
- 참가인원 : 15명이상
- 참가지역 : 전 회원
- 여행경비 : 2,210,000원(대회 등록비 별도, 여권인지대 및 소양교육비 별도)
- 신 청 금 : 500,000원(여행경비의 일부금으로 반환치 않음)
- 신청마감 : '90. 8. 31(본 협회 총무부 : 581-5711~4)